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베트남전쟁에 관한 소설적 형상화 연구

지도교수 김 종 욱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전공
동 티 투 히엔

동 티 투 히엔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7월

위 원 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목차

1. 서론 ····· 2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 2
1.2. 연구의 시각 및 범위 ····· 7
2. 1960년대: 국가와 개인의 동일한 반공주의 정신 ····· 13
2.1. 한국군의 전황에 대한 과잉 평가 ····· 13
2.2. 정의를 위한 참전 ····· 49
3. 1970~1980년대: 국가의 반공주의 정신에서 벗어난 개인 ····· 17
3.1. 낭만과 현실의 갈등 ····· 77
3.2.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쟁 ····· 88
4.1. 한국군의 정신적인 후유증 ····· 79
4.2. 후세들의 후유증 ····· 119
5. 결론 ····· 142
참고문헌 ····· 150
Abstract ····· 159

1.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사 검토

베트남전쟁[1]은 인류사 흐름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 전쟁은 미국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으로도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들은 베트남전쟁이 반제국주의를 대표한 베트남민주공화국 (북베트남)과 제국주의 (또는 반공주의)를 대표한 미국 (또는 미국의 괴뢰 정권인 남베트남)의 대결로 인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당시 미국군과 남베트남 정부군 외에 미국의 동맹군으로 다른 국가의 군인들도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중에 한국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전했다.[2] 베트남전쟁은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1년이나 걸렸는데 미국의 동맹국이었던 한국은 1964년 초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쟁에 약 32만 명의 군인을 파병했다. 한국은 이 전쟁에 참전한 어두운 과거를 재론하는 게 불편해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언급을 아예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관점이 있고 심지어 현재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관점도 있다[3]. 하지만 1992년 외교 수립 이후 시작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하고 화평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나간 역사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고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큰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 학계에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을 연구할 때 “주로 미국 공문서와 일간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4]이루어진 자료를 토대로 연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

1) 지금까지 베트남전쟁이라는 용어를 쓸 때 학자들은 이 전쟁이 일어난 기간에 대해 다르게 정하고 있다. 하나는 베트남민주공화국이 1946년부터 1954년까지 프랑스 식민과 투쟁하고 1954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과 투쟁하는 30년간 과정으로 정하며 다른 하나는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1년간 미국과 투쟁하는 과정으로 정한다. 본고는 베트남전쟁이 1954년부터 1975년까지 일어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용어는 베트남 연구 학계에서 자주 쓰는 항미전쟁이란 용어와 일치한다.

2) 한국군 외에 미국의 동맹군으로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군대는 다음과 같다:
태국군: 1996년7월부터 1972년2월까지 1만 3천명이 참전했다.
호주군: 1964년9월부터 1972년12월까지 3천명이 참전했다.
뉴질랜드군: 1965년7월부터 1972년12월까지 600명이 참전했다.
필리핀군: 1965년4월부터 1973년3월까지 2천명이 참전했다.

3) 한국은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1992년 공식적으로 맺었다. 지금까지 양국은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정치, 문화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며 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는 한국 정부 사료와 언론 보도 자료에 근거한 연구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모름지기 문학은 삶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문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을 통해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과 베트남 문학계가 문학작품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작가들은 1960년 초부터 베트남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1970년대에 와서야 베트남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는데 오늘날까지 관심도가 아주 높아 보이며 창작 장르도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5]. 베트남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작품 중에서 시와 단편소설에 관한 통계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출판된 중-장편소설이 500편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더불어서 수필이나 자서전, 산문, 종군기 같은 다양한 장르가 있다.[6] 수많은 장르들 중에 소설은 재래식전투 소설 (conventional combat novels)과 파격적인 전쟁소설 (unconventional innovative war novels)과 파격적인 논-픽션 전쟁소설 (unconventional non-fiction war novels) 3 가지로 나눠진다.[7]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대해 쓴 미국 작가들은 주로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는 베트남전쟁에 직접 참전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목격한 사건을 바탕으로 창작하는 작가, 둘째는 베트남에 대한 전문 연구자로서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나 요청에 따라 창작하는 작가, 셋째는 베트남전쟁 후 미국으로 이민간 재미 베트남작가이다[8]. 각 작가들의 개인 체험과 출발점은 서로 달랐지만

---

4) 후루타 모토오 지음, 박홍영 옮김, 『역사 속의 베트남전쟁』, 일조각, 2007, 186면.

5) 사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문학보다 주로 영화를 통해서 접근한다. 그 중에 베트남전쟁을 지지하는 영화들 (The Green Berets, A Yank in Viet-Nam, Vietnam! Vietnam 등)과 베트남전쟁에 대한 입장이 분명치 않은 영화들 (Apocalpyse Now, Good Morning Vietnam, Rambo: First Blood Part 2, Forrest Gump 등), 베트남전쟁을 다룬 반전 영화들 (The Deer Hunter, Full Metal Jacket, Platoon, Born on the Fourth of July 등), 그리고 베트남 전쟁 후 미군 베테랑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들 (First Blood, Taxi Driver, Heroes 등)로 꼽을 수 있다.

6) Nguyễn Hồng Dũng,「Chiến tranh Việt Nam trong văn học Mỹ từ sự thật đến tác phẩm」, tạp chí sông Hương, 2021.

7) Tom Graydon Colonnese,「The Vietnam War in the American Literature」,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1981.

8) Nguyễn Hồng Dũng, 앞글.

미국 사회와 미국 군인과 미국 국민 세 부문에서 서로 모순된 문제들을 공통적으로 표출하여 작품 모두가 베트남 참전이 무의미하다는 것과 "미국인의 정글의 악몽" (America's jungle nightmare)[9]이라는 것을 밝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작품을 꼽아 보자면 Graham Greene의 『The Quiet American』(1955), David Halbertstam의 『The making of a Quagmire』(1965)와 『On very hot day』(1967), Ward Just의 『Stringer』(1974), Larry Heinemann의 『Close Quaters』(1974), Robert Stone의 『Dog Soldiers』(1974), Gustav Hasford 의 『The short-timers』(1979), Jonathan Cain의 『Saigon Commandos』(1983), Larry Brown의 『Dirty Work』(1989), Tim O'Brien의 『The things they carried』(1990), Allen Hassan의 『Failure to atone』(2006), Viet Thanh Nguyen의 『Sympathizer 1,2』(2015)와 『Nothing Ever Dies: Vietnam and the Memory of War』(2016) 등이 있다.

이어서 베트남 문학계에서는 이 주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베트남 문학사에는 이 주제를 다룬 작품이 매우 많고 심지어 항미전쟁 문학파까지 형성되어 국민정신을 함양했는데 이는 베트남 민족의 혁명 투쟁을 성공시키기 위한 원동력으로 예리한 무기가 되기도 했다. 미국과 벌어진 전쟁 전에 먼저 프랑스와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베트남민주공화국 정부는 문학의 중요한 역할을 인지했고 문학이 예리한 무기라는 것도 간파했다. 베트남의 서기장인 즈엉 진 (Trường Chinh)은 "정치를 위한 문예는 조국과 인민, 국가 통일 사업, 사회주의 국가 건설 및 개선 업적을 위한 문예"[10]라고 강조했다. 특히, 호치민 주석이 1948년에 개최된 제2회 전국 문화회의 (Hội nghị văn hoá toàn quốc lần thứ hai)에 보낸 편지는 이 시기의 문학 이론을 공고하게 해줬다.

문화의 업무는 국민을 투쟁과 건국 사업에 선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9) Donald Ringnalda, 「Fighting and writing: American's Vietnam War Literature, Journal of American Studies,Civil Rights and Student Protest」, Apr. 1988, Vol. 22, No. 1, p.25.

10) 즈엉 진, 『현재 베트남 문예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문학출판사, 1972, 144면. (Trường Chinh, Về một số vấn đề văn nghệ Việt Nam hiện nay, in trong: Hồ Chí Minh, Lê Duẩn, Trường Chinh, Phạm Văn Đồng, Võ Nguyên Giáp, Về văn hoá văn nghệ, Hà Nội: Nxh.Văn học, 1972, trang 144.)

위대한 전과를 전 세계로 알려줘야 되는 역할이 있다. 문화인들은 현재 국가의 투쟁과 건국 사업을 찬양해야 하며 동시에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숭고한 인물들을 후세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는 작품들이 있어야 한다.[11]

따라서 대부분 작품들이 전쟁 시기에 발표되어 영웅주의와 서사적 사고방식을 강조하고 적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 일색이다.[12] 이 시기엔 영웅적인 감상에 젖어 인물들이 ①국가의 위대한 이상을 위해 본인의 사정을 접어놓았고 ②전쟁을 낙관적인 태도로 인식했고 ③죽음을 미화했다. 동시에 서사적 사고방식으로 창작하기 때문에 문학은 ④치열한 변고들로 가득 찬 세계가 반영되었으며 ⑤이 세계에서 인간들을 한 공동체로 대표해준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이나 죽음을 표출할 때 최대한 숭고하고 비장한 정신으로 그려내서 사람들의 전투 정신과 애국심을 높인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전쟁의 후유증이나 개인적 스토리를 다룬 작품이 많아지면서 전쟁때문에 발생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주제로 창작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제는 문학의 목적이 살아남은 사람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다. 한-베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 양국 간에 문학 교류도 시작됐는데 베트남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에 관련된 문학작품들이 한국 독자를 찾아 접근할 수 있었다. 물론 번역된 베트남 문학작품 수가 아직 많지 않았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에 대한 작품은 당연히 더욱 적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꼽으면 바오닌의 『전쟁의 슬픔』 (Bảo Ninh, 『Nỗi buồn chiến tranh』, 1991), 반레의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 (Văn Lê, 『Nếu anh còn được sống』, 1994) 등이 있다.

한편, 한국 문학사에는 베트남전쟁에 관한 작품이 흔하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들을 구분해 보면 픽션과 논픽션으로 나눌 수 있다. 논픽션 작품으로는 참전 시기에 출간된 종군작가의 종군기가 있는데 베트남전쟁을 연구할 때 이러한 기사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종군작가가 전투 상황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

11) Trần Đình Sử,「Tiếp nhận nguyên lí văn nghệ phục vụ chính trị ở Việt Nam」, Wordpress, 2015에서 재인용.

12) Trần Thị Mai Nhân, 「Nhìn lại tiểu thuyết về chiến tranh trong văn học Việt Nam giai đoạn 1945-1975」, 한국 베트남 학회 정기학술대회, 2017, 7면. (잔 티 마이 냔, 「베트남 문학에서 나타난 1945-1975년 시기 전쟁 소설 재고찰」, 한국 베트남 학회 정기학술대회, 2017, 7면.)

사실 한국은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에 파병을 했는데 이 기간에 많은 기자가 베트남으로 가서 종군했다. 그리고 기자들은 주로 전신(Telex)을 이용해서 취재한 기사를 본사에 보냈다.[13] 대표적인 기자는 조선일보의 이규태[14], 최현우[15], 김운하[16], 김동규[17], 선우휘[18], 목사균[19], 이도형[20], 유지형[21], 박경진[22], 황승일[23];

---

13) 이신재,「베트남전쟁기 한국 종군기자의 파견과 활동 고찰」,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연구소한국군사학논집,2020, 138면.

14) 이규태:

1. 「파월군원단(派越軍援團) 결단(結團)」, 조선일보, 1965.02.06., 조간 1면.
2. 「메콩강(江)의 비둘기① 기항(寄港)없는 닷새…하루가 한계절(季節)」, 조선일보, 1965.03.21, 조간 1면.
3. 「메콩강(江)의 비둘기② 본사주월특파원(本社駐越特派員) 이규태(李圭泰) 종군기(從軍記) 베트콩시체(屍體)에 함포(艦砲)겨누고」, 조선일보, 1965.03.23, 조간 1면.
4. 「메콩강(江)의 비둘기 ③ 본사주월특파원(本社駐越特派員) 이규태종군기(李圭泰從軍記) 억울한 견공(犬公)들」, 조선일보, 1965.03.26, 조간 3면.
5. 「메콩강(江)의 비둘기 ④ 본사(本社) 주월특파원 이규태 종군기 (駐越特派員 李圭泰從軍記) 「밴·호아」의 한국(韓國)「붐」」, 조선일보, 1965.03.27, 조간 3면.
6. 「메콩강(江)의 비둘기 ⑤ 인정(人情)은 총(銃)보다 강(强)하다」, 조선일보, 1965.03.30, 조간7면.

15) 최현우, 「20연처여지(年處女地) 태극기(太極旗)를 꽂았다 돌산작전(作戰)」, 조선일보, 1965.11.20, 조간 3면.

16) 김운하, 「여기는 가창(嘉昌)… 「맹호(猛虎)」ㅡ「비둘기」의 요람(搖籃)」, 조선일보, 1966.03.22, 조간8면.

17) 김동규:

1. 「탁류(濁流)를 피로 물들인 3박(泊)4일(日) 베트통퇴로(退路)막아…계곡(溪谷)더듬어 잠복강행군(潛伏强行軍) <한월미군(韓越美軍)> 정글속의백병전(白兵戰)」, 조선일보, 1966.06.07, 조간3면.
2. 「성난맹호(猛虎)」…첫새벽의 협공(挾攻) 「번개5호작전(號作戰)」종군기(從軍記)ㅡ월남통신(越南通信) (15)」, 조선일보, 1966.04.12, 조간 6면.

18) 선우휘:

1.「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제(第)1신(信) ① 탄막(彈幕) 속의격투(格鬪)…푸캇고지(高地), 조선일보, 1966.10.13, 조간4면.
2.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제(第)1신(信)② 군종(軍宗)이 앞선 적진돌파(敵陣突破) 「재벌밀수(財閥密輸)」에 성난「맹호(猛虎)」 추석(秋夕)달보며 조국(祖國)을원망, 조선일보, 1966.10.16, 조간 4면.

19) 목사균:

1. 「백마(白馬)」의 살상(殺傷)없 는승리(勝利)」, 조선일보, 1966.12.08, 조간4면.
2. 「쿠몽일대(一帶)를 평정(平定)하라, 조선일보, 1967.01.12, 조간6면.
3. 「특파원(特派員) 위기일발(危機一髮)」, 조선일보, 1967.01.17, 조간 6면.

경상신문의 박강지[24], 손주환[25], 심재훈[26], 이상우[27], 이재관[28], 이현균[29],「 전남석[30], 정재호[31], 최서영[32]; 동아일보의 김용택[33],

---

20) 이도형, 「다반계곡(溪谷)」으로 달려라, 조선일보, 1967.01.31, 조간6면.
21) 유지형, 「처참(悽慘)····시산(屍山)에 묻힌 후에시(市)」, 조선일보, 1968.02.24, 조간1면.
22)박경진, 「숨죽인「죽음의 계곡(溪谷)」 본사(本社) 박경진(朴京鎭) 특파원 독수리작전(作戰) 종군기(從軍記)」, 조선일보, 1971.03.16, 조간6면.
23) 황승일:
1. 「맹호(猛虎) 638고지(高地) 점령(占領)」, 조선일보, 1972.04.19, 조간 1면.
2. 「벙커엔 시산(屍山)····잿더미된 정글」, 조선일보, 1972.04.25, 조간3면.
3. 「안록 일대 월맹군(一帶越盟軍) 맹타(猛打)」, 조선일보, 1972.05.04, 조간1면.
24) 박강지,「休日인 23일...」, 경향신문, 1972.04.24, 조간 1면.
25) 손주환, 沈相重共著『불타는越南』, 경향신문, 1965.08.23, 조간 5면.
26) 심재훈, 「越南總選,成功裡끝내」, 경향신문, 1966.09.12, 조간 1면.
27) 이상우, 「越南民政 發足」, 경향신문, 1967.10.31, 조간 1면.
28) 이재관:
1. 「越南에 北傀心理戰要員 약 50명 韓國軍대상 暗躍」, 경향신문, 1970.09.22, 조간1면.
2. 「월남군대변인은 24일 월남군은「라오스」작전에서」, 경향신문,1971.02.25, 조간1면.
3. 「越南軍,새 라오스作戰」, 경향신문, 1971.04.01, 조간1면.
4. 「越南발표 共産捕虜3천명 釋放」, 경향신문, 1971.10.29, 조간1면.
5. 「"韓國軍에 감사" 越南政府서도 발표」, 경향신문, 1971.11.06, 조간1면.
6. 「韓進越南서 철수」, 경향신문 | 1971.12.29, 조간7면.
7. 「새로운選擧제의 티우越南大統領」, 경향신문, 1972.01.26, 조간1면.
29) 이형균, 「駐越軍 早期撤收」, 경향신문, 1966.11.21, 조간1면.
30) 전남석의 대표 기사:
1. 「越南處理 3大方向」, 경향신문, 1966.10.31, 조간3면.
2. 「東·西의越南気流 마닐라7個國 頂上에 함께온」, 경향신문, 1966.10.08,조간5면.
3. 「越南戰爭의 虛実 (2) 沙漠에 심는 美國의 理想」, 경향신문, 1967.08.19,조간5면.
4. 「越南戰爭의 虛実 (3) 9.3選擧와 政治不在」, 경향신문, 1967.09.04,조간3면.
5. 「越南戰爭의 虛実 (4) 베트콩의 両面作戰」,경향신문, 1967.09.13,조간5면.
6. 「越南事態둘러싼 東·西두會議決算 拡戰에의 神経戰」,경향신문,1967.04.24, 조간3면.
7. 「越南叅戰두돌」, 경향신문, 1967.09.25, 조간1면.
8. 「越南내일総選挙」, 경향신문, 1967.09.02, 조간1면.
31) 정재호의 대표 기사:
1. 「"輸送作戰 成功的" 金艦隊司令官談,越南上陸에」, 경향신문, 1965.10.12, 조간1면.
2. 「번지는 메아리 越南속의 韓國」, 경향신문,1965.11.17, 조간1면.

박기성[34], 박동은[35], 박신일[36], 박인섭[37], 서울신문의 박인변[38] 등이 있다.

이어서 픽션 작품에 대해 살펴보면 베트남전쟁을 직접적인 소재로 쓴 소설과 종전(終戰) 후 전쟁이 군인들에게 미친 후유증과 후세대에게까지 미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쓴 소설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을 언급하자면 선우휘의『물결은 메콩까지』(1966), 박영한의『머나먼 쏭바강』(1977),『人間의 새벽』(1980), 황석영의「탑」(1970),「낙타누깔」(1972),「물개월의 새」(1976),『무기의 그늘』(1988), 안정효의『하얀전쟁』(1983), 이상문의『다람질』(1983),『황색인』(1987),『기억 속에 그림자』(1989), 이원규의『훈장과 굴레』(1989)등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전쟁의 아픔을 극복하고 화해과정을 반영한 작품도 있다. 예를 들면 이대환의 중편『슬로우 불릿(1996년, 2001년 그리고 2013년 판)[39], 방현식의「랍스타를 먹는 시간」(2003), 정인 의「이식(移植),

---

3. 「越南에「따이한」訪問競合」, 경향신문, 1965.10.29, 조간3면.

32) 최서영의 대표 기사

1. 「越南,表面上平穩회복」, 경향신문, 1964.08.29, 조간1면.
2. 「越南데모,더욱險惡化」, 경향신문, 1964.08.25, 조간1면.
3. 「森嚴한警戒·集會禁止令無視 越南 學生 反政府·反美示威」, 경향신문, 1964.08.20, 조간1면.
4. 「越南,사실상無政府상태」, 경향신문, 1964.08.27, 조간1면.
5. 「完全武裝 ---사이곤市 本社 崔特派員 越南서 第一信」, 경향신문, 1964.08.11, 조간1면.

33) 김용택의 대표 기사:

1. 「盟邦의 差別待遇 피를본 處遇改善」, 동아일보, 1967.11.25, 조간7면.
2. 「"駐越軍士氣날로 드높아"蔡命新 司令官送年單獨 회견기」, 동아일보, 1967.12.19, 조간5면
3. 「敵의 숨통을 조여라 카메라에 담은 猛虎의勇猛과 사랑 洪吉童3號作戰단독從軍」, 동아일보, 1967.08.22, 조간5면.
4. 「푸엔省을포위하라」, 동아일보, 1967.07.18, 조간7면.

34) 박기성, 「흔들리는座標…駐越國軍 美·聯合軍 일방撤收의 波長」, 동아일보, 1970.11.07, 조간3면.

35) 박동은, 「越南取材手帖에서」, 동아일보, 1967.02.25, 조간7면.

36) 박신일, 「美의越南협상 獨走에 쫓겨時間과 싸우는 티우대통령」, 경향신문, 1969.07.03, 조간1면.

37) 박인섭, 「美의越南협상 獨走에 쫓겨時間과 싸우는 티우대통령」, 경향신문, 1969.07.03, 조간1면.

38) 박인변, 「國軍「린선」寺 승려殺害說 眞相」, 동아일보, 1969.11.29, 조간5면.

39) 이대환은 단편 판을 1996년에 발표하면서 2001년에 장편으로 개작했고 2013년에 중

그 언저리」(2016), 최은영의「씬짜오 씬짜오」(2016) 등이 있다. 한국작품에서는 다양한 인물 세계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와 후방에서 일어난 문제들까지 여러 방면에 걸쳐서 두루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군에 초점을 두고 작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을 통해서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문제들을 새롭게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베트남전쟁에 관한 작품이 많지 않지만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관계를 맺은 후 한국문학계에는 베트남전쟁이란 주제에 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학술논문이고 학위논문은 아직 많지 않아서 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표된 작품들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 왔다. 따라서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1973),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1985), 이원규의 『훈장과 굴레』(1986),이상문의『황색인』(1987),안정효의『하얀전쟁』(1998)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베트남전쟁에 대해 최초로 창작한 작가는 선우휘로 그는 종군기를 조선일보에 두 번 연재했고 1966년에 장편소설인 『물결은 메콩까지』를 발표했다. 『물결은 메콩까지』는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초기 작품이지만 이 작품에 관련된 연구는 김종욱[40]과 장세진[41]의 연구밖에 없다. 김종욱은 베트남전쟁에 관한 소설들 중 가장 먼저 발표된 작품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선우휘의 『물결은 메콩까지』를 통해 선우휘의 사고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반전운동가들과의 논쟁을 통하여 베트남전쟁 참전 사유의 타당성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그 대신 S.키에르케고르의 논리에 의존하여 종교적인 신념으로 내세웠다. 이는 선우휘가 사르트르와 결별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는데 바로 선우휘가 권력과 타협한 것이 결별의 결정적인 이유였다. 김종욱은 『물결은 메콩까지』를 통하여 당시 배경이 선우휘의 작품에서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줬다. 그리고 장세진은 당시의 파병논리를 밝혔는데 『물결은 메콩까지』에서 "파병을 찬성하는 근거로 전형적인 냉전논리

편으로 한 번 더 개작했다.

40) 김종욱,「베트남전쟁과 선우휘의 변모」,우리말글 제63집, 2014.

41) 장세진, 「학병, 전쟁 연쇄 그리고 파병의 논리- 선우휘의 『물결은 메콩까지』 (1966)를 중심으로」,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5호, 2018.

인 반공주의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과거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 학병으로 참전한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42]에 주목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한 논문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탑」, 안정효의 『하얀전쟁』 을 비롯한 1970년대 ~ 1990년대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쓴 논문이 대부분이다. 유철상의 학술 논문인 「환멸의 전쟁과 관찰자의 시선, 박영한의 베트남전쟁 소설」[43]이라는 논문이 주목될 만하다. 유철상은 박영한의 베트남전쟁 관련 소설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박영한은 베트남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쓰게 된 『머나먼 쏭바강』으로 문단에 데뷔했는데 그 후속작으로『인간의 새벽』도 발표하였다. 유철상은 박영한 작가가 베트남에서 『전우신문』 보도병으로 근무했던 경험에 충실하여『머나먼 쏭바강』에서 베트남 전쟁을 사실대로 기록했다. 후속작인 『인간의 새벽』에서 마이클이라는 미군 기자를 등장시켜서 사이공 함락을 둘러싼 넉 달간의 기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타국의 전황을 국내 독자에게 전했다. 이렇게 전작과 후작이 같은 맥락으로 공통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작품에서 형상화하고 있는 베트남의 실상과 작가의 베트남전쟁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 이르러서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44]고 한다. 즉, 『머나먼 쏭바강』은 당시 한국 청년들의 사회적 진출 문제를 다룬 소설로 주인공인 황일천 병장의 내적 변화과정을 그린 반면에 후속작인 『인간의 새벽』은 그 당시 베트남전쟁에 대해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표출했다. 베트남전은 한반도 전쟁의 체험과 상당히 맞닿아 있으며 이 전쟁은 베트남 남-북 정부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일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와 민족주의의 대결 전쟁이기도 하다. 동시에 『인간의 새벽』에서 등장하는 다층적 성품의 주인공들이 베트남전쟁의 복잡한 성격을 잘 대변해 주었다고 밝혔다.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과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비교하는 연구도 있다. 박철우의 연구는[45] 박영한의 『인간의 새벽』과 황석영의

42) 장세진, 앞의 논문, 국문요약.
43) 유철상,「환면의 전쟁과 관찰자의 시선 박영한의 베트남 전쟁 소설」, 현대소설연구 제57호, 2014.
44) 유철상, 앞의 논문, 104면.
45) 박철우,「베트남전쟁소설 연구」,『한국문예창작 제6권 제1호』(통권 제11호), 2007.

『무기의 그늘』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전쟁이 어떤 의미로 각인되었는지"[46]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새벽』과 『무기의 그늘』은 등장인물 간의 갈등을 스토리로 전개해 나가는 비슷한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두 작품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즉, 『인간의 새벽』의 주인공은 베트남전쟁을 단지 베트남민족 내부의 문제로 인식한 반면에 『무기의 그늘』의 주인공은 베트남 전쟁을 제국주의 세력이 개입한 국제전으로 인식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문제를 확실하게 고찰했다고 밝혔다.

황석영은 베트남전쟁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단-중-장편 소설을 통하여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보여줬다. 따라서 황석영이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쓴 소설에 대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학술논문[47]으로 추산되고 대부분 연구의 공통점은 ①베트남전쟁이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라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아닌 미국과 결탁한 제국주의 세력과 그에 대항하는 민족주의 세력 간의 싸움으로 ②한국군은 단순히 용병으로 참전한 것뿐이고 ③베트남전쟁을 통해서 한반도의 분단 상황을 재고찰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정호웅[48]은 『무기의 그늘』에 나타난 베트남민족의 투쟁과 해방에 대해 고찰했는데 베트남에서 일어난 전쟁을 통하여 한국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베트남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베트남인들 자신에 의해 주체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듯 한국의 경우 또한 그래야 할 것이라"[49]고 언급했다.

학위논문은 세 편이 있는데 하나는 『무기의 그늘』에 나타난 한-미-베 인물의 입장을 살펴보았고[50] 하나는 황석영의 중-단편 소설과 장편

---

46) 박철우, 앞의 논문, 276면.

47) 해당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서은주,「월남파병 30주년: 월남과 한국, 한국 소설 속의 월남전」,역사비평,1995.
2. 안남일,「황석영 소설과 베트남전쟁」,한국학연구 11집 1호, 1999.
3. 임홍배,「베트남전쟁과 제국의 정치,『무기의 그늘』론」, 최원석. 임홍배 엮음, 『황석영 문학의 세계』, 창비, 2003.
4. 정호웅, 「베트남 민족 해방 투쟁의 안과 밖」, 외국문학 22호, 1990.
5. 하정일, 「분단의 형이상학을 넘어서 황석영론」, 실천문학, 2001.

48) 정호웅, 「베트남 민족 해방 투쟁의 안과 밖」, 외국문학 22호, 1990.

49) 정호웅, 앞의 논문, 175면.

50) 응웬 레 투 (NGUYEN LE THU), 「황석영 문학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무기의 그늘』을

소설『무기의 그늘』을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베트남 전쟁의 본질을 살펴봤고[51] 마지막으로 2018년에 발표된『베트남전쟁 서사에 나타난 부등가교환 양상 연구』[52]라는 논문이 있다. 이 논문은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속 베트남전쟁 서사에 나타난 '부등가 교환 양상'을 살펴보는 데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해 『난장』과 10년 후 재등장한 『무기의 그늘』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 작가 황석영의 제국주의와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무기의 그늘』에 나타난 '부등가 교환 양상'을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황석영이 다룬 베트남 전쟁 서사의 특징적인 국면을 구체적으로 밝혔다.[53]

이어서 안정효의 『하얀전쟁』에 대한 연구를 알아볼 것이다. 김우영[54]은 안정효의 『하얀전쟁』을 통해서 한국 사람이 역사를 망각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하얀전쟁』이 "베트남 전쟁과 기억의 문제를 심문하기에 적당한 텍스트"[55]라고 주장한다. 베트남전쟁은 한국전쟁과 달리 참전군인과 비참전인 사이의 격차가 크고, 참전군인 사이에서도 편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56]

김경수는[57] 한국과 베트남이 "두 개의 국가 하나의 운명"으로 인식하는데 "식민통치와 그에 뒤이은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분단과 이념 갈등으로 인한 동족끼리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베트남은 한국의 거울이 되기에 족했다"[58]고 피력했다.

안정효의 『하얀전쟁』외에 200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작품들에 관한 연구가 아직 드물다. 정리해보면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에 관련된 몇 논문이 발표되고[59] 방현석의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석사학위논문, 2005.

51) 김명희,「황석영의 베트남 전쟁 소설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52) 응웬티 하 디엔 (NGUYEN THI HA TIEN), 「베트남전쟁 서사에 나타난 부등가교환 양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53) 응웬티 하 디엔 (NGUYEN THI HA TIEN, 앞 논문의 국문 초록, iv.

54) 김우영,「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기, '추모'와 '망각'을 넘어서, 안정효의 『하얀전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4, 2014.

55) 김우영, 앞의 논문, 188면.

56) 김우영, 앞의 논문, 208면.

57) 김경수,「자기 위안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진단-베트남전쟁 소설의 상상력」, 서강인문논총 18호, 2004.

58) 김경수, 앞의 논문, 59면.

59) 관련된 논문이 주로 다음과 같다.

단편소설인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 관련된 연구도 마찬가지이며[60] 정인의 「이식 그 언저리」에 관한 연구는 김종욱[61]의 서평 하나만 있다.

게다가 한-베, 한-미, 한-미-베의 작품을 선택해서 비교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에 따른 논문도 나왔는데[62] 이러한 논문들은 각 국의 작가가

---

1. 방민호, 「역사적 운명의 탐구, 가려진 진실의 재현」, 이대환 지은, 전승희 옮김, 『슬로우 불릿』, Asia, 2013.
2. 송주성, 「1년의 전쟁, 40년의 고통 - 이대환,『슬로우 불릿』」, 실천문학, 2001.
3. 윤애경,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2세의 형상화 양상」, 현대문학, 우리어문연구 50집, 2014.
4. 이경재,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 연구」, 춘원연구학보, 2020.

60)

1.홍기돈,「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 방현석, 『랍스터를 먹는 시간』(창비, 2003)」, 실천문학, 2004.

2.응웬 티 탄 쑤언, 「베트남에 관한 한국 소설 두 편 속의 참회와 화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방현석의 「랍스타를 먹는 시간」을 읽고」, 국제언어문학, 2017.

3.신정자, 「이데올로기의 환상과 재인식 - 방현석 소설 「존재의 형식」과 「랍스터를 먹는 시간」」, 인문학연구, 2008.

4.김자영,「베트남전쟁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서사 분석 - 방현석의「존재의 형식」,「랍스터를 먹는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021.

5.하채현,「방현석 소설의 베트남 표상 연구」, 한국지역문학연구, 2017.

6.김경민, 「한국 문학이 아시아와 마주하는 법」, 국어국문학, 2020.

7.음영철,「베트남 전쟁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전승과 트라우마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61) 김종욱,「죄와 책임, 그리고 문학」, 문학사상, 2017.

62) 지금까지 주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발표된다.

1. Bui Thi Bach Duong,「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과 Anh Duc의 『Hon Dat』 비교-인물의 성격 분석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2. 송승철,「베트남전쟁 소설론: 용병의 교훈」, 창작과 비평, 1993.
3. 지현희,「한-베 베트남전쟁 소설 비교 연구」, 문창어문논집, 2006.
4. 조윤정,「베트남전쟁을 둘러싼 한국.베트남.미국 작가의 글쓰기 의식, 안정효, 바오 닌, 팀 오브라이언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서설연구, 2014.
5. 윤정헌,「월남전소재 소설의 두 시각,『하얀 전쟁』과『내 이름은 티안』의 대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03.
6. 박진임,「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재현: 팀 오브라이언의 『숲의 호수에서』와 황석영의『무기의 그늘』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2004.
7. 방재석, 조선영,「베트남전쟁과 한-베트남 문학 교류 고찰」현대소설연구, 2014.
8. 방재석,「베트남전쟁을 통한 의식의 변화양상 비교연구,『무기의 그늘』과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1.
9. 정찬영,「한국과 베트남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담론 연구」,한국문학논총, 제58집, 2011.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연구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조윤정[63]은 한-미-베 작가의 세 입장을 고려해서 작가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분석했다. 이 논문은 안정효의 『하얀전쟁: 전쟁과 도시』(1985), 바오닌의『전쟁의 슬픔』(1991),팀 오브라이언의 『그들이 가지고 다닌 것들』(1990)을 고찰 대상으로 담았는데 세 작가 모두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로서 전쟁의 문제를 사실 그대로 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베트남 작가와 한국 작가는 출신배경이 같은 반면에 미국 작가는 그렇지 않아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첫 인식이 달랐지만 전쟁터를 직접 경험해보고 나서 다들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깨달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세 작가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소설 외에 다른 작품도 창작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각 작가가 베트남전쟁을 다시 쓰면서 본인의 운명이 남들의 운명과 "분리될 수 없음을 방증하는 가운데, 슬픔은 '우리' 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것이 될 수 있다"[64] 라는 논점을 제시했다.

Bui Thi Bach Duong[65]은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과 Anh Duc의 『Hon Dat』 비교를 통하여 두 작가가 베트남 전쟁을 공통적인 소재로 다루었지만 서로 다른 의식을 갖고 있다는 논점을 제시했으며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했지만 "월맹군과 월맹군 게릴라들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베트남 전쟁관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66]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진임[67]은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팀 오브라이언의 『숲의 호수에서』를 비교해서 두 작가가 같은 사건인 미라이 학살에 대해 썼지만 다른 시각으로 쓴 것을 고찰했다. 즉, 황석영은 반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충실하여 미군을 양심 없는 침략자로 단정짓고 그들의 잔학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서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반면

---

63) 조윤정,「베트남전쟁을 둘러싼 한국-베트남-미국 작가의 글쓰기 의식, 안정효-바오 닌-팀 오브라이언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4.

64) 조윤정,「베트남전쟁을 둘러싼 한국-베트남-미국 작가의 글쓰기 의식, 안정효-바오 닌-팀 오브라이언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4.

65) Bui Thi Bach Duong,「박영한의『머나먼 쏭바강』과 Anh Duc의『Hon Dat』비교- 인물의 성격 분석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66) Bui Thi Bach Duong, 앞 논문, 57면.

67) 박진임,「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재현: 팀 오브라이언의 『숲의 호수에서』와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2004.

오브라이언은 베트남전을 맹목적이고 혼란스러운 전쟁으로 보고, 미군 또한 그 무모한 전쟁의 또 다른 희생양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방재석과 조선영[68]은 안정효의 『하얀 전쟁』과 바오 닌의 『전쟁의 슬픔』을 통하여 게릴라 전술에 대해 논했고 두 작품이 "전쟁의 잔혹함과 인간의 황폐함" 이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지현희[69]는 한국소설 3편[70]과 베트남소설 3편[71]을 비교하며 각 작가들이 베트남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사 방식을 토대로 내용적 측면에서 양국 소설의 공통점과 차이성을 도출할 수 있다"[72]고 주장했다. 또한 양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주체로서의 전쟁과 타자로서의 전쟁은 전쟁 극복 방식에 있어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73]

정찬영[74]은 한국과 베트남소설을 바탕으로 한국과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사람들은 문학을 통해 전쟁과 관련된 기억을 간직하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비록 아픈 사건일지라도 그 기억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과정을 한결같이 문학에 반영한다. 그 방식은 혁명적 낭만주의와 민족해방 국가를 실현하고 전쟁의 폭력성과 공동체를 향해 살아남은 자의 슬픔과 기억을 불러일으켜서 전쟁의 비극성과 상처를 극복하려고 한다. 반면, 베트남전쟁에 관한 한국소설은 베트남전쟁을 단순하게 증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담론과 시선을 형성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소설은 전쟁의 폭력성과 제국주의의 본질, 인간성 파괴와 휴머니즘, 그리고 기억의 연대와 소통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들을 그려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많은 학자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연구를 해야

---

68) 방재석, 조선영,「베트남전쟁과 한-베트남 문학 교류 고찰」,현대소설연구 57, 2014.

69) 지현희,「한-베 베트남전쟁 소설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70) 안정효의 『하얀 전쟁』,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

71) 바오 닌 (Bảo Ninh)의 『전쟁의 슬픔』(Nỗi buồn chiến tranh), 반 레 (Văn Lê)의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Nếu anh còn được sống), 쯔엉 투 후옹 (Dương Thi Hương)의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 (Tiểu thuyết không tên).

72) 지현희, 앞 논문, 83면.

73) 지현희, 앞 논문, 84면.

74) 정찬영,「한국과 베트남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담론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8집, 2011.

하는 시급한 이유는 베트남전쟁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명철은 「베트남전쟁 소설,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이란 연구에서 베트남전쟁 소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사실, 한국 근현대문학사에서 전쟁과 직간접 관련된 서사의 문제라면, 베트남전쟁보다 6.25전쟁에 대한 서사적 탐구가 긴요하면서도 중요한 연구 과제가 아닌가. 그동안 이른바 분단문학 또는 전후문학이란 범주 아래 6.25전쟁으로부터 야기된 민족사의 비극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면서 궁극적으로는 6.25전쟁으로 훼손된 민족공동체의 삶을 복원해내기 위한, 즉 분단문학을 지양하고 통일문학을 향한 문학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연구 성과들이야말로 이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때, 베트남전쟁보다 6.25전쟁을 다룬 소설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문학적 탐구 과제로 인식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75]

지금까지 대부분 학자들은 이런 관점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을 살펴볼 때 두 국가 간의 문제에 중점을 두고 고찰해 왔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국가의 입장으로만 인식하고 그 전쟁에 직접 참전한 군인에 대한 인식을 무시했다. 다행스럽게도 2000년 이후 발표된 작품들은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개인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작품에 관한 연구가 아직 흔하지 않다. 본고는 베트남전쟁에 관한 문제들을 알아볼 때 각 국가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개인에 대한 인식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상 국가와 개인의 문제를 잘 연관시켜서 다각도로 이 문제를 탐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선행연구에서 아직 잘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크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검토해 봤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논픽션인 종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베트남전쟁에 대한 소설을 연구할 때 주로 소설 한두 편을 묶어서 분석하거나 한-베, 한-미 작품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연구만 있고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발표된 작품만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다. 셋째, 베트남전쟁은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일

75) 고명철,「베트남전쟁 소설,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칼날 위에 서다』, 실천문학사, 2005.

뿐만 아니라 전후에 발생한 후유증까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까지 이런 작품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와 국가의 입장에서만 고찰해 왔기 때문에 직접 참전한 군인 개인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연구사의 한계와 문제를 숙고하여 병사 개인의 입장에서 베트남전쟁 소설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가와 국가 간에 일어난 전쟁에 직접 참전한 한국군의 시각으로 베트남전쟁과 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자세히 고찰하는 것이 본고의 연구 목적인데 본고를 통해 이 목적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시각 및 범위

본고는 국가와 개인의 양면 관계에서 베트남전쟁에 관한 한국소설을 연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것인데 첫째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인들과 국가 간의 밀접한 관계에서 그들과 국가의 입장을 고찰하고 둘째는 베트남전쟁이 끝난 후 개인들과 후세 사람들에게 발생한 문제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전쟁을 평가할 때 그 전쟁에 참가한 국가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살펴보지만 전쟁터에서 직접 싸우는 주체는 각 국가의 군인들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입장에서 전쟁을 고찰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국가와 개인 간에 비-분리성 관계가 있음으로 인해 이에 초점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언하자면 본고는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소설에 나타난 개인들이 국가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했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면서 이 전쟁에 대한 인식과 본인의 책임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국가의 구성원인 각 개인들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일반 국민으로서 베트남전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공식적으로 베트남전쟁이 1975년에 끝났지만 전쟁의 아픈 상처와 후유증이 아직까지 참전군인 개인과 그들의 후세의 신체와 마음속에 잔존하고 있는데 그런 후유증과 사회적인 문제, 정신적인 상처들이 문학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창작된 한국소설들을 살펴보면 작가들이 다각

다면적으로 전쟁을 그렸다. 작가마다 전쟁의 한 측면에만 집중하여 베트남전쟁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각 작가의 삶과 작품에서 표출된 내용이 일치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작품들을 연구할 때 작가의 생애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76] 동시에 베트남전쟁 뿐만 아니라 어떤 전쟁에 대해 말하더라도 분명히 이는 상당히 거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전쟁이더라도 각 국가의 입장에 따라 전쟁에 대한 태도와 사고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쟁을 바라볼 때도 작가 개인의 경험과 사고방식이 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치적 측면을, 어떤 사람은 경제적 측면을, 어떤 사람은 인간적 측면에 주목하여 소설을 썼다. 이런 경우들은 작가들이 문학의 내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

76) 이러한 검토는 전기주의 (傳記主義) Biographismus에 있어 실증주의적 연구 방법의 한 부분이다.

"실증주의적 문학연구의 영향력 있는 창시자의 한 사람인 위포리트 테에느 Hippolyte Taine (1828-1893)는 발자크 Balzac에 대한 방대한 수상록(1858)을 집필함에 있어서 이러한 삶과 작품의 결합에서부터 출발했다. 그는 모범적인 서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정신만이 유일하게 정신적 작품의 근원은 아니다. 전인적 인간이 그 작품의 생성에 참여한다. 즉 그의 천성, 그의 교육과 과거 및 현재에 걸친 그의 삶, 그의 고뇌와 능력, 그의 덕과 부덕, 요는 그의 정신과 활동이 드러나 보이는 일체의 것이 그가 사고하는 것 그리고 그가 저술하는 것 가운데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발자크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그의 성격과 생애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발자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 바, 설령 그 의미하는 바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작가와 작품의 동일 취급이 그런 형태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 양자에 걸친 부호로서 발자크하는 이름이 기입되고 있다 할 수 있다. 테에느는 <그의 천성이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는 <그의 상된 것 sein Ererbtes>이라는 말이 대치된다. <그의 교육>은 그의 <학습된 것 Erlerntes>, <그의 삶>은 <그의 체험된 것 sein Erlebtes>이라는 말로 대치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테에느의 서문에는 이 방법의 특징적인 <3E>는 제시되고 있다. 즉 상속된 것 Ererbtes, 학습괸 것 Erlerntes, 체험된 것 Erlebtes이 그것이다. 이후의 문예학에 있어서 이 <3E>는 실증주의적 작업의 교시적 양식이 되었다. 이 세 가지의 근원이 탐구되게 되면, 차음에는 작품외적인 것이 파악될 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작품의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에리히 슈미트 Erich Schmidt도 그의 저서 『렛싱 Lessing』에서 이러한 방법적 양식을 적용했다. 그는 상속된 것, 즉 렛싱의 선조에 대한 기술로 시작해서 학습된 것으로 넘어가 학력과 교육의 영향을 서술하고 끝으로 작가의 신상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단편에 있어 체험된 덧을 명료하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M.마렌 그리제바하 지음, 장영태 옮김, 『문학연구의 방법론, 기린원, 1989, 20-21면.)

정신사적[77](精神史的)이란 개념을 사용했다. 이때는 작가의 정신과 역사의 사건을 결합해서 정신 (Geist)은 이념적 상부구조 (Überbau)를, 역사 (Geschichte)는 하부구조 (Unterbau)를 구축하고 작가들은 사실적(史實的) 자료에 의거하여 시간 속에서 본인의 태도나 사고방식을 정립시키는 것이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창작한 작가들의 작풍(作風)을 고찰해보자면 선우휘는 정치적 측면에, 박영한은 낭만적 측면에, 황석영은 경제적 측면에, 박영한이나 방현석, 이대환, 정인, 최은영은 전쟁과 직간접으로 연루된 사람들의 삶과 내면에 관심을 두고 역사적 사건인 베트남전쟁의 한 측면을 개척했고 이를 통하여 작가들은 이 전쟁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켰다.

그러나 어떤 각도에서 고찰하더라도 모든 작품들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말했듯이 전쟁은 국가 간의 사건이지만 전투에 직접 참전한 주체는 개인들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국가와 개인의 밀접한 관계성을 기준으로 다각다면적으로 베트남전쟁을 그려낸 한국 소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밝히기 위해 우선 본고는 전쟁 배경에서 나타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보통 전쟁이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전쟁은 죽음을 자주 연상시킨다. 그런데 국가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는가? 또 무슨 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가? 여기서 국가와 국가의 전쟁에 끼어있는 각 국가의 국민들이 있는데 국가가 어떤 입장에서 있더라도 개인들은 모두 다 죽음과 직면해야 한다. 그러면 국가들이 이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가 중요한데 전쟁에서 개인이 국가를 위해 죽는다는 인식은 고대시대부터 존재했고 국가와 통치자들은 이 논리를 계속 이용해서 개인들을 전쟁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벌어진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닌 '국가를 위한 고귀한 죽음'이라서 국가가 이 죽음을 "높이 칭찬하고

---

77) 정신사적(精神史的) geistesgeschichtlich. 이 단어의 복합 Wort-kombination 안에는 이 방법의 중요한 양극이 일컬어지고 있다. 즉 정신이 다양한 매개체- 철학, 종교, 법률, 회학, 음악 그리고 문학 등의 내적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신념이다. 정신의 역사에 대힌 학문은 모든 작용 영역을 그 대상으로 가질 수 있다. 본래 철학자들에 의해서 창안된 이 방법은 특히 문예학의 영역에서 확장되었고 이 영역으로부터 기타의 영역을 조망하는 것이다. (M.마렌 그리제바하 지음, 장영태 옮김,『문학연구의 방법론』, 기린원, 1989, 41면.)

미화하는 것이며 이를 정당화하는 것”[78]이기도 했다. 국가와 통치자들은 이런 죽음을 ‘희생의 논리’로 높이 과장하고 미화해서 국민들을 전쟁에 동원한다. 그리고 전사자들을 참배하는 형식으로 칭송하고 기억해준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국가와 희생』에서 이런 ‘희생의 논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했다:

> ‘조국을 위해 죽는 것 pro patria mori’을 신성한 행위로 보고 국가를 위해 순국한 전사戰士들을 영웅으로 떠받드는 사상과 실천은,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로마 이후로 전통이며, 그 전통은 근대 유럽의 국민국가 상호 간 내셔널리즘을 서로 맞부딪쳐가며 전쟁을 반복했던 시대에 정점에 이르렀다. 각 나라마다 내셔널리즘의 성지聖地로서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병사를 기념하고 칭송하기 위한 시설을 보유해 왔고, 그런 현실은 지금도 여전하다.[79]

그리스 로마의 역사로 되돌아가서 페리클레스[80] (Pericles)의 추도연설문을 통해 이 ‘희생의 전통’을 찾을 수 있다. 이 추도연설은 펠로폰네소스 전쟁[81] (The Peloponnesian War)이 일어난 1년 후 기원전 430년 겨울에 시작되었다.[82] 또한 이 추도연설은 “아테네 추도연설의 기본유형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연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몰장병을 애도하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대함을

---

78)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국가와 희생 - 개인의 희생 없는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는가? 』, 책과함께, 2008, 27면.
79) 다카하시 데쓰야, 앞 책, 12면.
80) 페리클레스 (기원전 ca.495-429)는 고대 그리스 아테나의 정치가이자, 웅변가, 장군으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그리스-페르시아 전쟁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에 아테네의 지도자로서 아테네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81)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기원전 431년에 일어나 404년까지 27년이나 지속되었다. 이 전쟁은 아테나와 스파르타가 서로 패권을 다룬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주도적으로 전쟁을 진행한 것은 아테나였다. 아테나가 외교적 노력이나 실질적 양보를 거부하고 전쟁으로 전면 뛰어든 것은 그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문화적으로 우세하며 군사적으로, 특히 해군력에서 압도적이었으며 델로스 동맹의 많은 예속적 도시들을 거느린 제국이라는 자신감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김봉률, 『국가와 희생』, 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4호, 2010, 4면.)
82) 이 추도연설은 투키디데스 (Thucydides)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기록한 「역사」 (Thoukydidou Historiai) 2권에 실려 있는데 고전기 그리스 아테네의 유명한 연설이다. 투키디데스의 역서에 실린 연설문은 그 자신이 반드시 직접 듣고 채록한 것이 아닐 수 있으나 당시의 실제 상황에 근접하도록 구성한 것이라고 투키디데스 자신이 밝히고 있다. (김봉률, 『국가와 희생』, 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4호, 2010, 2면.)

찬양하고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이며 동시에 “아테네 민주정과 정치적 자유, 그리고 평등을 잘 표현한 것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칭송”을 받고 있다.[83]

페리클레스는 추도연설을 시작하면서 돌아가신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선조시대부터 아테나가 “자족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아테나인들이 항상 “만반의 태세”를 갖춰왔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84] 그리고 이런 태세를 만들기 위해 아테나인은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희생하며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그 목적을 결코 남의 일로 여기지 않”[85]고 “자신들의 판단을 넘어 용감하고, 자신들의 힘을 넘어 모험”[86]을 추구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도 국가가 멸망하면 자신도 파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개인의 불행을 감내할 수 있지만 개인은 국가의 멸망을 감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여 국가를 지켜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87]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페리클레스의 연설은 개인보다 국가를 더 우선해서 국가주의 정신을 강조하고 자신과 국가를 일체화시키는 인식을 잘 드러낸다. 따라서 국가가 명령을 내리면 시민들은 언제든지 그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고 국가를 위해 개인을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페리클레스의 추도연설은 죽은 자를 애도하는 차원을 넘어서 죽은 자를 찬양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죽은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살아남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의미가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이 죽은 자들의 모범을 따라가라는 것이다.

고대부터 ‘공공(조국)의 이상’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것은 보편적인 논리였기 때문에 비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현대까지 존속해 오고 있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국가와 희생』에서 ‘야스쿠니’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언급해봤다. 그는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야스쿠니신사

---

83) 김봉률, 『국가와 희생』, 지중해지역연구, 제12권 제4호, 2010, 3면 참조.
84) 투키디데스 지음, 박광순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하, 나남출판, 2004, 3면.
85) 투키디데스 지음, 박광순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상, 나남출판, 2004, 68면.
86) 투키디데스 지음, 박광순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상, 나남출판, 2004, 70면.
87) 투키디데스 지음, 박광순 옮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하, 나남출판, 2004, 60면.

참배를 거듭하고 있는 발언들을[88] 제시하며 고이즈미 준이치로가 반복해서 발언하는 목적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고이즈미 수상이 참배를 할 때마다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을 거듭 반복하는 의도는 "단순히 판에 박힌 상투어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말에 집착해봤자 별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빈번하게 사용하는 레토릭 (수사법)"[89]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레토릭은 전사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전사(戰死)가 '숭고한' 것으로 찬양되고, '존경'받고 '감사'를 받아야 마땅한 대상으로 미화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주 훌륭하고 영웅적인 행위로 추모(追慕)되는 것이다. 이런 추모행사를 지켜보며 국민들은 죽은 병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본인도 국가를 위해 영웅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죽은 병사와 가족을 위로해줄 수

---

88)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숭고한 희생"에 대해 3 번을 발언했다. 첫 번째는 2001년8월 13일, 두 번째는 2002년 4월 21일, 세 번째는 2004년 새해 원단 참배였다.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2001년8월13일에 발표된 담화문에 나온 구절이다.

나는 우리 일본이 두 번 다시 전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곤란했던 시절에 조국의 미래를 굳게 믿고 전쟁터에서 산화(散華)하신 분들의 영령들 앞에서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그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리면서, 매년 평화에 대한 맹세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상관저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

(2) 2002년4월21일 아침에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할 때 등장한 소감이다.

내가 참배한 목적은 메이지유신 이후로 우리 일본 역사에서 뜻하지 않게 가족을 남겨두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모든 분들께 충심(衷心)으로 애도의 마음을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은 많은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숭고하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추도의 대상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국민들 사이에중심 시설로 자리 잡고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고 추도의 심정을 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생각합니다. (수상관저 홈페이지)

(3) 2004년에 새해 원단 참배할 때 야스쿠니신사 경내에서 기자의 질문을 받아서 다시 답한 글이다.

전쟁 시대에 태어나 본의 아니게 전쟁터로 떠나야 했던, 전쟁터에서 목숨을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오늘의 일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그런 점에서 볼 때, 과거의 전사자들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바치면서 아울러 일본 역시 앞으로 두 번다시는 절대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평화와 번영 속에서 이제부터 여러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참배했습니다. (수상관저 홈페이지)

89)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앞 책, 24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들을 유용하게 동원할 수 있는 방편으로 추모행사를 계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은 효과를 발휘해서 ①국가의 전쟁 참전→ ②국민에게 희생 요구→ ③국민의 개인적인 죽음→ ④국가의 추모→ ⑤살아남은 다른 국민의 반성→ ①국가의 전쟁 참전으로 이러한 사이클을 자연스럽게 형성하여 반복시킨다. 사람들은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사이클에 익숙해져서 심각한 논쟁이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좀 더 부언하면 한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국민은 국가에 책임을 지고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논리가 당연하고 보편적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sacrifice'을[90] 요구할 때 특히, 전쟁 시기에는 국민의 희생으로 조국을 수호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만약 전쟁으로 인해 참전 병사가 전사를 하게 되면 그들은 '조국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했다는 것으로 찬양을 받게 되고 "살아남은 다른 국민들에게까지 그들의 뒤를 이어 조국을 위해 희생할 것을"[91] 요구하게 될 것이다.

> 똑같은 인간인 적병들과 죽고 죽이는 관계로 내몰리면서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비업(非業)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허망함, 석연치 않은 그 무엇까지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다는 의미 부여를 통해 충전(充塡)되고 해소되었던 것이다. 만일 패전 후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진정 일본군 장병들의 전사 덕분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면, 전사는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전사는

90) 희(犧)와 생(牲)이라는 각 글자에 이미 그런 뜻이 들어 있다고 한다. '희'라는 글자는 제사를 지낼 때 산제물로 쓰이는 양羊을 의미하며, 글자의 생김새는 톱으로 자른 양의 다리가 표현한 상형문자인 것이다. 본래 종교적인 제의에서 양을 잡아 신에게 바친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신에게 바쳐지는양, 곧 산 제물을 가리켜 '희양犧羊'이라고도 했다. 영어의 '새크리파이스 sacrifice'역시 이와 의미가 거의 동일한다. 프랑스어에서도 만찬가지인데 사크리 sacri는 '신성하다'는 뜻이다. 현대 이탈리아의 철학자 조르조 아감벤 Giorgio Agamben은 성스러운 인간, 즉 호모 사커 Homo sacer 문제를연구과제로 삼고 있는데, 라틴어 'sacer'는 '성스러운, 신성한'이라는 뜻이며 이 sacer에서 sacri와sacred가 모두 유래했다. 요컨대 프랑스어로 sacrifice는 faire sacé를 가리키며, '신성한 존재로 여기다', '성화聖化하다', 성별聖別하다'는 의미이다. 구체적으로는 고대 종교에서 양 등의 동물을 죽여서 그것을 신께 바치는 의식이며 또한 그 의식에 바쳐진 동물 그자체를 sacrifice라고 말하는 것이다. 신에게 바치는 제물은, 경우에 따라 식물이기도 했고 때로는 인간이기도 했다. 사람을 죽여 신께 바치는 행위는 흔히 인신공희人身供犧 (human sacrifice)로 알려져 있다.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국가와 희생 - 개인의 희생 없는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는가?』, 책과함께, 2008,26-28면.)

91)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앞 책, 15면.

국가의 손을 거쳐, 정당화되기도 하는 것이다.[92]

이런 과정을 통해 국가 또는 정부가 슬픔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180도의 감정 전환"[93]하는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머리에 '조국을 위해 개인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이 고귀한 행동'이라는 인식을 깊이 뿌리 내렸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국가가 국민을 전쟁터로 동원하면서 국민이 국가를 위해 전투하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희생의 논리, 와 '국가의 논리'를 일본의 경우에만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이러한 '희생 논리의 사이클'을 찾을 수 있다.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 발생한 희생에 대해 국가의 입장에서 '희생의 논리'를 살펴봤다. 그런데 이미 말했듯이 전쟁에 직접 참전한 주체는 각 국가의 국민(개인)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에서 수행한 각 개인의 역할을 인식하고 고찰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고가 개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고찰하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과연 국가들이 국민을 전쟁에 동원했을 때 모든 국민이 다 '숭고한 희생'이라는 말을 믿고 갔다는 건가? 전쟁터에서 일어난 희생이 항상 고귀한 것인가? 라는 의문에 봉착했는데 이 물음에 답을 얻기 위해 미국의 정치철학자 마이클 월처의 '정전론 正戰論'을 바탕 으로 고찰해 본다. 마이클 월처가 『올바른 전쟁과 부정한 전쟁 just and unjust wars』 (1977)을 통해서 정전론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책이 출간된 후 학계에서 정전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부활했다. 사실 정전론에 관한 철학적 이론은 유럽에서 중세부터 근세에 걸쳐 존재해 왔다. 하지만 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19세기에는 이런 전통이 쇠퇴했다. 따라서 "국가주권을 절대시하고 국가주권보다 상위의 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던 19세기에는, 국가가 수행하는 전쟁은 일반적으로 자유였고, 거기서 옳다와 옳지 않다의 구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94] 그 후 월처의 책이 출간되고 나서야 올바른 전쟁이 있을 수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는가? 즉 부정한 전쟁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들이 대두되었다. 월처의

92)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앞 책, 26면.
93)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앞 책, 107면.
94)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앞 책, 223면.

논리에 따르면 올바른 전쟁과 부정한 전쟁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는 의문에 기초해서 침략전쟁과 자위전쟁으로 전쟁을 구별할 수 있다. 즉, 침략전쟁은 공격을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으로 부정한 전쟁이고 반면, 자위전쟁은 자기방어를 위하여 전쟁을 하는 것으로 옳은 전쟁이라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월처의 논리가 흥미로운 점은 국가 방어를 위한 자위전쟁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볼 것 이다.

> 사회계약에서 ‘계약’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상호 관계를 유지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은유이며, 국가는 바로 이 과정의 지속적인 성격이야말로 외부의 침해로부터 보호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보호는 단순히 생명과 자유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구축해온 독립된 공동체로까지 미치는 것으로, 이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국가의 도덕적 입장은 그 국가가 보호하는 공동생활 common life의 현실성에 의거하고 있으며, 그 공동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희생의 정도程度는 공동체의 성원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만일 공동생활이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는 공동생활을 국가가 방위하지 않는다면, 국가 자신의 방위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대개의 국가는,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시민의 공동성을 지키기 위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위전쟁의 정의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95]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국가가 침략을 당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도전받는 사람은 침략당하는 국가의 성원들이다.”[96] 이렇게 국가가 침략을 당할 때 개인은 국가의 요구를 받아 자신을 희생해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침략을 받은 국가에서는 단순히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자유가 위협을 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온 정치적 공동체의 공동생활 그 자체가 위협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생활을 방위하기 위해 공동체의 생활을 방위해야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런 경우에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 국가가 자위전쟁이 아닌 침략전쟁에 참전하여 개인의 ‘고귀한 희생’을 요구하면 안 된다고

95) 다카하시 데쓰야, 앞 책에서 재인용, 230-231면.
96) 다카하시 데쓰야, 앞 책, 231면.

하지만 개인이 이 전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어떤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지? 만약 침략전쟁이라고 해도 군인들이 참전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좀 더 직선적으로 말하면 종군하는 사람이 없으면 군대가 형성될 수 없고 침략전쟁에 참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했지만 자신이 무슨 이유로 종군을 했는가? 라는 의문에 빠진다. 혹자는 국가가 국민(개인)의 머릿속에 뿌려놓은 이상이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본고는 분명히 이상적인 목적으로만 종군을 했다는 논리는 부족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전쟁 상황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일상의 상황에서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요구하는 희생은 본인의 목숨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추상적 요인 한가지만으로 군인들이 참전할 가능성은 낮다. 부언하자면 다른 목적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목적이 개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일 수도 있다. 그 개인의 목적은 바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본다. 전쟁에 참전할 때 분명히 군인들은 봉급을 받는다. 이 돈은 각 개인의 사유(私有)이고 참전하는 중요한 결정적인 목적이 될 수도 있다. 군인들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만큼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원해서 참전했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보편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전쟁은 항상 국가와 국가 간의 일이라고 인식해왔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만 묻고 개인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침략전쟁에 참전한 국가들의 입장을 고찰하는 동시에 참전군인의 개인적 입장도 살펴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개인이 다 전쟁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지금까지 개인은 국가의 그늘에 숨겨져서 본인의 책임이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전쟁을 연구할 때 국가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본다. 따라서 침략전쟁에서 국가의 책임을 소멸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지만 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울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므로 군인들이 국가의 그늘 아래에 숨어서 개인 자신의 책임을 소멸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국가의 요구에 따라 종군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침략전쟁에 참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개인이

영웅적인 이상을 위해 목숨을 걸고 종군하는 것이 쉬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 개인이 침략전쟁에 이상적인 목적으로만 순수하게 참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국가에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침략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개인에게도 국가의 부당한 참전 행위에 숨어서 본인의 죄와 책임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전쟁이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항상 국가와 개인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로 문제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사료된다.

전쟁과 희생의 논리를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사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낙후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베트남 전쟁터로 한국군을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이는 월남을 누빈 일선 소대장의 수기라는 부제가 붙은 맹호부대 소대장의 파월 감상문 『쟝글의 벽』(1967)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베트남으로 떠난 병사들을 4.19혁명의 청년들과 등치 시키면서 병사들은 역시 "희망도 하소연도 숱한 젊음에의 미련도 다 잊어버리고 묵묵히 남국의 장글을 간다."(85면)[97]. 4.19혁명에 참여한 청년들이 독재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면 베트남으로 파병된 한국의 청년 병사들은 '조국재건'을 위해 헌신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거둔 성과는 국가적인 성과였으므로 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해 도모된 개발 (development)이 유효하다는 간접적 증거일 수 있었다"[98]. 사실 그 당시 야당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는 것에 대해 명분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탈영자들도 존재했지만 이러한 흐름은 안보와 경제를 강조하는 정부의 파병 불가피론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 "심각한 국가적 상업" [99]을 위한 한국정부의 호소(號召)에 응하여 당시 한국군은 30만 명의 병사를 베트남 전쟁터로 파병했는데 약 5천 명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과연 5천 명의 전사자가 올바른 전쟁에 참가한 것인가? 또 그들의 죽음이 숭고한 희생인가? 라는 의문이 있다. 한국의 전쟁 기념관에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파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97) 신정, 「쟝글의 壁」, 홍익출판사, 1967, 85면.
98) 신형기, 「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 동방학지 제157집,2012, 94면.
99) 신형기, 앞 논문, 84면.

> 한국군은 1960년대에 베트남이 공산주의의 침략에 직면했을 때, 베트남의 자유와 세계 평화를 위한 십자군으로 파병되어 베트남을 원조했다. 한국군은 1973년 3월에 군을 철수할 때까지만 8년 동안 베트콩을 상대로 혁혁한 전공을 거두었고, 나아가 활발한 대민 지원 활동을 펼쳐 한국군의 위용과 용맹함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이 문제에 대해 논할 때 다카하시 데쓰야가 질문을 던졌다. 그는 "냉전 체제 아래서 북쪽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날카로운 대립 관계에 놓여 있던 한국의 '반공'이라는 국시에서 보자면, 이 파병은 어쩌면 정말로 '십자군', 즉 '정의의 전쟁'이었을지도 모른다"[100]고 논평한다. "그러나 결국은 미국의 패배로 끝나버린 이 전쟁에서 한국군이 낸 약 5천 명의 전사자는 과연 무엇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던가?"[101]라는 의문을 표시했다. 그리고 베트남 시민학살 사건을 같이 고찰하면서 "이러한 전쟁에 파병되어 목숨을 잃은 병사 역시 '호국 영령'으로서 추모되고 있는 것이 한국 국립전쟁기념관의 실태"[102]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월처는 베트남전쟁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본국의 국경을 넘어 타국의 영토를 침공한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침략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베트남보다는 미국과 동맹국 쪽을 부정하게 봤다. 한국정부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국민을 동원할 때 한국 병사들이 조국의 요구에 부응해서 종군했지만 부정한 전쟁이기 때문에 병사의 죽음을 다시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전 요구에 따라서 많은 군인들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 베트남전에 종군하게 되었는데 전쟁터에 가서 죄없는 양민을 학살한 게 진정 자유와 화평을 위해 싸운 전투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무의미하고 보람없는 전쟁에 개인이 나가서 희생양으로 이용을 당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이 희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조국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용병으로 참전해서 전사한 병사들에게 무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때 베트남전쟁에서의 희생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인가? 라는 여러 의문이 있다. 동시에 참전한

100) 다카하시 데쓰야, 앞 책, 244면.
101) 다카하시 데쓰야, 앞 책, 244면.
102) 다카하시 데쓰야, 앞 책, 245면.

한국군인들이 완전히 국가의 선언에 속아서 참전하여 전쟁의 피해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본인도 가해자일 수도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베트남전쟁에서 한국정부와 한국군인의 비분리된 관계성을 문학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마지막으로 전쟁이 끝난 후 전쟁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상흔을 겪고 있는 모든 군인과 후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화평한 세계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참전군인 개인들이 자신들이 참전했던 전쟁과 그 시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현재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전쟁의 잔재에 대해 국가와 사회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전쟁의 아픔을 달래주는 동시에 후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참전했던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탐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한국문학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해서 2장은 1960년대에 발표한 작품들을 대상으로 고찰하여 베트남전쟁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한국정부가 희생의 논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리고 개인이 국가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했는지와 본인의 입장이 어땠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베트남 전쟁을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한 선우휘와 최정희 작가의 종군기와 선우휘의 장편소설인 『물결은 메콩까지』(1966)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볼 것이다.

3장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발표된 작품을 담았는데 이런 작품들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고 국가와 개인의 참전 목적을 어떻게 표출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작품들을 통해 한국군의 인식 변화와 한국 젊은이들이 국가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했는지와 그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를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하나는 전쟁을 낭만적인 시각으로 본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1973)이며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현실적인 시각으로 본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1985)이다.

4장은 전쟁에 참전한 군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군인들의 후세들까지도 연루된 것을 보여준다. 이 장에는 전쟁이 끝난 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한국군과 후세)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참전한 군인들이 전쟁 시점에서 어떤 목적으로

베트남전쟁에 들어갔더라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 후유증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후세들에게 아직까지도 많은 상처를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도적인 입장에서 볼 때 후유증을 갖고 있는 군인과 후세들 모두가 다 전쟁의 피해자이다. 따라서 참전한 군인과 그들의 후세들에게까지 전쟁의 상처를 달래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참전한 군인들에게 미친 만성적 우울증[103], 고엽제[104], 라이따이한 문제[105], 그리고 무형적인 아픔[106]을 각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아울러 후세들이 어떤 입장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는지도 고찰할 것이다.

103) 안정효의『하얀 전쟁』(1989)에서 고찰한다.
104) 이대환의「슬로우 불릿」(2013)에서 고찰한다.
105) 정인의 「이식 그 언저리」(2016)에서 고찰한다.
106) 방현석의「랍스터를 먹는 시간」(2013)과 최은영의「씬짜오 씬짜오」(2016)에서 고찰한다.

2. 1960년대: 국가와 개인의 동일한 반공주의 정신

2.1. 한국군의 전황에 대한 과잉 평가

2.1.1. 최정희의 「사랑하는 兵士들에게」, 동아일보, 1967.02.28~03.02.

베트남역사는 외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온 역사로 베트남 민족은 평화시대보다 전쟁시대에서 살았던 시기가 더 많았다. 베트남 사람은 봉건시대 천년동안 중국과 싸우며 독립을 지켰고 근현대에 들어서서 일본 파시즘과 프랑스 제국주의와 부패한 봉건정권과 싸우며 꿋꿋이 투쟁했다. 20세기 말에 베트남 땅은 외부침략 주의자들을 묻은 수렁이 되었다. 제국주의 세력이 베트남에서 전쟁을 확장하면서 확전을 거듭할수록 베트남전쟁터는 침략군의 무덤이 늘어났다. 중국보다 더 노회한 미국은 좌산관호투 (坐山觀虎鬥)[107] 전략처럼 항상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다가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어서야 전쟁에 공식적으로 참전한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의 군대를 해외로 내보낸 수 백번의 파병 중에 미국의 의지대로 추진하지 못한 경우도 몇 번 있었는데 그 몇 번 중에 하나가 동양에서 벌어진 전쟁터였다. 그 전쟁터가 바로 베트남인데 프랑스는 1950년부터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계속 패배했다. 베트남과 프랑스의 전쟁이 베트남의 승리로 1954년 종료되어 프랑스 군대가 철수한 후 미국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엄숙한 가면 속에 자신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제네바 협정으로 프랑스 군대가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도록 협상을 타결(妥結)했는데 10년 후에 미국이 다시 프랑스의 전철을 밟았다. 미국은 1955년부터 1965년까지 10년 이내에 남베트남에서 자유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희망했다. 한국에서 이승만 이후 박정희의 성공적인 사례를 지켜보면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미국은 그 당시 시작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남베트남에서 설립된 바오 다이(Bảo Đại), 잔 중 김(Trần Trọng Kim), 응오 딘 지엠(Ngô Đình Diệm) 정부와 이후에 수립된 제2공화국 모두 다 베트남 국민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107) 이는 산위에 앉아 호랑이가 싸우는 것을 관망하다는 뜻이다.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베트남 사람들은 호치민과 베트남민주공화국에 정통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역으로 미국과 동맹군들은 남베트남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다고 꿋꿋이 믿었다. 그 후 1955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과 남베트남 정권은 베트콩을 분쇄하기 위해 수많은 전투와 습격을 감행하여 전쟁을 확전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때까지 부패한 남베트남 정부를 향해 정치적인 투쟁만 하던 남베트남 시민들이 무력적인 투쟁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호치민 정부의 지원 아래 1960년 12월 20일에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설립되었으며 이 기관은 남베트남 시민들의 투쟁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터로 군대와 원조를 많이 보냈는데 이에 대해 미국 국내에서 반전 운동이 강렬하게 일어났다. 따라서 미군 대신 동맹국의 군대를 보내는 것이 그 당시 미국에게 가장 적절한 대책이었는데 한국군이 이에 잘 부합해서 미국의 정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참전했다. 이때 군대와 함께 종군기자도 같이 보냈는데 한국 기자의 베트남전 종군은 창군이래 해외 첫 종군으로 기자들과 시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당시 종군기자들의 주요 역할은 6.25전쟁 때처럼 국민에게 전황을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것이었는데 베트남전쟁에서 활동한 종군기자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1968년 베트남 구정 공세 (Tet Offensive) 당시 AP통신의 애디 아담스 (Eddie Adams) 기자가 찍은 베트콩 (Vietcong) 용의자에 대한 즉결처분 사진은 미국의 반전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108] 이 사건을 통하여 종군기자들이 전쟁 시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언하면 종군기자가 쓴 글이나 찍은 사진만으로도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형성된 여론이 전쟁을 옹호하게 만들 수 있지만 때로는 반전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상황으로 되돌아 가보면 당시 많은 기자들이 ‘특종’을 얻기 위해 베트남전쟁으로 향했다는 것이다. 베트남에 파견된 종군기자 숫자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최소 200명

108) 이신재,「베트남전쟁기 한국 종군기자의 파견과 활동 고찰」,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한국군사학논집, 2020, 128면.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109]된다. 한국이 해외에 종군기자를 파견한 것은 이때까지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군기자파견은 기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큰 관심사가 되었다.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대표적인 기자들을 꼽아 보면 이규태, 최현우, 김운하, 김동규, 선우휘, 목사균, 이도형, 유지형, 박경진, 황승일 등이다. 그 중에 문학가도 있었는데 선우휘와 최정희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베트남전쟁 초기에 종군하여 선우휘는 맹호부대에서, 최정희는 백마부대에서 활동했다. 연구범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베트남전쟁에 대해 알아볼 때 픽션 소설뿐만 아니라 논픽션 종군기를 연구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종군기자들은 그 당시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쟁터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기자들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식을 전달해야 했었다. 따라서 그 당시 종군기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베트남전쟁에 관한 한국정부의 태도와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렇게 종군기자로 참전한 기자들은 문학가이기도 해서 오히려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자들이 종군기로 전쟁 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당시 한국정부가 어떤 입장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는지와 국민들이 전쟁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우휘 같은 경우는 픽션과 논픽션 작품을 다 포함해서 고찰할 예정인데 작가가 두 장르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최정희는 베트남전쟁 초기 종군기자 중 하나다. 그녀는 귀국 후 「사랑하는 兵士들에게」를 동아일보 기사로 1967년2월28일과 3월2일 두 차례 연재하여 용감 무쌍한 한국군의 모습과 그들에 대한 자랑과 존경을 표출했다. 이 기사는 다른 종군기와 달리 전쟁터에서 신문사에 바로 보내서 게재된 기사가 아니고 그녀가 귀국한 뒤 게재된 후기 기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희는 소수 여기자 중 하나로 그녀가 쓴 기사가 종군 시간과 전쟁 순간순간의 인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사를 통해서도 파월장병들과 베트남 전쟁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녀는 파월장병들의 이미지가 자신의 아들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109) 이신재, 앞 논문, 146면.

파월장병에게 호감을 많이 표출했다. 그리하여 최정희가 파월장병에 대해 누구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기사에 신뢰성을 더 갖게 했다. 전쟁터에 나가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다. 최정희는 전쟁터에서 일어난 전투상황이나 참담함을 언급하지 않고 병사 개인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써서 간접적으로 전쟁의 비참성을 표출했다.

> 월남에 가면 죽는다고 말리다 못해 막내둥이가 점장이를 찾아가서 점까지 칠 정도로 만류하는 일을 굳이 우기고 떠난 보람을 그날 느꼈습니다.[110]

최정희가 죽음을 찾으러 가는 것처럼 위험한 곳을 향해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쫄병들이 항상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해서 최정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파월장병들이 행군할 때 "질서있게 걸어가는" 모습도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다. 이 모습을 보고 모든 군인이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그려졌는데 이를 통해 군인들에게 자신들이 힘차게 뻗는 기상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국내 국민들에게도 국가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군인들이 과감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믿음을 튼튼히 굳혀줄 것이다. 이어서 최정희는 "下旗式(하기식)을 하던 병사들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이 장면은 파월장병들의 참전 목적이 정의와 조국을 위한 것으로 국가의 자존(自尊)감을 높여서 국민들을 격려하고 국민정신을 함양하는 역할을 했다. 또 다른 깊은 인상은 모국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으로 그것은 바로 "지휘관과 부하들의 융합" 단결심이다. 그녀는 참전용사들이 "먼 나라 에 가서 서로 외로운 탓인지 국내에서 없던 동포애로 묶여" 있었다고 표출했다. 전투 현장에서의 승리는 지휘관과 병사들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한데 "지휘관과 부하들의 융합"이란 통합 과정을 통하여 승리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해줄 수 있다. 또한 최정희는 베트남전 참전이 "옳아서 출정하는"것임을 강조했고 생사의 경계 앞에서 피해가 거의 없거나 아주 적은 것으로 서술했다. 피해가 거의 없었던 이유도 설명했는데 "파월되기전, 楊平에서 혹독한 훈련을 치렀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고 전과만 거둔" 다는 것이다. 이런 일은 백마부대 뿐만 아니라 파월된 어느 부대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파월장병들은 부상을

110) 최정희의 「사랑하는 兵士들에게」,上, 동아일보, 1967.02.28.

당해도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쓰러졌는데 이는 최정희 작가의 눈에 비친 용사들의 모습으로 작가는 기사 곳곳에서 한국 병사들에게 존경과 자랑과 사랑을 표출했다.

> 지면관계로 내가 개전포를 쏘던 아침 「다농」 강변에서 적을 사살한 한 병사와 동굴 속에서 적과 육반전을 벌여 많은 전과를 거두고 그곳에서 쓰러진 이환영병장의 용맹스런 모습을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백마28연대 2대대의 용사들도 언급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사랑하는 병사들을 위해 다리를 곧게 뻗고 잠드는 일은 잊지 않겠읍니다. 잠 들어서도 기도하는 자세말입니다. [111]

최정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모두 다 한국군의 긍정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이다. 이를 통해서 '정의'를 위해 전투를 하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높이 칭찬해주고 동시에 국민의 정신을 함양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는 희생의 논리와 일치하여 이 시기에 한국정부는 희생의 논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알 수 있다.

2.1.2. 선우휘의 「맹호(猛虎) 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조선일보, 1966.10.13. ~16.

선우휘는 맹호부대에서 종군했는데 이때 맹호부대는 "주월한국차(駐越韓國車) 최대규모의 작전"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6년에 연재된 종군기는 맹호부대 6호가 "퀴논북방(北方) 30㎞(㎞)에 위치한 빈딩성(省) 푸캇군(郡) 중탄산(山)일대에서 전개 (展開)" 한 전황을 담아서 그 소식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조선일보에 1966년 10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서 연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기사들에 따르면 베트콩은 주로 "야간(夜間)에 침투(浸透)하여"한국 맹호부대를 습격했다고 전했다. 그렇지만 한국군(맹호부대)이 베트콩의 공격루트를 사전에 완전 차단해서 "아군측(我軍側)에서 단(單) 1명(名)의 전사자(戰死者)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기적(奇蹟)에 가까운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고 칭찬을 했다. 이 기적의 원인을 설명하자면 1966년 말에 베트남 전쟁터 에서

111) 최정희의 「사랑하는 兵士들에게」,下, 동아일보, 1967.03.02.

활동한 맹호부대는 강력한 병력을 보유하고 항상 작전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세웠기 때문에 베트콩의 습격에 깔끔히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 맹호(猛虎)의 신출귀몰(神出鬼沒)
> 27일(日)부터 3일간(日間) 맹호부대(猛虎部隊)는 이 푸캇산일대(山一帶)에서 거의 4천명 (千名)에 달(達)하는 월남인(越南人)을 후방(後方)으로 이송(移送)했다. 그 속에는 베트콩도 있고 용의자(容疑者)도 있는데 베트콩 지역(地域)에 살았을 뿐인 양민(良民)이 대부분 (大部分)인 듯싶었다.
> 베트콩을 신출귀몰(神出鬼沒)하는 우리의「홍길동(洪吉童)」처럼 인식(認識)케 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리(地理)에 밝은 그네들의 야습(夜襲)이나 기습(奇襲)에 쓴맛을 본 개입(介入) 초기(初期)에 파견된 미군병사 (美軍兵士)의 공포심(恐怖心)에서 나왔고, 그것을 대서특기(大書特記)한 외국인(外國人) 기자(記者)들의 과장(誇張) 표현(表現)일는지 모른다. 오늘날 한국군장병(韓國軍將兵)들은 완전히 베트콩을 얕보고 있어서 그러다가 불측(不測)의 변(變)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 112)

미군이나 다른 동맹국군은 베트콩을 신출귀몰(神出鬼沒)하는 집단이라고 평가했지만 맹호부대는 베트콩을 얕봤다. 이는 한국군이 강력한 병력을 보유하고 세심한 준비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이 문장만으로도 선우휘는 국민들에게 굳세게 준비된 한국군의 전황을 전해주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종군기를 통해서 베트남전쟁의 전형적인 특징도 전달했다. 베트남전쟁의 가장 복잡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베트콩과 시민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베트콩들은 주로 야간에만 습격을 하고 낮에는 시민들과 섞여서 위장하여 시민들처럼 일상생활을 한다. 이 때문에 누가 시민인지 누가 베트콩인지를 식별하는 게 힘들었고 베트콩의 흔적을 찾기가 어려웠다.113)

> 인민(人民)을 위한다면서 애꿎은 농민들을 전투(戰鬪)의 틈바니속에 휩쓸어 넣어 이쪽으로 하여금 전투(戰鬪)하는 베트콩과 농민(農民)을 구별(區別)할 수 없게 함으로써 사고(思考)를 혼란(混亂)케 하고 행동(行動)을 주저케 하든가,

---

112)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하, 1966.10.16, 5면.
113) 베트콩은 미국과 남베트남공화국이 공산당원이나 베트남노동당의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런 사람들이 베트남전쟁 때 미국과 남베트남공화국 정부를 상대로 대결했지만 실제로 미국은 미군과 대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호칭을 적용시키며 공산당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않았다.

때로는 총알막이로 사용하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성(冷酷性)을 나는 미워한다.[114]

여기서 두 가지 문제점을 더 밝혀야 되는데 첫째는 베트콩의 전투적 특징이고 둘째는 베트콩 세력을 얕본게 과연 그 당시 전쟁터에서 발생한 전황과 맞는지 라는 문제점이다. 베트콩은 미국과 동맹군들이 베트남 민주공화국(북베트남)의 지원으로 1960년12월20일에 설립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구성원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이들은 남베트남 시민들이 남베트남정부와 투쟁하는 과정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남베트남시민의 정치투쟁부터 무력투쟁 까지 발전시켜서 전방위적(全方位的)으로 운동과 시위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당시 북베트남정부군과 미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당연히 미국이 월등하다. 호치민정부는 이 전쟁이 호랑이와 코끼리의 싸움과 같다고 판단해서 게릴라 작전을 구사했다. 호랑이와 코끼리가 직접 대결하면 호랑이가 질 수 있지만 '게릴라' 전법으로 대결하면 코끼리가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북베트남정부는 게릴라 전법으로 미국과 동맹국의 강한 군사력을 이길 수 있었다. 한국군은 1964년부터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베트콩은 남베트남 전쟁터에서 위력적인 전과를 거두고 있었다. 여기 언급되는 베트콩이란 사람들 대부분이 1945년부터 민족해방을 위해 투쟁해 온 사람들로 프랑스 식민주의를 격퇴시키고 미국과 동맹국과 대결할 때도 오랫동안 경험한 역량과 전투력으로 '만만찮은 적수' 가 되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전세계 학계가 북베트남 군인 (정규 및 비정규)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게 입증되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참전한지 얼마 안되는 한국군이 베트콩의 전력을 얕본 것은 아주 경솔한 태도였다고 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트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잡더라도 그가 베트콩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맹호부대 군인들은 사람을 죽여야 할지 살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고민에 수시로 빠진다. 이 결정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한국군 지휘관들은 인도적(人道的)인 지시를 내렸다.

114)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상, 1966.10.13, 5면.

중대장(中隊長) 이대위(李大尉)가 들한 가운데서 무전(無電)으로 이른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 쓸데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가능한 살려라. 죽이지 말라. 이상.』

이것은 나에게 구원(救援)의 소리로 들렸다. 그렇고 말고!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지![115]

한국군의 용맹스런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선량한 모습까지 표출했다. 그것은 처절한 생사 앞에서도 사람을 함부로 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통하여 한국군이 정의를 위해, 화평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사람을 위해 숭고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했고 동시에 한국군의 참전이 맞다는 논리를 확고히 했다.

아무리 궁여지책(窮餘之策)이기로서니 잔인(殘忍)하지 않는가? 모름지기 베트콩은 전투(戰鬪)에 있어서 전투원(戰鬪員)의 표지(表識)를 분명(分明)히 함으로써 누(累)를 죄없는 농민(農民)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차차 인심(人心)은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다. 역사상(歷史上) 인민(人民)의 이름 아래 이토록 민중(民衆)을 악용(惡用)한 사례(史例)가 또 달리 있었을까.[116]

여기서 한국군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인심(人心)"이었다. 왜냐하면 한국군이 베트콩이 아닌 죄없는 양민을 죽여 버리면 "차차 인심(人心)은 그들에게서 떠날 것이"기 때문이다. 선우휘의 종군기에서는 한국군과 베트콩의 치열한 공방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정답게 지내는 장면들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생사가 걸려있는 전쟁터 속에서도 인간의 원초적인 정감을 아직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교감을 통해서 한국군의 아름다운 이미지가 더 한 층 높이 올라갔다.
이어서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가서 베트콩을 찾는 장면을 같이 살펴볼 것인데 아래의 기사는 베트남 시골 마을의 가난한 현실과 전쟁의 잔인함을 보여준다:

젊은 남자(男子) 2명과 여자 5명이 손을 들고『맹호, 맹호』하면서 숲을

115)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상, 1966.10.13, 5면.
116)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상, 1966.10.13, 5면.

나온다. 두 여자의 가슴에는 젖먹이가 안겨 있다. 사병(士兵)들은 그네들을 소총(小銃)으로 시늉하면서 몰아세운다.

굶주린 양민(良民)들
그네들이 나온 동굴(洞窟)로 다가가 본다. 지푸라기가 밑에 깔리고 드러난 동굴(洞窟) 옆을 역시 짚으로 엮어서 가리고 있다. 너저분한 솥 남비접시 등이 널려 있는 한구석에 깨어진 검은 단지가 놓여있다.
거기서 시큼털털한 냄새가 풍겨 나오기에 들여다보았더니 누런 뜨물 같은 것이 보여서 손으로 떠내어 바싹 코에 대고 맡아보니 동굴(洞窟)에서 빚은 술임에 틀림없었다. 태고(太古)적부터 술에 대한 인간(人間)의 이 악착같은 집념(執念)! [117]

윗 인용문은 맹호군이 마을에 들어가서 베트콩을 수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선우휘는 전쟁때문에 빈곤한 삶을 살고 있었던 베트남 사람들의 모습까지 표출했는데 여기서 선우휘는 "일순 베트콩에 대한 인간적 친밀감 (人間的親密感)(?) 을" 느꼈다고 한다. 그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었던 근원은 아마도 한국과 베트남사람 모두 전쟁으로 인해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선우휘는 이 장면 외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베트남에 대해 정답게 묘사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과거를 자주 비교했는데 그 상황을 다음 인용문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마디로 가엾었다.
언젠가 그 옛날 여기가 아닌 그 어디에서 나는 이와 비슷한 사람들을 본 일이 없었던가? 나의 뇌리를 스쳐간 것은 6·25에 황폐한 조국(祖國)의 산하(山河), 그리고 주림과 추위에 떨던 동족(同族)들의 얼굴이었다.
나는 속으로 뇌었다. [118]

또한

월남전(越南戰)을 월남(越南)의 6·25에 비길 때, 우리는 저마다 10수년전(數年前)의 6·25를 생각해볼 필요(必要)가 있지 않을까.[119]

또한

117)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상, 1966.10.13, 5면.
118)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상, 1966.10.13, 5면.
119)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하, 1966.10.16, 5면.

그는[120] 문맹(文盲)이면서 곧잘「사이공뎁불람」이란 노래를 불렀다.
애수(哀愁)어린 네오소년(少年)의 노랫소리가 산정(山頂)에 퍼져갈 때 나도 어떤 그리움에 가슴을 조였다.
나는 그에게 석자루 가운데의 한 자루의 볼펜을 주었다. 그는 그것을 받으면서 우리말로『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흰 이를 드러내며 생긋이 웃어 보였다.
부모(父母)가 어디 살아있으면 이 애를 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의 가슴을 스친다. 네오 소년(少年) 같은 쇼리는 맹호(猛虎), 청룡(靑龍)을 비롯한 어느 부대(部隊)에도 있다고 한다.
스스로의 고독(孤獨)에 가엾어서-귀여워서-하는 우리의 장병(將兵)들의 심정(心情)은 납득(納得)이 간다. 그것은 측은(惻隱)의 정(情)과 스스로의 고독(孤獨)을 달래는 마음씨다. 어떤 사병(士兵)은 월남인(越南人) 쇼리에게 언젠가 한국의 거리에서 본 일이 있는 부랑아를 오버랩시키는지 모르며, 어떤 장교(將校)는 그 나이 또래의 고국(故國)에 남긴 자기동생을 생각하는지 모른다. 스스로가 공격(攻擊)한 전투(戰鬪)에서 얻어진 고아(孤兒)에게 느끼는 측은(惻隱)의 정(情)-이 얼마나 모순(矛盾)에 찬, 그러면서 인간(人間)다운, 너무나 인간(人間)다운 마음씨인가.
따질 것 없이 어떻든-지금은 이 말을 되새기고 딴생각을 말자.[121]

인용문을 보면 선우휘는 베트남과 한국이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맹호부대 군인들이 베트남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자신의 슬픈 과거와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기억이 오버랩되어 참혹한 전쟁터에서도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2011년6월13일 미국이 베트남전쟁에 관한 '국가의 비밀문서' (Pentagon Papers: <United States – Vietnam Relations, 1945–1967: A Study Prepar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를 공개한 후 한국군의 야만적인 학살 사건들이 밝혀져서 전 세계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면서 미국군 대신 남부지방의 농촌을 평정(平定)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특수 훈련을 받고 베트남 전쟁터로 들어간 한국군은 식별이 어려운 베트콩과 대결하지 않고 연약하고 죄없는 베트남 양민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 지금까지 한국군이 왜 그렇게 야만적인 학살을 자행했는지와 그 학살을 전쟁상황에서 사람들 이 어쩔 수 없이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는 핑계로 변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미국은 그

120) 월남소녀
121)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하, 1966.10.16, 5면.

당시 평화를 선호하는 반전 여론이 두려워서 한국군의 용서받지 못할 야만적인 양민 학살사건을 흔적없이 숨겨서 그 당시 한국에서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 수가 없었는데 2011년 6월에 와서야 미국정부의 비밀문서 공개로 이러한 진실이 밝혀졌다. 선우휘가 언급한 “인심”과 이런 자료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 종군 기자들이 한국 시민들에게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는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선우휘의 종군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한국군의 희생에 대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정부를 대표한 한국군 지휘관들은 부하 병사들의 생사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가? 한국군이 베트남사람에게는 정답게 대해 주면서 정작 같은 민족인 한국 병사들의 안위(安危)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는 것이다.

> 눈물 흘린 대대장(大隊長)
> 흰나비 노란나비 호랑나비가 공중(空中)에서 너울거린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대대장(大隊長)과 망고나무의 그늘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그는 27일(日)의 전과(戰果)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 전과(戰果)가 많아서가 아니라 전사자(戰死者)가 한명(名)도 나지 않은데 울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기적(奇蹟)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자기는 중대장(中隊長)이나 소대장(小隊長)에게 늘『베트콩사살(射殺)이나 무기(武器) 노획보다 우리의 희생자가 없도록』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른다고 했다.
> <좋은 말이요! 대대장(大隊長), 그리고 자제(子弟)를 월남(越南)에 보낸 후방(後方)의 가족(家族)들은 안심(安心)하시오!> 나는 그렇게 마음속에서 외쳤다. 122)

이런 기사를 통해서 한국정부가 파월장병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모국에 있는 파월장병 가족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역할을 했다. 여기서 국가와 개인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군은 국가의 이익과 이상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국가의 호소(號召)에 호응하여 베트남 전쟁터에 갔다. 반면에 국가도 개인의 안위(安危)와 복리를 크게 지원 배려하여 국가와 개인이 하나로 합일(合一)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정부부터 군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베트남의 평화를 위해서 합심하여 전투를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했다.

---

122) 선우휘의 「맹호(猛虎)」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하, 1966.10.16, 5면.

본고의 제한된 양 안에서 문학 논문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문학가인 최정희와 선우휘의 종군기만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군기를 살펴보면서 두 기자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두 기자 모두 한국군의 용맹스러움을 강조하고 위험한 전투에서도 전사자나 피해가 거의 없었다고 서술했다. 이는 참전 초기 (1964년~1966년) 종군기의 특징으로 정부가 종군기자를 보낸 목적과 부합했다. 종군기자 파견의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신재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언론사에 종군기자의 파견을 요청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한 목적은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의 활동을 현지에서 취재해 국민에게 신속히 알리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군의 '용감성'과 파병의 의의를 국내에 홍보하고 국민을 계몽하겠다는 것이었다."[123] 게다가 종군 기자들은 남베트남에 남베트남 주재 해외공보관을 설치해서 남베트남 언론과의 협조로 한국군에 대한 비방기사를 막는 역할도 했다. 부언하면 당시 한국 정부는 국민에게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정당화시키려고 여론을 통제해서 전쟁의 현실을 전하기보다 국민 홍보에 주력하여 한국군이 화평과 정의를 위해 용감무쌍하게 전투하면서 큰 피해 없이 훌륭한 전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선우휘와 최정희뿐만 아니라 참전 초기 (1964년~1966년) 다른 종군기자의 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965년 11월 20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최현우 기자의 글이 있는데 제목은 「20년처녀지(年處女地) 태극기(太極)를 꽂았다 돌산작전(作戰)」이다. 이 기사는 한국군이 월남전의 처녀지를 점령해서 태극기를 꽂고 베트콩 본거지인 15개의 동굴을 폭파해서 "얼룩배기 군복이 온통 땀에 젖은 해병들의 웃음은 밝았다"[124]는 내용으로 끝냈다. 이규태 기자도[125] 1965년 2월 06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여섯 편의 기사를 신문에 게재해서 한국군의 용감무쌍한 위용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불쌍한 양민의 목숨을 구해준 미담까지 기록했다. 김운하 기자는 전투 장면이 아닌 파월군의 종합훈련장(綜合訓練場)을 공개하면서 "복잡한

123) 이신재, 앞논문, 139면.
124) 최현우, 「20연처여지(年處女地) 태극기(太極旗)를 꽂았다 돌산작전(作戰)」, 조선일보, 1965.11.20, 조간3면.
125) 각주 9번과 같이 참고.

무장 장비와 배낭결속을 10분 이내에 완전 결속하고 눈감고 3분 이내에 소총을 분해 결합하며 정글에서 목표지점을 찾는 독도법과 수색정찰 등의 숙달훈련 과정도 겪는다”[126]고 서술했다. 하지만 한국군이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막상 베트남 전쟁터에 실제로 투입되면서 여러 모로 어려움을 겪었다. 게릴라전 경험이 없이 실전에 투입되고 베트남의 열대기후에 적응하지 못해서 한국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6.25전쟁 초기에 (주한 UN군 지휘관인 MacArthur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전) 김일성 정부가 속전속결로 공격해서 이승만 정부가 속수무책으로 후퇴하다가 후에 북한은 중국과 소련, 한국은 미국과 UN 연합군의 원조에 의지하면서 전쟁을 평형으로 이루다가 1953년에 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이처럼 한국군은 게릴라전에 대항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베트콩과 대결했을 때 어려움을 겪었고 더욱이 온대기후에서 살다가 열대기후인 정글에 와서 새로 적응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당시 한국 파견단이 남베트남 정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로서 당시 남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파견단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또 다른 문제는 사실 그 당시에는 한국군과 기자들이 베트남전에 종군하는 것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저항을 격렬하게 받지 않았고 기사에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도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실제로 1960년대 한국은 한반도 전쟁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돼서 정치 경제 등 전반적으로 큰 위기상황이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그 당시 한국 정부는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매진하며 미국에 다방면에 걸쳐서 의존했다. 특히 경제와 군사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 1960년 초반 남한에서 주목할 정치 사건이[127]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남베트남 정부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승만 정권 이후 남한에 새로 수립된 정부는 남베트남 정부와 외교관계를 유지했고 박정희는 정권을 잡은 직후부터 남베트남에 특별한 군사적 흥미를 보였다. 1964년부터 한국군의 남베트남 파병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박정희는 이미 1961년 11월 방미 중 미국정부에 한국군의 남베트남 파병을 제안했다.[128] 또한 박정희는 케네디 행정부

126) 김운하,「여기는 가창(嘉昌)… 「맹호(猛虎)」ㅡ「비둘기」의 요람(搖籃)」, 조선일보, 1966.03.22, 조간8면.
127) 4.19혁명과 이로부터 나타난 사건들이다.

군사고문에게 자신의 제의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129] 미국은 바로 답하지 않았지만 다른 동맹국의 동태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당시 미국은 시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강력한 반대로 군대를 더 이상 증파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다른 동맹국의 파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케네디 행정부는 박정희의 제의를 완전히 말소시키지 않고 남한의 파병 제의를 시작으로 모든 동맹국의 베트남 파병을 고려하여 실제로 이를 부분적으로 실행했음을 알 수 있다."[130] 그리고 5개월 정도 후 미국은 한국에 10명으로 구성된 군사시찰단을 파견하여 한국군을 남베트남에 투입한다는 제의를 승인했으며 1962년 4월 11일에 이 파견단이 베트남에 약 2달 동안 머무르면서 베트남 전쟁 상황을 관찰했다. 이때 남베트남정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 대만의 파견군을 더 선호했다.[131]

1963년에 들어서 남베트남에 정치적 위기가 시작되었다. 남베트남정부 대통령은[132] 불교탄압[133]을 연속적으로 저질러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때 미국은 남베트남 정부에 대한 태도를 전환하여 남베트남 대통령을 제거하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1963년 9월 남베트남 대통령을

---

128) 미국은 남베트남에서의 1960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남민전)의 창설과 게릴라전의 증가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남베트남에 군사적 투입이 필요함을 실감했다. 남베트남의 정치 상황을 인식한 박정희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며 남베트남 파병안을 1961년11월 방미 중 미국 정부에 제의했다. 파병에 대한 케네디의 공식적 언급 혹은 요청은 없었지만, 박정희는 11월 14일 케네디 대통령과 가진 백안관에서의 회담 중 "동남아시아, 특히 베트남에 관해서는 반공국가로서 극동아시아의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북베트남에는 잘 훈련된 게릴라 세력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남한에 "전쟁에서 잘 훈련된 백만 명이 있다"고 자신했다. 또한 미국이 남한군의 베트남 파병을 승인하고 지원할 경우, 남한은 정규군 병력을 베트남에 파견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파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박정희는 미국행 직전 고위급 장교들과 이를 논의한 결과 모두 열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도타잉타오미엔 (DO THANH THAO MIEN),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53면).

129) "247.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November 14, 1961, FRUS, 1961-1963, Vol XXII: Northeast Asia, p.2141.

130) 도 타잉 타오 미엔 (DO THANH THAO MIEN),「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54면.

131) 언급한 듯이 당시 남베트남 정부는 남한의 파견단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남한군은 대만 파견단보다 베트남 토양-지형과 전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당시 남한 파견단은 남베트남 정부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다.

132) 응오 딘 지엠 (Ngô Đình Diệm) 대통령은 1955년10월26일부터 1963년11월2일까지 8년7일을 걸쳐 임기를 수행했다.

133) 1963년에 응오 딘 지엠 정부의 가족 독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불교적인 운동이 일어났다. 종교적인 사건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여러 시민 계층의 투쟁하는 사건이었다.

비난하는 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동시에 미국의 원조도 감소되었다. 이후 새로 정권을 잡은 쯔엉 반 밍 (Dương Văn Minh) 장군은 다른 동맹국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으며 한국군은 "1964년 3월 남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134] 이로써 한국군이 네 번째로 남베트남에 진입하였고 군인과 기술자를 포함하여 총 324,864명이 참전했다. 이런 베-한 양국의 경제-정치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파병 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는 군인들의 자원을 받아서 파병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전에 참전하고 싶은 사람들만 갔다. 사실 이 시기에 한국 국민은 정변과 한-일 협정에 관심이 커서 베트남전쟁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모호한 입장이었다. 이러한 연유(緣由)로 국민들은 종군기에서 나온 정보들을 모두 다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다. 그 당시 기자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도 왜 그렇게 많이 종군했을까? 아마도 베트남전쟁이 기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그때까지 한국은 해외에 종군기자를 보낸 전례가 없었고 해외에 파병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다. 그래서 "당시 기자들 사이에서 '특종' 을 얻기 위해서는 베트남으로 가야 한다는 일종의 '암묵적 합의'가 작용하였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베트남에 향했다"[135]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군과 같이 생활하면서 전황을 보고하는 종군 기자들이 정부의 정보통제로 전황을 그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되자 기자들로부터 종종 정부의 통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 한 기자는 "미국 신문들이 미국 정부보다 베트남전쟁을 더 정확히 파악했다"고 지적하며, 한국 기자들은 자신들의 전쟁보도에 긍지를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조순환 1975). 또한 1975년4월 사이공 함락 당시 현지에서 취재하였던 안병찬은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언론은 베트남 정글에서 '불패의 용맹'을 떨치는 상승(常勝) 군대가 되어야 했는데, 이것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한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안병찬 2003). (중략)
> 베트남전쟁에 파견된 한국 종군기자들은 한국정부의 전쟁에 대한 홍보와 국민에 대한 계몽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136]

134) 도 타잉 타오 미엔 (DO THANH THAO MIEN),앞 논문, 167면.
135) 이신재, 앞논문, 129면.
136) 이신재, 앞논문, 141면.

참전 초기(1964-1966년)의 기사들과 1967년, 특히 베트남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1968년부터 게재된 가사들을 비교해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다. 1967년부터 게재된 기사에서는 베트콩의 위험성, 한국군의 희생, 전쟁의 위기, 그리고 시민학살 장면들이 나타났다. 1966년 12월 8일부터 1967년 1월 17일까지 3편을 게재한 목사균[137] 기자가 맹호부대와 백마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상황을 그렸는데 중요한 점은 지휘관들이 한국군의 죽음을 숨긴 비리를 밝히고 전쟁터에서의 생과 사의 경계를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조선일보 기자인 유지형[138]이 쓴 기사에서도 죽은 사람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한국군 지휘관의 명령까지 서술했다. 더 나아가서 베트남 전쟁이 끝나가는 시기인 1972년에 발표된 황승일 기자의 글에서 참혹한 현실을 숨김없이 묘사되었다:

> 시체 썩는 냄새로 코를 들 수 없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갈기갈기 흩어져 있었다. 대체로 긁어모은 것은 1백 70여구(具)의 빙커 안에도 시체로 가득 찼다.
> 후에 638고지에 온 이세호(李世鎬) 사령관은 정말 피의 능선이라고 했다. 이 능선의 9부 이상에는 나무가 홀딱 벗겨져 있었다. 참모 오(吳)태한 대령(大領)은 대머리에 비유하여 한참 웃었다.[139]

선우휘와 최정희의 경우로 다시 되돌아 가본다. 우선 선우휘의 경우는 2.2절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여기서는 김종욱의 연구[140]에 의존해서 조금 더 설명해볼 것이다. 김종욱은 선우휘가 권력과 타협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선우휘와 리영희 기자의 사건을 분석하였다.

> 당시 여러 기자들이 베트남파병 부대를 공식적으로 종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우휘가 비공식적으로 베트남 퀴논에 다녀온 것 또한 권력과의 유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우휘와 함께 필화사건에

---

137) 목사균:
4. 「백마(白馬)」의 살상(殺傷)없 는승리(勝利)」, 조선일보, 1966.12.08, 조간4면.
5. 「쿠몽일대(一帶)를 평정(平定)하라」, 조선일보, 1967.01.12, 조간6면.
6. 「특파원(特派員) 위기일발(危機一髮)」, 조선일보, 1967.01.17, 조간 6면.
138) 유지형, 「처참(悽慘)····시산(屍山)에 묻힌 후에시(市)」, 조선일보, 1968.02.24, 조간1면.
139) 황승일, 「벙커엔 시산(屍山)····잿더미된 정글」, 조선일보, 1972.04.25, 조간3면.
140) 김종욱,「베트남전쟁과 선우휘의 변모」,우리말글 63,2014.12, 353-378 (26pages)

연루되었던 리영희는 매우 흥미로운 글을 남기고 있다. 그에 따르면 베트남 취재 여행은 비판적인 기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정부가 안겨준 일종의 특혜였다.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시기에 국비로 파병 부대 시찰을 명목으로 베트남을 여행한다는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였던 것이다. 리영희 역시 1966년 가을 중앙정보부루부터 두 달 간 베트남 전쟁 특별 취대를 제의받기도 했고, 서울에 있던 다른 언론사 외신부장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위로 출장'을 다녀오라는 제의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리영희는 이러한 특혜를 거부한 탓에 1968년2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한 선우휘에 의해 조선일보사에서 해직당한다. (중략) 리영희는 베트남 파병군의 현지 상황 시찰 여행에 다녀오지 않은 것이 사상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지면서 해직에까지 이르렀다고 회고하고자 있다. 권력의 언론 통제에 맞서 함께 고초를 겪었던 선우휘와 리영희는 이처럼 베트남 파병을 전후해서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된다. 리영희가 『창작과 비평』을 발판 삼아 베트남전쟁의 제삼세계 민족해방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면서 권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반면, 선우휘는 박정희 정권의 베트남 파병에 협조하면서 권력과 밀월관계를 형성했던 것이다.[141]

인용문을 살펴보면 그 당시 박정희 정부는 언론통제를 통하여 국민 정서를 이끌었다. 다시 말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독재적인 제도가 강력하게 실행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공론영역조차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로 제재를 받아서 선우휘도 이러한 권력의 압력에 타협하고 베트남전에 종군하여 나중에 『물결은 메콩까지』를 창작했을 때도 이러한 태도를 견지했다.

최정희의 경우는 조금 다른다. 그녀와 선우휘 둘 다 베트남전쟁 종군 기자로 부르지만 선우휘가 수개월 동안 파월장병들과 같이 지내면서 전황을 보고한 반면 최정희는 위문 연예인단의 단장으로 며칠씩 잠깐 동안 공연을 참관하면서 취재를 했다. 따라서 최정희는 종군기사로 주로 연예인단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만 게재했는데 실제로 「사랑하는 병사들에게」란 기사는 종군기간 동안 주요 업무로 작업한 기사가 아니라 귀국 후 사흘째 되던 날에 베트남에서 병사들과 같이 지냈던 짧은 시간을 회상하면서 쓰게 된 글이었다. 그리고 종군 시 동영상으로 찍은 공연과 관련된 소식을 보도했다. 특별히 주목되는 점은 최정희가 베트남전쟁에 종군하기 전에 6.25 전쟁에도 종군했다는 것이다.[142] 그 당시 한국 종군기자는 거의 문인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최정희는 이러한 사람들 중

141) 김종욱, 앞 논문, 365면.
142) 김도원, 「미디어 전쟁」, 조선일보, 2003.04.10에서 참조.

대표적 인물이었다. 6.25전쟁 후 최정희는 1967년 02월 02일에 파월 장병 위문 차 종군작가 단장으로 베트남을 방문했는데[143] 1967년 02월 18일에 최정희의 베트남 방문 소식이 대한뉴스 610호로 보도된다.[144] 그리고 1906년에 함경남도 단천에서 출생한 최정희가 62세 고령에 베트남 전쟁에 종군한 것도 주목될 만한 점이다. 그렇지만 최정희 연구에 빠진 황수남 연구자는 『최정희 문학 연구』[145]에서 최정희의 베트남전 종군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다른 자료에서도 간단히 종군시간만 언급했다. 최정희는 문학에 입문하기 전에 연극에 관심이 있었는데 베트남전 종군 시 파월장병 위문 단장으로 갔다는 사건과 연결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위문단의 중요한 역할은 신문에 기사를 게재하는 것보다 파월장병들을 달래는 역할이었다. 그러므로 최정희의 경우는 군사적인 전투현황을 전달하는 것보다 문예적인 연예인의 공연에 중심을 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62세 고령에 종군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과연 정부로부터 '특종' 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도 될 것이다.

지금까지 최정희와 선우휘의 종군기를 알아보았는데 이런 글들이 국가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구체화해 나갔다는 것이 느껴진다. 과연 정부는 종군 기자들의 역할을 잘 활용하여 그 종군 기자들이 전쟁터에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대표하여 전쟁에 동참한 것으로 선전해서 정부와 국민이 한결같이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군기에서는 개인적인 한 군인의 이미지를 구체화해서 묘사하지 않았고 오직 모든 군인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으로만 그려졌다는 특징이 있다. 달리 말하면 국가 입장으로 단체적인 소식과 이미지를 전달해줘야지 개인의 사정이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아니었다. 특히 초기 종군기에는 국가와 개인의 밀접한

---

143) 박동은, 「연예인단『靑龍(청룡)』위문」, 동아일보, 1967.02.11. 내용이 짧아서 원문을 참고로 전부 인용할 것이다.

연예인단『靑龍』위문

백금녀.윤일로등 국내 유명연예인으로 구성된 주월국군 연예위문단 일행이 지난 2일 청룡부대를 방문, 일간에 걸친 위문공연으로 향수에 부푼 청룡장병들의 마음을 달랬다. 여류작가 崔貞熙여사를 단장으로 하는 이들은 또한 청룡치료 및 수송중대로 부상용사도 위문했다.

(사이곤= 朴東銀특파원)

144) 최정희, 「월남 소식」, 대한뉴스 610호, 1967.02.18.

145) 황수남, 『최정희 문학 연구』, 문예운동사, 2012.

관계를 표현했는데 여기서 개인은 국가 속에 있고 국가를 위한 존재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어떻든 종군기들은 박정희 정권이 여론을 이끌고 싶은 대로 쓰게 된 글이기 때문에 논픽션 문학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로 인지해도 타당할 것이며 군인들은 국가의 대표성을 갖고 국가의 숭고한 이상을 위하여 과감하게 전투를 한 모양새였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국 정부와 한국 군인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고귀한 베트남의 화평을 위하여 전투를 했다는 일념(一念)을 보여주었다.

2.2. 정의를 위한 참전

『물결은 메콩까지』는[146] 선우휘의 베트남 전쟁에 관련된 글이지만 종군기와 달리 소설이기 때문에 가상 인물을 통해서 작가의 관점과 인식을 많이 보여 주었다. 이 소설은 주인공인 남기욱의 입장에서 고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그는 한반도의 서북지방에서 태어나 22살 때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해방이 된 후 북한에 아내와 자식을 남겨둔 채 월남했다. 한국전쟁에도 참전했지만 제대 후 평화로운 서울에서 “의욕이 없는” 화가로서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때 남기욱의 친구인 조일연이 남기욱에게 무의미한 삶을 살면 안 된다며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찾아보라고 권유했는데 결국 남기욱은 조일연의 설득에 따라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지만 남기욱은 바로 베트남으로 가지 않고 도쿄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었던 친구인 조일연을 찾아서 일본을 방문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반전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선우휘는 일본에서 베트남전쟁 반전 운동가인 김석씨와 논쟁하면서 일본에 유학온 베트남학생 시움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여기서 주인공 남기욱은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하는 타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논거를 제시했지만 그 논거들은 서로 모순되었다. 이렇게 상호 충돌되는 논점들을 주장한 남기욱이 베트남에 도착해서 전쟁을 직접 체험하면서부터 현재의 베트남을 과거의 한국과

146) 이 작품은 1966년 6월 9일부터 1967년 2월 28일까지 중앙일보에서 연재되었다.

동일화시켰다.

『물결은 메콩까지』는 한국문학사에서 베트남전을 소재로 쓴 첫 장편 소설로 그 당시에 독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베트남전에 대한 연구자들이 이 작품을 전혀 논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선행연구검토에서 언급했듯이 『물결은 메콩까지』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가 두 논문밖에 없다. 심지어 "보수적 반공주의자로서의 선우휘의 사상적 기반을 치밀하게 연구했던 한수영의 연구[147]에서도 이 작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148].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학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베트남전을 한국사의 부끄러운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베트남전 참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선우휘가 『물결은 메콩까지』에서 강조한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 1966년부터 1967년까지 『중앙일보』에 연재된 『물결은 메콩까지』는 베트남 파병과 참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주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까지 발표된 대부분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과 상당히 대립적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 학계는 1960년대에 높은 관심을 받았던 『물결은 메콩까지』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주로 1970년대 중-후 반기부터 발표된 작품들만 연구를 해왔다. 이 때문에 베트남전쟁을 소재로 쓴 작품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살펴보면 주로 1978년에 발표된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부터 많은 연구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그 당시 사람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주인공인 남기욱의 태도를 통해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남기욱에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다가온 전쟁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찬표(贊票)를 할지 반표(反票)를 할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답이 무엇이든 무의미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찬표(贊票)나 반표(反票)를 던질 시기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6.25 전쟁을 그 시대와 그 세대에 운명처럼 받아들인 남기욱이 베트남전과 6.25 전을 동일화시켜서 "걸어온 싸움은 받을 수밖에"(83쪽) 없는 게 베트남사람의 운명이라고 시사한다. 또한 이 전쟁을 베트남사람의

147) 한수영,『사상과 성찰』, 소명출판, 2011.
148) 김종욱,「베트남전쟁과 선우휘의 변모」,우리말글 63호, 2014, 356면.

운명인 동시에 베트남사람의 일로 간주하고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한다.

> -그런데 이제까지 희미해서 의심스럽던 것이 한가지 분명해진 게 있어요.
> -그게 뭐지요?
> -예, 이제까지 주로 미군들만이 월맹이나 베트콩과 싸우고 있고 월남군은 그 그늘에서 무색한 것으로 생각해왔는데 "도이 토아이"의 내용에서 강력히 풍기는 것은 역시 월남 전쟁은 월남인의 전쟁이다 라는 것. 원하건 원하지 않건… 좋건 나쁘건 간에 월남 전쟁의 주연자는 어느 쪽이든지 월남인지, 결코 미국인일 수 없으며 더 한국인은 아니라는 느낌이죠. 미군 백만명이 투입되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엑스트러에 불과하다는 것.
> -…
> -십여년전의 한국 전쟁에서도 그랬어요. 그 것을 마치 미군과 중공군의 싸움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역시 그 전쟁은 코리언의 전쟁이었지요.
> -…
> -자기 영토에서 전쟁이 벌어진 이상, 어디 그것이 남들끼리의 전쟁이어서야 될 일 입니까. (140쪽)

남기욱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 그는 한국과 베트남이 같은 상황에 빠진 것으로 인지하여 남북 분단의 아픔을 표출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를 보면 3년간 남북전쟁을 했지만 결국 정전협정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한반도는 아직까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정전이라는 것은 분명히 화평한 상태로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나마 총소리없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통일되지 않은 땅에서 조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다 보니 남기욱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기욱은 오히려 베트남에서 전쟁이 끝나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지레 짐작했다. 동시에 베트남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베트남사람의 일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와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결국 소련과 미국의 대립적인 이념전쟁으로 끝이 안 보였다. 그래서 남기욱은 아마도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외부세력의 간섭이 없이 베트남사람과 베트남사회의 진보를 위해 순전히 베트남사람들만의 전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한편 다른 장면에서 주인공 남기욱은 이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입장을 보여줬다. 한국에서 정전이 되고 임시적으로 전쟁이 끝났지만 평화롭게 살 수 없는 상황을 암시한 남기욱은 베트남도 전쟁 후 한국과 같은 미래가 될 거라고 예상하며 다른 장면에서 베트남 전쟁은 "베트남 사람의 전쟁"일 뿐만아니라 본인도 이 전쟁에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역설했다.

> 월남전은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기욱은 새삼스럽게 생각한다. 남의 일일 수 없다. 누가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건간에 그가 한국인일 때 그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것이다. 월남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207쪽)

위의 대목을 통해서 그가 김석씨와의 대화 시 취한 입장과 완전히 반대적인 모습이 보인다. 여기서 주인공은 본인도 베트남전쟁에 대해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정부가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넓게 보면 그도 이 전쟁에 발을 담갔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베트남사람의 전쟁으로 본다면 도대체 남기욱과 한국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건가? 라는 의문에 빠질 수 있다. 남기욱은 베트남전쟁의 주체에 관련된 스토리를 표출함으로써 본인 내심의 모순을 보여주고 베트남전쟁의 주체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베트남전쟁은 도대체 누구의 전쟁이란 말인가? 이에 관련된 논점이 여러 가지 있다. ①베트남사람의 내전이라는 논점 ②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전쟁이라는 논점 ③베트남사람의 민족해방이라는 논점 등 크게 보아서 세 가지가 있다. 미국은 베트남전쟁을 통해서 도미노처럼 밀려오는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막고 아시아 국가에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싶었다.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동기의 본질은 소련과 중국을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 국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 당시 남베트남정부는 단순한 미국의 괴뢰정권에 불과한 정부였다. 그렇다면 과연 베트남전쟁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한 이데올로기적 대결이란 말인가? 하지만 북베트남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전쟁은 베트남 전체 민족들과 미국 또한 동맹국들과의 전쟁이며 민족 해방전쟁일 뿐이었다. 이 전쟁은 이데올로기가 주요 원인이 아니고 국제적인 전쟁도 아니었다. 미국이 베트남전쟁터로 여러 동맹국 군대를

끌고 와서 그들을 지원했지만 북베트남정부는 중국이나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의 국가들의 인력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호치민 정부는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무기, 탄약, 식품 등의 군수물자를 지원받았지만 두 나라의 군인들은 베트남 영토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북베트남정부가 이 전쟁을 6.25전쟁처럼 국제화전쟁으로 확대하지 않아야 중국과 소련의 영향력을 제한해서 국가의 자주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베트남사람들은 남베트남정부가 단지 미국의 괴뢰정권일 뿐으로 베트남 전쟁이 내전이 아니라 미국과의 대결에서 싸워 이긴 항미전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1973년 3월 29일 미군이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 철수한 후 아무런 버팀목이 없었던 남베트남정부는 2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1974년 4월 30일에 패망하게 된다.

다음으로 남기욱은 또 베트남사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근거없이 함부로 말했다. 남기욱은 베트남사람의 전쟁에 대한 태도를 말할 때 베트남인은 감정에만 중심을 두고 사상이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문제가 될 만할 평가다. 베트남인이 감정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에 동의할 수 있지만 특별한 근거없이 사상이 부재한 채 전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공감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남기욱이 베트남사람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사를 다시 살펴보면 봉건시대 때부터 베트남사람은 외부 침략 세력에 강력하게 대항했는데 많은 연구 결과 베트남인이 막강한 외방 세력을 이겨 낸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끈끈한 단결심과 불굴의 민족정신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애국정신을 넘어 베트남 민족의 전통적인 우국충정으로 침략 세력에 대한 투쟁정신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시작된 후 사회 주의 국가로서 제국주의 세력인 프랑스의 침략에 강력하게 저항하며 투쟁하였는데 이때 마르크스주의와 호치민사상은 베트남민주공화국의 견고한 사상적 축이 되었다. 물론 1945년 이전에도 그러한 사상이 존재했었지만 아직 독립국가가 건국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의 사상으로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베트남 사람은 이 사상계를 바탕으로 프랑스의 식민침략음모를 패퇴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이러한 전통적인 애국사상과 시대적인 마르크스-호치민 사상을 결합하여 민족의 화평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21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할 수 있었다.[149]

지금까지 남기욱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남기욱이 첫번째 논점에 따르면 베트남전쟁은 베트남 사람의 전쟁이기 때문에 베트남사람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남기욱이 두번째 주장한 논점에 따르면 베트남전쟁이 베트남사람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가 연관된 전쟁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위해서 한국이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전목적은 베트남의 화평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화평이 이루어진 한국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던 남기욱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화평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싶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남기욱과 대부분 한국군의 실제 참전목적이 무엇인지와 한국정부의 참전목적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볼 것이다.

우선 남기욱의 경우는 일본군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다가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제대 후 화가로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6.25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 된 어려운 상황에서 가난과 외로움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베트남 전쟁터에 가기로 했다. 그는 6.25 전쟁에서 이미 지휘관으로 참전한 경험이 있어서 전쟁이란 것이 낯설지 않았으며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술집에서 만난 은경이란 여자와 대화를 할 때 남기욱은 “적극적으로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음의 공포를 극복한다”(99쪽)고 말했다. 전쟁터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있었던 기욱이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와서도 계속 “죽음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닥쳐올지도 모를 죽음이란 것을 마음속에서 미리 받아들이”고 있다.(99쪽) 이 장면에서 화자가 인생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차분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태도는 화자가 삶의 의욕이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쩌면 두 번째 해석이 남기욱의 상황과 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는 소설에서 “의욕이 없다”란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

149) 베트남인의 내셔널리즘에 대해 평가를 할 때 이영희가 이렇게 말했다:
베트남인의 민족의식에 대해서는 베트남전쟁의 어느 편에 서는 입장이 건 예외없이 감탄한다. 1천년에 걸친 중국과의 관계에서 예속된 일이 없었다. 베트남인의 높은 의식과 자질은 인도차이나의 딴 민족의 두려움이 되어 왔다. (중략) 현실적으로도 식민지 예속화와 그 가장 악랄한 지배 방법으로서의 분열통치는 오히려 국가통치의 제약적 요소이기보다는 민족적 통합, 통일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에네르기를 자극했다. (이영희, 『베트남 戰爭 :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두레, 1985, 108면.)

반복했기 때문이다. “의욕이 없는” 삶으로 지친 주인공 남기욱은 밤마다 클럽에 가서 6.25전쟁에 같이 참전했던 동료들과 세상 물정을 담론한다. 하지만 클럽이 마친 후 동료들이 모두 다 집에 갔지만 기욱은 갈 곳이 없다. 화자는 가족 또는 집이란 개념이 모호해져서 “가정이 없었다”(46쪽)고 고백했으며 “말끔히 자기를 잊어버렸”으면(48쪽) 좋겠다는 희원까지 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났고 평화가 돌아왔지만 평화로운 서울에서 그는 늘 혼자만의 외로움으로 그런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남기욱은 청춘의 의미를 다시 되찾기 위해 조일연의 조언에 따라 베트남으로 향했다. 그렇지만 남기욱의 추상적인 참전 목적에 대해 논할 때 김종욱은 다음과 같은 평가를 했다.

> “조일연과 남기욱에게 있어 베트남은 삶의 무기력과 무의미를 해소시켜 주리라 기대되는 낭만과 청춘의 땅이다. 물론 청춘의 시기에 전쟁에 참여했다고 해서 전쟁과 청춘이 동격일 수는 없다. 그리고 다시 전쟁에 참여한다고 해서 청춘이 되돌아올 리도 없다. 하지만 전쟁을 청춘과 동격에 놓음으로써 전쟁에 다시 참여함으로써 조로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듯한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전후세대의 무력감과 무의미가 전쟁때문이라면, 무모름지기 전쟁의 불모성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기욱과 조일연은 새로운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청춘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허위의식상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150]

평화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남기욱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자 전쟁을 통해서 용맹스러운 모습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는 설득력이 낮아 보여서 ‘허위의식상’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을 위한 참전이란 이유와 일치하지 않아서 남기욱 본인 스스로 논리적 충돌을 만들어냈다.

실제로 남기욱뿐만 아니라 선우휘의 초기 작품에서 나타난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이러한 의미없는 삶의 혼란스러움에 빠졌는데 이는 선우휘의 개인 경험과 관련된다. 선우휘는 1943년 3월에 경상사범학교 연습과를 졸업하고 같은 해 4월에 경성사범학교 본과에 입학하여 본과 교육을 6개월 동안 받고 나서 9월에 졸업했다. 그 후에 고향인 정주 근처의 조일소학교에 발령을 받아 2년 정도 교사 생활을 보냈다. 그러다가

150) 김종욱, 앞 논문, 367면.

그곳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해서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했다. 이런 상황이 선우휘에게 인간적 고민을 주었는데 결국 “북한 사회에서 소련군의 만행과 공산당의 성립과정을 몸소 체험하게 된”[151] 선우휘는 1946년 2월에 월남했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한국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때 그가 조선일보사에 문예부 기자로 입사했는데 “극히 사무적인 미군정의 시책, 합법성을 가지고 마음대로 뛰노는 좌익, 무익에 가까운 우익, 무성격의 중간층”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한국의 정치현실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는 사회부 기자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서 조선민주당 선우훈 선생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계획했지만 미군 헌병 에게 걸려서 인천을 떠나보지도 못하고 끝내야 했다. 이런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선우휘는 한국의 정치, 사회,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감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감정과 시대적 혼란상을 초기 작품에서 치밀하게 묘사했다.

이러한 해방 직후의 혼란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남기욱 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그들이 베트남전쟁 파병에 자원해서 참전하기로 했는데 이는 남기욱이 일본에서 반전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김석씨와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 -그들이 받는 봉급은 미군이나 월남군 보다는 적지만 본국에서 보다는 훨씬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집으로 보내서 살림을 도우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요.
> -그거….
> 하고, 김석씨는
> -저는 그게 틀렸다는 거에요. 전쟁터에 끼어들어 돈을 벌어보자니, 어디 그게 될 말입니까.
> -물론 저도 김선생의 그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 -그래서 저는 월남의 평화를 주장하고 나선 거지요.
> -그렇지만 말입니다. 김선생.
> 하고 기욱은
> -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토록 악착같이 살아야하는 동포의 신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1) 이익성, 『선우휘: 근대사의 역동성과 문학적 변용』, 세계작가 탐구 25, 건국대학교출판부,2004, 21면.

-인간적 모욕이죠.
-물론 인간적 모욕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않을 수 없는 - 그래야 하는 동포들을 애처롭게는 생각지 않으세요?
-애처롭다구요?
-애처롭구 말구요. 아니, 어쩌면 그러한 삶에의 피나도록 치열한 의욕은 - 아니, 지레 피를 흘리고 있죠 - 그러한 의욕은 장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장하다?
-김선생께선 물론, 이 일본사회에서 무진 고생을 하셨고 갖은 모욕을 감내하면서 일가를 이루었을 줄 압니다.
-….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 신장기 판매같은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김선생을 낮춰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
-그러나, 선생께선 해방후의 이 이십년동안, 수백만명이 죽는 전쟁이나 그를 전후한 혼란의 과정속에서 살아온 본국 동포들이 겪은 고초를 모르십니다. (128쪽)

남기욱은 젊은이들이 "의욕없는 나라"에서 벗어나 전쟁터에 가서 돈을 번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 전쟁으로 인해 부모님을 다 잃어서 자신이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세경은 베트남전에 자원해서 갔다. 남기욱이 은경과 함께 대화를 나눌 때도 세경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가 어떤 한 명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 당시 젊은이들의 얘기로서 당시 젊은이들의 고민과 참전 이유를 알게 해준다.

기욱도 가끔 양장점으로 누나인 은경을 찾아온 세경을 한두 번 만난 일이 있었다. 그렇게 자랐으면서 그 얼굴에서 한점의 어두운 그늘도 찾아볼 수 없는 밝은 표정의 청년이란 인상을 기욱은 갖고 있었다.
-지원해 갔나?
-네. 아르.오.티.시 출신의 소위로 있다가 파월부대의 소대장이 되어 떠났어요.
무슨 생각으로? 기욱은 뇌리에 단정한 세경의 얼굴을 스쳐 보내며 흑! 그렇게 생각했다.
-그 애가 금년 스물 한 살이었던가?
-스물 두 살이어요.
-스물 둘…
기욱은 저도 모르게 한숨과 함께 그렇게 뇌까려 보았다. 스물 둘이면 바로 자기가 일제말기에 학병으로 끌려간 나이였다는 우연의 부합을 느낀 것이었다.

그때 자기는 피해 다니던 끝에 지원을 강요당하고 나서는 매일같이 친구들과 얼려다니면서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키는 것으로 "나라 없는 젊은이의 울분"을 푼다고 비분강개의 자기 도취에 빠졌던 것인데.
-그 애가 월남으로 떠난 마음씨를 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은경의 음성은 가라앉아 있었다.
-그 애는 여기 있어도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서 떠난거예요.(32~33쪽)

인용문에서 보듯이 당시 젊은 20대 한국 청년들은 답답하고 분한 마음을 견디며 살고 있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지만 분단된 나라의 아픔은 상존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고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돼서 조국이 무엇인지 이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못 찾은 채 미래의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고 진정한 삶을 살기보다는 물리적인 존재로만 살고 있었다. 원래 남기욱의 기억속에 있는 세경은 "얼굴에서 한점의 어두운 그늘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의 청년"으로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는 한국의 격변기 에서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젊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한국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1960년대 초 한국은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면에서 황량한 분위기였다. 주목할 점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고 이후 5.16 쿠데타로 새로운 군사정권이 수립되었다. 또한 그 때 "높은 실업률로 인해 대학 졸업생들과 중년들이 고령의 정치인들에게 불만이 존재했다는 것"[152]도 밝혀졌는데 선우휘가 묘사한 정치적 분위기 또한 세경과 같은 젊은이의 이미지와 일치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1960년대 초기는 참혹한 수준이었다. 전쟁이 끝난지 얼마 안 돼 산업 시설이 붕괴된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형성할 만한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때에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나 베트남전에 종군하는 까닭은 바로 "의욕 없는" 삶으로부터의 도피였다. 한국에 있으면서 실업자로 가난하게 사느니 미군과 남베트남군 보다는 적지만 베트남에 가서 봉급을 받아서 집에 보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를 보면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역사적 으로 보면 이 시기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들은 강제가 아닌 자원병으로 뽑았다는

152) 도 타잉 타오 미엔 (DO THANH THAO MIEN), 앞 논문, 150면.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파병군인 입장으로 볼 때 베트남전에 참전하는 동기와 까닭은 바로 개인의 이익에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본인의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서 고생한 것은 베트남의 평화 또는 베트남의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베트남전쟁에 종군한 한국군인 (젊은 세경과 남기욱)의 개인적 입장과 동기를 살펴보았다. 여기에 더해서 한국정부의 입장은 과연 어땠는가 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기욱이 일본에서 반전 운동가인 김석씨와 베트남전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에서 그는 베트남을 돕고 싶은 입장에서 참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기욱에게 한국정부는 "베트남 국토를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뿐이다."(136쪽) 그런데 문제가 되는 점은 남기욱은 한국정부의 참전 동기가 베트남 평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동시에 젊은이들이 베트남에 가서 "의욕 없는" 삶으로부터 도피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남기욱은 파병 논리를 제시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스스로 논리적 충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남기욱은 "화평"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몇 번 드러냈는데 이런 사람이 "베트남 국토를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다. 한국전쟁이 끝났지만 진정한 화평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남기욱이 다른 나라의 화평을 위하여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아이러니로 상호간에 충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 작품에서는 정부와 개인들이 똑같은 목적지인 베트남 전쟁터로 향했을 뿐이지 참전 동기는 본질적으로 보면 동일하지 않았 다고 본다. 남기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위하여 참전한다고 했지만 개인들은 지루한 삶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참전하는 다른 목적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 간에 항상 상호 모순을 드러냈지만 국가든 개인이든 베트남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달리 해석하자면 한국의 참전은 정당하다고 하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전 활동을 반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 학계에서는 참전동기에 대해 어떻게 논쟁하고 있는가? 개체적 군사와 단체적 정부의 참전목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이 선우휘의 주장과 어울리는가? 라는 의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야 된다. 베트남학계의 일련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동기가 기본적으로 3가지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153] 첫째는 미국의 참전 요청, 둘째는 이데올로기적 대립, 셋째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었다.

첫째 요인은 미국의 참전 요청인데 이는 역사적 사건으로 증명할 수 있다. 1950년대부터 한국과 남베트남은 미국의 동맹연대로 인해 교류관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에서 베트남전 참전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실은 1948년부터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즉 베트남이 항불전쟁[154]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미국은 아직 베트남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프랑스를 원조해주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동아시아 전쟁에 발을 들여놓았다. 원조 이유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1948년-1952년 시기에 동양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통해 점점 팽창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응원을 하겠고 동맹국이라면 원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49년부터 프랑스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1949년 1월에 미국은 프랑스에게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다. 그 후 1949년 말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군대가 베트남전쟁에 투입하게 되었다. 1949년 10월에 미국의 대표단이 베트남에 진입하였으며 1951년부터 프랑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남베트남을 원조하기 시작했다. 1954년에 항불전쟁이 베트남의 승리로 끝나자 프랑스 대신 미국 군대가 남베트남에 들어왔다. 이때부터 베트남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역대로 많은 대통령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여러 군사계획을 실행했는데[155] 미군이 베트남에 들어간 목적이 처음에 발언했던 것과

---

153) 도 타잉 타오 미엔 (DO THANH THAO MIEN),「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 전쟁 시기 (1954~1975년)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0집, 311면.

154) 항불전쟁은 1945년부터 1954년까지 걸쳤으며 결국 베트남민주공화국의 디엔 비엔 푸(Điện Biên Phủ) 전투 승리로 1954년 4월 30일에 전쟁이 끝났다.

155)

1961~1965: Chiến tranh đặc biệt- 특별한 전쟁 (남베트남정부에게 군사 무기를 원조해주기만 하고 이 때는 미국군과 동맹국군을 아직 많이 투입하지 않았다. Staley-Taylor 전력과 Johnson-Namara 전력을 포함한다.)

1965-1968: Chiến tranh cục bộ- 국부의 전쟁 (미군과 동맹국군은 빠르고 강하게 공격했다.)

1969-1973: Việt Nam hoá chiến tranh và Đông Dương hoá chiến tranh - 베트남화 전쟁 및 동양화 전쟁 (미군은 귀국하고 다시 남베트남군에게 강렬하게 원조했다. 더구나, 남베트남군을 이용해서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전쟁을 진행했다.)

1973-1975: Chiến lược bình định- lấn chiến 평정-침식 전략 (미국의 보병은 귀국했지만

다르다는 것을 미국 시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베트남전쟁을 중단하라는 반전 시위가 계속 일어났고 미국정부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강렬한 저항에 봉착했다. 한편 이 때는 남베트남 정부도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남베트남 정부가 시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베트남의 활동도 매우 신속하고 강렬해졌다. 따라서 남베트남 정부는 미국에게 군사원조를 계속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은 남베트남에 군대를 더 이상 보내면 본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바로 동맹국의 군인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이런 때에 미국이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요청을 받아들여서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가 굳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하여 미국은 한국과 남베트남의 관계에 중요한 다리가 되었다.

이어서 참전동기인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한국은 남베트남과의 동맹국 입장으로 자유제국이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에 대항한다는 명분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 이쯤에서 살펴보면 1970년대 초 공산주의와 제국주의 세력의 대립이 '완화' 되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굳이 봉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철수를 진행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동기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참전한 것이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할 때 한국은 미국의 원조를 받고 동시에 베트남전을 통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베트남전쟁 참전을 통해 얻은 큰 이익을 활용하여 경제를 재건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세 가지 원인 중에 어떤 원인이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가? 지금까지 이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세 가지 원인 중에 두 번째 원인은 이데올로기적 원인이었는데, "바로 남한의 베트남전 파병이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는 것이다"156)라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남기욱이 말했던 "베트남을 위하여 전투하고 있다"는 논조와 같았다. 그러나 앞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파병요청과

북부섬 (Vịnh Bắc Bộ)에서 해군과 공군은 아직 남아있었다. 이는 남베트남 정부에게 지원해주었다.)

156) Nguyễn Thị Ngọc Oanh, 「Chính sách đối ngoại của Đại Hàn」, Sài Gòn: Học Viện Quốc gia Hành chánh, 1974, p.75. [응웬 티 응옥 와인, 「대한의 대외정책」, 학사학위논문, 국립행정연구원, 사이곤, 1974, 75면. (도 타잉 타오 미엔 (DO THANH THAO MIEN),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 전쟁 시기 (1954~1975년)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0집, 311면에서 옮김)

압력을 더 강조하는 관점도 있었다[157]. 이 주장에 따르면, 당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의 파병요청을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이유는 당시 한국의 경제-군사-정치가 미국 의존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158] 따라서 실제로 베트남 학계는 마지막 원인인 이익을 벌기 위한 것을 가장 중요한 까닭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앞에 주장한 두 원인이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존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첫째, 한국과 남베트남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같은 반공주의 인식을 갖기 마련이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6.25전쟁에서 벗어난지 10년밖에 안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159] 이런 상황에서 멀리 베트남까지 병사를 보내서 자본주의와 반공주의를 위하여 전투를 했다는 논점의 합리성은 낮다고 판단된다.[160] 「한국의 베트남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에서 최동주는 "베트남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미국의 우방국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성격이 민족통합을 위한 내전이었음을 이미 인정하고 자국의 안보상황이 실제로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61]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결정적인

---

157) Lê Đức Hạnh,「Quân đội Hàn Quốc trong cuộc chiến tranh xâm lược của Mỹ ở Việt Nam (1964- 1973)」, Luận văn thạc sỹ sử học,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2004. (레 득 하인, 「미국의 베트남 침략에 있어서의 한국군 (1964-1973)」, 하노이 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58) Lê Đức Hạnh, 앞 논문, 96~99면. (도 타잉 타오 미엔 (DO THANH THAO MIEN),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 전쟁 시기 (1954~1975년)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제50집, 312면에서 옮김).

159) 당시 한국의 1인당 GNP는 103달러, 수출액은 1억 1900만 달러로 필리핀이나 태국 등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후루타 모토오 지음, 박홍영 옮김, 『역사 속의 베트남전쟁』, 일조각, 2007, 185면).

160) 이에 관련된 연구들 중에 주목될 만한 연구는 김관옥의 연구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안보 취약국'이기 때문에 '안보제공국'인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또한 한국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베트남 파병을 추진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1,2차 파병에 적용할 수 있었으며 3,4차 파병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정체성이 변화해서 파병행태도 변화시켰다. 즉, '보호대상국'이었던 한국은 '지원국'으로 변화되었고 파병을 주동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김관옥,「베트남 파병정책 결정요인의 재논의」, 군사연구 제137집, 2014.)

161) 최동주,「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호, 1996, 269면.

원인이 아닌 것이다.

이데올로기적 대립과 상당히 가까운 논쟁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한국군이 베트남에 가지 않았다면 주한 미국군이 가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쟁이었다. 또한 1960년대 한국은 기존 군사력의 유지도 힘겨운 상황에 빠져 "당시 한국군 보유 무기의 70% 이상은 실전에 쓰여질 수 없는 상태로 노후화"[162]되었다. 그러므로 베트남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신무기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 경험과 신무기 조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한국군을 베트남에 보냈더라도 "미국의 군사 원조액은 현상 유지상태였고 신무기 지원계획의 이행을 계속 지연 시키면서 '주한미군의 유지'만을 거듭 표명했을 뿐이다"[163]. 또한 1960년대 초반에도 미국은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는 것"[164]으로 보고했으며 "미국의 이러한 생각을 모를 리 없었을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무리하게 베트남전 참전을 기회로 안보문제의 해결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165]. 또한 1964년 초 이후 인도차이나 사태의 악화로 인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상당히 부각했던 미국은 주한미군의 철수계획을 중지하고 한국의 안보를 책임자로서 절대적으로 저버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국과 북한이 한국의 참전에 대해 방관하지 않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미국은 "남베트남에 대한 많은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군사적 개입을 독려하지 않은 이유는 한반도의 안보적 문제가 고려되었기 때문"이었다.[166]

---

162) 김성은 장관과의 인터뷰, 1993년8월24일. (최동주,「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호, 1996, 273면에서 재인용).

163) 최동주, 앞 논문, 274면.

164) Presidential Task Force.; Briefing Paper for Visit of President Park, May 17-19, 1965, Box 256, LBJ;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165) 최동주, 앞논문, 274면.

166) "1960년대 초반 북한.중국.북베트남의 관계는 밀접했고, 따라서 미국은 남베트남에서 벌어지는 남한의 군사적 활동에 중국.북한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우려했다. 한편 북베트남정부는 남한 군사시찰단의 남베트남 시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남한이 베트남에 파병할 의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김광협 부수상은 남한의 의도가 " 조국과 인민을 반대하는 도발행동 "이라고 비난했으며, 베트남의 항미전쟁을 지지한 북한 정부는 미국과 남한의 행동을 방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케네디 행정부가 남베트남에 대한 많은 동맹국들의 군사적 지원을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군

추가로 미국의 요청과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관점을 고찰해 볼 것이다. 미국이 자국 국민들의 반대로 우방국들의 군사를 이용하여 남베트남 정부를 원조해주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국이 정식으로 한국정부에 파병을 요청하기 전에 한국정부가 이미 미국에게 여러 번 직접적으로 한국군을 베트남전에 파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167] 뿐만아니라 실제로 1972년 초기 미군이 철수를 시작했을 때도 한국군은 철수를 할 것인지 아닌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1972년부터 베트남에 남아있는 미군보다 한국군이 훨씬 더 많았다[168]. 그래서 이때부터는 미국-북 베트남 간의 전쟁이 아닌 한국-북 베트남 간의 전쟁이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었다.[169]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때문에 억지로 베트남에서 남아있게 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끝까지

사적 개입을 독려하지 않은 이유는 한반도의 안보적 문제가 고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DO THANH THAO MIEN, 앞 논문, 158면.)

167) 한국정부는 언제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일까? 1954년2월부터 3월에 걸쳐 이승만 (대통령)은 John E.Hull 주한 유엔군 사령관에게 라오스를 비롯한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렸다. 이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군의 참전은 현지에 있는 프랑스 군대의 전투사기를 높이는 데 커다란 심리적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검토한 최종 결과에서 이 제안은 거절되었다. 그 뒤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관한 이야기가 제기된 것은 1961년11월 박정희(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이다. 이때 케네디John F. Kennedy 미국 대통령은 박정희에게 남베트남 정세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박정희는 한국이 미국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케네디는 깊은 감사를 표한 뒤에 이후에 차차 검토해 나가자고 답변했다. 한편 당시 군사정권 내 제2 실력자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1962년2월 남베트남을 방문한 후 귀국해 남베트남의 전황戰況이 미국이 한국에 제출한 보고내용보다도 대단히 악화되어 있음을 박정희에게 보고했다. 같은 해 3월17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순회대사 해리먼 William A. Harriman과 비공식 회담을 한 송요찬 국무총리는 "비록 한국 내 정치, 경제, 사회적 조건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점차 악화되고 있는 남베트남에 전투 병력을 파병할 준비는 되어 있음"을 재삼 강조했다. (후루타 모토오 지음, 박홍영 옮김, 『역사 속의 베트남전쟁』, 일조각, 2007, 192-193면).

168) 1969년6월 티에우 대통령이 한국을 거쳐 미드웨이제도에서 닉슨을 만났을 때 베트남으로부터의 미군 철수가 국내에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첫 반응은 남베트남 정부가 철수를 요청할 때까지 한국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베트남 전후 복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략) 한국 정부가 결정을 미루는 동안 미군의 철수가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 실질적으로 전투를 할 수 있는 남베트남 정부의 우방군은 한국군뿐이었다. 1971년 한국군은 베트남에 있는 전체 외국군 중 21.7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했다 (미군 15만 6,800명, 한국군 4만 5,694명). 1969년 9.1퍼센트 (미군 47만 5,200명, 한국군 4만 9,755명)를 차지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1972년에는 한국군 비중이 60.5퍼센트에 이르러 미군 (2만 4,200명)보다도 더 많은 3만 7,438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박태균,「베트남전쟁 -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2015, 252~256면).

169) 박태균, 『베트남전쟁 -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출판, 2015, 256면.

남베트남에 군사를 남겼다는 든든한 논리가 될 수 있다.[170]

이러한 역사적 논거들을 선우휘의 주장들과 같이 묶어서 살펴보면 군인의 개인적 입장이든 한국정부의 집단적 입장이든 베트남을 위하여 참전한 까닭은 없었으며 참전한 군인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집단적인 정부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었다. 달리 말하자면 미국이나 이데올로기적인 객관적인 원인 때문이 아닌 한국인이 주체가 된 주관적 원인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였다. 그러므로 베트남전 참전이 그 당시에 군인 개인의 입장이든 정부의 집단입장이든 다 이익이 돼서 이 작품은 독자들의 호감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주인공의 인식과 논리들은 제시한 실제의 상황과 충돌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소설을 쓴 당사자인 선우휘가 그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것은 주목을 받을 만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어떤 작가가 역사에 관련된 문학을 창작할 때 역사적 사실과 달리 쓰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3 가지 이유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역사적 사실을 경험했더라도 의도적으로 사실과 달리 쓰게 된 것, 둘째는 사실을 모른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쓰게 된 것, 셋째는 남들을 따라서 쓰게 된 것인데 본고는 선우휘의 경우 첫째 이유에 방점을 두고 『물결은 메콩까지』를 쓴 것으로 본다.

음영철의 연구에는 선우휘의 단편소설을 통하여 작가의 현실도피와 역사의식의 부재에 대해 논해본 적이 있었다.[171] 이 연구는 선우휘 작가와 「불꽃」의 화자인 고현의 의식을 동일화시켜서 고현의 현실에 대한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작가의 은둔적인 자세를 입증하였다.

「불꽃」의 역사적 배경에는 고현 아버지의 죽음이 비롯된 3.1 운동과 그것이

170) 전투병력의 파견이 이루어지기 훨씬 전인 1964년7월 한국정부는 베트남에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라는 기구를 설립하여 한국기업과 노무자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데 정부차원에서의 협력을 기울이는 등 경제적 이득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베트남참전을 계기로 악화된 국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전쟁특수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극대화시키려는 노력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 존슨 대통령과 가진 회담의 내용을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최동주,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0, 1996, 282면.)

171) 음영철, 「선우휘 단편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6.

배태된 시대적 공간으로서의 일제 강점시기, 그 후의 해방 그리고 좌우익의 혹독한 대결이 등장한다. 다시 말해 이 소설에는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3대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나온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소설에는 한국 근현대사를 배경으로 주인공 고현의 기구한 삶의 역정이 펼쳐지는데,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다루면서 선우휘는 고현의 사상체계를 보여 준다. 이는 작가 선우휘의 작가의식이기도 하다. (중략)
현실에 대한 고현의 방관자적이긴 태도는 적당히 현실에 순응해온 작가 자신의 행적과도 관련된다. 다시 말해 역사의식이 거세된 고현의 의식 속에는 외세에 의해 침탈된 조국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국권회복의 확고한 열망이 아니라 고향과 관조적 세계에 매몰된 상태를 보여 준다. 고현을 통해 우리는 지식인의 한 전형인 냉소적이고 체념적이며 몰역사적인 은둔자의 전형을 볼 수 있다.[172]

인용문에서 보았듯이 선우휘는 현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현실에 순응하며 그 후에 당시 박정희 정부의 권력과 타협하고 결탁하여 『물결은 메콩까지』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논리를 이끌어 냈다. 『물결은 메콩 까지』에서는 지식인 남기욱과 젊은 세대를 대표한 세경의 "의욕이 없는 삶"의 모습을 군데군데 볼 수 있다. 남기욱은 "몇 년 동안 거의 죽어 살아왔다"고, "되도록 사람을 피하구, 말문을 닫구, 둘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두 거들떠보려 하지두 않"고 자신은 "흐르는 물처럼 살아올려고 했었다"라고 고백했다.(87면) 그리고 세경이 종군한 것에 대해 들었을 때 남기욱은 "별로 놀라는 기색없이 잘하셨어요"라고 말했는데 (97면) 이를 보면 힘든 현실에 지친 도피의 한 표현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다.
김종욱의 연구에 따라 『물결은 메콩까지』는 "작가 선우휘의 문학적 인생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될 필요가 있다."[173] 선우휘 작가는 1960년 전까지 사르트르의 사상에 심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966년에 발표된 『물결은 메콩까지』에서 사르트르와 갈라선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김종욱은 박정희 정부와 신문기자와의 타협에 방점을 두고 선우휘 경우를 살펴보았다. 신문기자들 역시 "진실에 접근하기보다는 권력의 요구에 순응할"[174] 뿐이었다. 박정희 정부는 그 당시 강재구 소령의 희생을

172) 음영철, 앞 논문, 93면.
173) 김종욱, 앞 논문, 357면.
174) 김종욱, 앞 논문, 361면.

이용하여 베트남 파병을 정당화하려고 했으며 이때부터 선우휘는 “베트남전쟁 파병을 정당화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175] 하면서 이 내용을 직접 『조선일보』 에 발표하였다.

> 1966년6월부터 베트남 종군을 내용으로 한 장편소설 『물결은 메콩까지』를 연재했을 뿐만 아니라, 소설 주인공의 베트남 행에 맞추어 1966년9월 하순에 베트남 퀴논 기지를 방문하고, 9월23일에 시작된 맹호 6호 작전에 직접 종군하여 신문지상에 종군기를 싣기도 한다.[176]

이때는 박정희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실행하며 신경을 썼다. 신문기자들에게 많은 특혜를 부여하였고 정부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기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1.2부분에도 언급했는데 선우휘가 그 당시 종군기자이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와 타협하여 베트남전쟁에 대해 사실대로 쓰지 않았다는 논점이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를 김종욱 연구와 같은 관점에서 살펴보면 여기서 『물결은 메콩까지』와 종군시기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즉, 박정희 정부와 타협하여 종군기자로 베트남전쟁으로 가면서 이 기회를 통하여 선우휘는 언론인으로 활동을 자연스럽게 다시 시작해서 1968년에 조선일보에 편집국장으로 복귀하였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1964년에 리영희 기자와 벌어진 사건 때문에 선우휘가 당국의 조사를 받아서 조선일보 편집국장직을 그만두고 유학을 핑계로 일본으로 떠났는데 분명히 이는 선우휘의 활동에 많은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그러던 중 일본에 있었던 선우휘가 월남 전선에 1개월 동안 종군기자로 파견되어 전투 상황을 취재했는데 선우휘는 이런 방식으로 기자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월남전 종군을 배경으로 『물결은 메콩까지』를 연재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작가의 삶에서 생긴 개인적 변모가 작품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해서 종군기든 『물결은 메콩까지』든 둘 다 권력의 통제 아래에서 창작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물결은 메콩까지』에서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선우휘의 개인 생각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힘을

175) 김종욱, 앞 논문, 364면.
176) 선우휘,「맹호 6호 작전 종군기」, 조선일보, 1966.10.13~16.

통한 작동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선우휘는 화자인 남기욱을 통하여 한국군의 참전 타당성에 대해 설득하기도 했다. 남기욱은 히틀러, 진시황, 드골과 같은 이름을 꺼내 독재자의 사명과 중요성을 증명하기에 노력했다. 독재자는 자신을 위하여 행사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행사하고 있으며 "세계의 역사를 보면 훌륭한 독재자만이 국가의 퇴세를 만회할 수 있었다" (133쪽)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을 볼 때『물결은 메콩까지』를 창작한 선우휘는 그 시점에 혹세무민한 한국정부의 권력에 유착 기생한 산물일 뿐이었다.

하지만 본고는 『물결은 메콩까지』 및 정치부 리영희 기자와의 필화사건이란 한정된 범위내에서 선우휘의 태도 및 행위를 추측할 뿐이지, 반드시 선우휘가 다른 작품이나 다른 시점에서도 이 시기와 똑같은 사고방식과 문학 취향을 일관성 있게 유지했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화가 있다. 첫째는 6.25 전쟁 중에 발생했던 사건이었다. "1950년 12월 맥아더 장군의 후퇴 명령이 내려지자 평양 시민의 남하를 저지시키기 위한 거짓 전단 작성을 지시한 헌병사령부 부사령관 김종원의 명령을 선우휘가 단호히 거절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무사히 건너게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4후퇴 때 선우휘는 육군 대위로서 서울의 언론기관의 윤전기를 파괴하라는 작전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조선일보와 같은 민족지인 동아일보에 차마 불을 지를 수가 없어 활자판만 둘러엎고 후퇴하였다."[177]

다른 사건은 그가 편집국장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다. 1964년에 선우휘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으로 발령받고 나서 '반공론으로 견제치 말라'는 사설을 싣는 등 반정부적 자세를 견지한다. 특히 박정희 정권의 '언론윤리법'에는 분연히 맞섰기도 했다. 박정희 정부는 언론윤리위원회법 강행 방침을 고수하며, 언론사 들이 이를 반대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언론윤리위원회법에 반대하던 신문사들은 8월 17일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이 언론윤리위원회법 철폐투쟁위원회에서 이탈하자 동요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 역시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다가 1964년 11월 21일, 선우휘는 이른바 조선일보 필화사건으로 정치부

177) 이익성, 앞 책, 23면.

리영희(李泳禧) 기자와 함께 구속되고, 석방 후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다. 그 후 1971년 12월부터 1980년까지 조선일보 주필을 맡았던 선우휘는 1973년에 「當局에 바라는 우리의 衷情」이라는 사설로 김대중 납치 사건의 조속한 진상 파악을 촉구하고, 당국의 "단호한 決斷"을 요청한다. 당시 유신체제의 살벌한 위협 속에서 선우휘가 언론인으로서의 기개를 잃지 않았다는 점은 특히 인상적이다.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었던 방우영(方又榮)은 『朝鮮日報와 45년』 (조선일보사, 1998)에서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내외 여론이 비등했지만 언론은 물론 어느 누구도 문제 핵심에 접근은 커녕 거론하기조차 주저했다. (…) 선우휘는 '어떤 위협에도 개의치 않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主筆로서의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후 윤전기를 세우고 社說을 갈아끼울 것을 요청했다. (…)날이 밝자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다. 情報部가 총동원돼 本紙 회수에 착수했으나 이미 신문은 독자들 손에 다 들어간 후였다. (…) 책상 위에 봉투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일생일대의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의 체면과 조선일보사의 명예를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독단전행(獨斷專行)한 소생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간결한 글귀와 함께 선우휘의 사직서가 들어있었다."[178]

다시 작품에 돌아서 선우휘가 박정희정부 권력과 야합하여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표명한 것을 논하기 전에 선우휘의 개인 사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선우휘가 『물결은 메콩까지』를 썼을 때 이런 입장을 취한 까닭이 권력과의 타협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선우휘는 월남 작가로서 반공주의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체험한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공산주의를 탈출 월남하여 "자유 남한"[179] 을 선택했다. 심지어, 한수영에 따르면 선우휘는 "소설가로서 뿐만 아니라 이른바 '강론직필'의 언론인이자 완고한 "반공 이데올로기" 작가로서도 한 시대를 풍미한 사람"[180]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반공주의자로서의 선우휘의 면모는 매우 강렬히 각인된 것이었고, 1950년대 이후의

178) 이준기,「선우휘 문학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88~289면.
179) 정주아,「두 개의 국경과 이동 (displacement)의 딜레마, 선우휘를 통해 본 월남 작가의 반공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37, 2012, 251면.
180) 한수영, 「윤리적 인간,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기원」, 실천문학, 봄호, 2001.

한국문학사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진 모습이기도 했다.”[181]
또한 선우휘는 군인이기도 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정훈 병과 장교로서 보낸 시간이 있었다. 정훈이란 것은 “정치 훈련”의 약자로 공산주의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교육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정훈 병과는 공산주의와 대적하는 정치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정치적 이념이라는 교양 선전을 목적으로 장병들의 전투의욕을 고취 상승시키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182]. 이런 배경은 분명히 선우휘의 창작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고려해서 『물결은 메콩까지』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선우휘가 『물결은 메콩까지』에서는 반공주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과 국가주의를 더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 당시 북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였고 남베트남이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한국과 동맹국이었던 상황에서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고찰하면 선우휘의 반공주의 인식이 베트남전 참전에 대해 공감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 말했듯이 선우휘는 북한에서 한국으로 월남한 후 한국의 엄청난 혼란의 연속으로 인해 방황한 경험들이 선우휘의 초기 작품에서 잘 감지될 수 있는데 『물결은 메콩 까지』가 대표적이다.
베트남전쟁 참전 초기 한국 정부와 각 개인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의지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우휘의 경우 논픽션인 종군기든 픽션인 소설이든 한국이 아름다운 사명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미지를 보여줬다. 그는『물결은 메콩까지』의 주인공인 남기욱을 국가의 입장에서 문제를 고찰한 것이었다. 물론 남기욱은 본인 스스로 지루한 삶과 무의미한 화평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국가의 한 국민이라는 것도 잘 인식해서 국가의 부름에 잘 답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나라없는” 세경이나 반전운동가인 김석이란 인물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논점을 제시했고 심지어 본인이 말한 논점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정당한 참전 동기를 결코 부인하지 않았다.

181) 서세림,「선우휘 소설에 나타난 연대의 성격」, 현대소설연구 67, 2017, 390~391면.
182) 이익성, 앞 책, 23면.

3. 1970~1980년대: 국가의 반공주의 정신에서 벗어난 개인

3.1. 낭만과 현실의 갈등

한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시기에 한국인 중 위시호의「한국-맹호들은 간다」[183] 라는 군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이 노래는 파월병사들을 응원 격려하고 그들이 국가와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 본인의 목숨을 걸고 기꺼이 간다는 의지를 담은 노래이다. 그때 파월장병으로 참전한다는 것은 위대한 행동으로 젊은 사람들이 반공주의의 거대한 이상을 펼치기 위해 파병에 자원해서 입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 당시엔 맹호부대 장병들을 비롯해서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국군 대부분이 자신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자유를 수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영웅적인 용사로서 전쟁을 낭만적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정신은 박영한이 창작한 장편소설『머나먼 쏭바강』에서도 잘 볼 수 있다. 주인공인 황일천 병장이 처음에는 이상적인 몽상을 구현하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자원 종군한다고 했는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 임했을 때도 과연 전쟁을 낭만적으로 볼 수 있었던가? 그리고 황일천이 상상한 몽상의 근원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또한 그 근원 외에 또 다른 까닭이 존재하고 있었던가? 한국 정부와 한국 군인들이 다 베트남의 이상적인 화평을 위해 전투를 한 것인가? 아니면 이 참전 행동 뒤에 어떤 사실을 일부러 숨기고 있었던가? 본고는 이를 밝히기 위하여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을 고찰할 것이다.

이 소설은 백마부대 보병으로 참전했던 박영한이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1977년에 발표하였다. 『머나먼 쏭바강』은 베트남전에 참가한 한국군 부대 가운데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맹호부대에 이어 마지막으로 1966년에 파병된 백마부대의 소총수인 황일천 병장이 베트남에서 겪은 다양한 체험을 다룬 장편소설이다. 황일천 병장은 대학교에 다니다가 파월 한국군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 베트남에서 용감하게 전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른 동료들처럼 낭만적인 꿈을 꾸었다. 그 꿈은 바로 베트남 정글에 가서 선배들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장한 삶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몽상이었다.

---

183) 작사- 유호, 작곡- 이희목,「한국-맹호들은 간다」한국의 육군 군가,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맹호부대가, 1966.

그런 낭만적인 꿈을 품고 베트남에 갔다가 죽음과 고통과 지루함이 계속되는 잔인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황병장은 비로소 전쟁의 본질을 깨달았다. 베트남에 가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전쟁을 체험하면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던 황일천 병장이 그제서야 전쟁이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중요한 발견은 바로 전쟁이 사랑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일천 병장이 베트남에서 외롭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가 무의미한 전쟁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바로 베트남 여자인 빅뚜이와의 연애관계였다. 하지만 그 관계는 전장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결말이 될 수 없는 사랑이었다. 빅뚜이 가족이 북베트남 정부편을 따랐기 때문에 남베트남 연합군이 그녀의 오빠를 죽였는데 소설의 결말은 황일천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면서 빅뚜이와의 사랑은 베트남 땅에 영원히 아픈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이 소설에 대한 평가는 황일천이 베트남 여자인 빅뚜이와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불가능한 남녀간의 사랑과 황일천의 베트남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그런데 많은 견해에 따르면 『머나먼 쏭바강』은 단지 낭만적인 연애 이야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적으로 볼 때 베트남전에 대해 쓴 많지 않은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은 대표작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첫째는 베트남 전쟁터를 공간적 배경으로 택하여 창작된 작품, 둘째는 박영한 작가가 월남전 체험을 통하여 이 소설을 썼다는 사실, 셋째는 전투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화자가 다른 인물들과의 대화나 독백 장면들을 통해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자기 생각과 단체적인 입장에서의 한국군의 생각을 잘 드러낸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주인공 황일천이 참전한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그 시기의 많은 한국군처럼 대학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자원하여 파월부대에 입대해서 베트남으로 갔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젊은 대학생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멀고 낯선 나라에 가서 어쩌다가 국가적인 '용사'가 되었다. 황일천은 빅뚜이와의 대화에서 "한국군은 나쁘지 않다. 전쟁 중이라 조금 거칠어져 있을 뿐이다" (18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황은 당면한 시대의 아픔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였고 전쟁의 죄악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전쟁이 인간을 생사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살아남아야 되기때문에 적군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전쟁은 착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거친 사람으로 만들었고 사람이 억지로라도 변해야 전쟁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어떤 입장으로 전쟁에 참전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참전 입장에 따라 침략전쟁인지 자위전쟁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 적과 싸우다 죽게 되면 그것이 용맹스러운 희생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있다. 그러면 전쟁의 근원을 어디서부터 봐야 될 것인가? 어떤 경우는 한 나라의 전체 국민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전쟁이 일어난 반면에 어떤 경우는 정부의 의지에만 의존해서 전쟁이 일어났다. 제2장 2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국민의 반전운동을 막기 위해서 동맹국인 한국에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언론통제 정책을 강력히 실행하여 국민의 사상을 통제했고 선우휘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를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은 정부의 의도대로 참전을 청춘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낭만적인 시각으로 떠올렸다. 그러나 막상 전쟁터에 실제로 가게 되면 이전에 상상했던 모든 몽상들은 다 깨어지고 남아있는 것은 비참함과 지루함과 괴로움 밖에 없었다. 박영한은 『머나먼 쏭바강』에서 싸움이나 돌격장면을 흔하지 않게 표출했는데 황일천의 과거 회상과 현실 교차를 통해서 화자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알게 될 것이다. 우선 황이 상상했던 전쟁과 현실의 삶에 나타나는 전쟁을 어떻게 느꼈는지 다음 인용문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 월남전의 파병 소식이 전해진 건 대학 1학년 때였어. 군에 먼저 입대했던 동료와 선배들로부터, 용감무쌍한 청룡.맹호의 일원으로 정글에 왔노라 하는 제법 의기만만한 편지들을 받고서, 공연히 마음이 들떠 월남땅을 동경했댔지. 우린 교정의 잔디밭에 누워서 동료와 선배들의 전쟁을 입에 떠올렸지. 그때 전쟁은 비참하고 엿같기는 커녕, 무언가 용감하고 영웅적이고 근사한 것이었지. 장렬한 전사거나 호쾌한 승리… 서부영화의 멋진 한 장면쯤으로 상상했댔어. 잔디에 누워서 우리가 상상했던 전쟁은, 그때 너무 추상적이고 낭만적이었어. (55쪽)

「한국-맹호들은 간다」의 군가처럼 이 인용문에서도 한국 국민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볼 수 있다. 1960년대 “베트남 파병 당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역사상 최초의 해외파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파병 당사자들 또한 젊은이의 낭만을 지닌 자유수호의 용사라는 국가의 공식적 담론을 의심하지 않았다.”[184] 실제로 참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정부 내부와 군인 내부에 존재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트남에 1차 전투부대를 파병할 당시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1965년 8월 13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파병동의안이 찬성 101표로 통과되었다[185]. 그러나 모든 야당 의원들이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당시 민중당의 조윤형과 김준연은 적극적으로 찬성론을 펼쳤다. 군인의 경우에서도 소수의 탈영자들이 존재했지만 이러한 흐름은 안보와 경제를 강조하는 정부의 파병불가피론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다.[186] 그 후 1970년대에 들어와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한국정부는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공과 자유와 평화를 용감하게 수호하자는 구실로 국민들을 세뇌시켜서 자원병들이 이전보다 훨씬 늘어났다.[187] 따라서 많은 청년들이 이때 참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

184) 이평전,「베트남전쟁 소설에 나타난 ‘신성’과 ‘폭력’ 인식론적 기원 연구」, 영주어문, 2019, 203면.

185) 조희연,『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2007, 83면.

186) 베트남전쟁 파병을 거부하여 군부대에서 탈영한 사례로 김동희라는 병역거부자가 존재한다. 그는 일본으로 밀항한 뒤 1년 간 투옥되었다가 일본정부가 망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북한으로 갔다고 알려졌다. (和田春樹,「일·한 연대운동의 사상과 궤적」, 백영서 역, 창작과 비평 61호, 1988, 329면). (강유인화,「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사회와 역사 제97집, 2013, 4면에서 재인용).

187) 1970년대의 분위기와 달리 1960년대에는 징병제도를 강화해서 베트남전쟁에 파병하기 위해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여러가지로 징집정책을 강화했다. 1965년 1월 국회의 외무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베트남에 파병할 군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논의되었는데 야당은 민간인 중에서 파병을 원하는 사람을 의용군으로 보낼 것을 제의했다. 이 파견안은 결국 부결되었지만 의용군 파견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곧 한국군의 규모를 증강시킬 의지가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데 1967녀부터 본격적으로 징병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진다. 국방부는 현역병 대신 11.126명의 민간인 군속을 선발했고, 아직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21세 이상 30세 이하의 제1 국민역 청년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병 작업에 들어갔다. 동시에 새로운 징병 지침도 내려졌다. 주로 징병 기피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자수를 하고 지원서를 제출하면 입영의 길을 열어주던 이전의 방침을 바꾸어서 기피자를 모조리 고발하여 형사책임을 물은 뒤에 입영시키는 강경한 방침으로 돌아섰다. 1968년에 들어서는 대학생들에 대한 징집을 강화해서 입영 연기 처분을 받지 않은 24세 이상의 학생들에 대한 징집을 실행하고 장기 휴학자들에게도 징집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공군의 경우에는 예비역을 동원하기로 결정해서

진정한 영웅으로 인생의 낭만적인 꿈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전쟁터란 곳은 휴머니즘과는 거리가 먼 땅으로 리얼리즘의 현실적인 일들만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한국정부가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키운 추상적인 상상들이 처절한 전쟁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한국군은 자신이 처한 대조적인 상황 앞에서 당연히 환멸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탐색해 보면 전쟁의 잔인한 리얼리티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지금은 뭔가? 말로만 듣던 정글? 그 정글은 잡초더미, 이름모를 짐승들의 우짖음, 가시나무, 땀, 습진, 말라리아, 거머리와 따끔하고 지랄같이 엉겨붙는 불개미들. 그뿐인가. 우리가 가시나무를 헤치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정글을 헤맬 동안, 우리들 고생을 비웃으며 이루어지고 있는 상부의 공팔… 생각하면 허무할 뿐이었지.
>
> 기다림이 이 전쟁의 특징이었어.
>
>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매복호에 웅크려 불편을 참으면서, 맹렬한 폭염이 어서 지나가 주길 기다리고, 스코올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VC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열흘간이나 세수 한 번 못한 채, 입안은 타들어 가는 갈증, 헬리콥터의 물 공수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
> 체질에 받지 않는 양키이들의 고기를 씹으면서 LZ (Landing Zone)나 PZ(pickup zone)에서, 또는 투이호아의 군사비행장에서, 도깨비부대의 그 허허롭던 노천극장에서… 중대장 대대장의 출동 명령을 기다리고, 고국에서 실려 올 몇 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
> 지루하며 뒷골이 찌일 쑤시는 이건 아니다라고 천만번되뇌이고, 목이 마르다 못해, 목에 걸고 있던 타올을 짜서 땀방울로 입을 적시며, 이 미칠 듯한 갈증은 아니다. 정글 속에서, 장단지를 찌르는 이 가시덤불은 아니다. 사타구니에 척척 감겨드는 이 정글복의 감촉은 아니다. 꼴랑이깡통과 미이트 볼 (Meat ball)의 이 역겹고 들큼한 맛은 아니다.
>
> 내일, 내일은 전쟁의 모습이 달라지리라. 좀 더 자극적이고 쾌적한, 스코올 같은 일전이 있을 거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태양열에 썩어 가는 이 늪의 시간들은 아니다. 내일은 좋은 삶이 있다… 그러다 황은 고국에서도 역시 지루한 시간이 있었다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55~56쪽.)

1963년 이후 제대한 병사들에 대한 동원이 계획되었는데 이는 베트남전쟁으로 인하여 증가된 군인 수를 채우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후에도 징병제도는 평가 제도의 개선, 정밀 신체검사의 실시, 방위병 제도의 실시, 의가사 제대에 대한 통제 강화 등으로 계속 강화되었다. (박태균, 「1960년대 중반 안보 위기와 제2경제론」, 역사비평 72호, 2005에서 참고)

화자 황일천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환경을 주관적인 개인 입장으로 들어냄으로써 본 스토리에 대한 믿음이 든든하게 될 것이다. 이 소설에서 박영한이 “우린 놈들의 낯짝을 본 일도 없으며, 이를 갈고 놈들을 미워해 본 적도 없었”(69쪽) 다고 말한 것처럼, 적과 전투를 해서 사망하는 장면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전쟁에 대한 견해를 혼잣말과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장면은 적과의 실제 전투 장면보다 현실의 지루함과 우울함을 두 배 이상 보여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에 대해 말하면 바로 떠올리는 장면이 죽음이나 전투나 싸움이나 원망 등인데 박영한은 이러한 일반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전쟁을 묘사하지 않고 화자가 경험한 과거와 현재의 교차를 통하여 이전과 대립적인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악랄한 행동적인 장면이 아닌 혼자 있거나 둘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각색하는 게 고독과 우울이 더 강하게 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영한은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군기에 나온 사건과 아주 대립적이다. 베트콩과 실제로 싸우는 전투 대신에 지루한 일과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것처럼 남베트남 농촌지역을 평정하는데 주력한 한국군은 베트콩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남베트남정부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마을에 들어가서 양민들을 진압했다. 한국군이 마을에 들어가서 죄없고 연약한 양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는데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군의 총 아래에 쓰러진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황일천이 전쟁때문에 한국군이 거칠어져서 그랬을 거라고 한 말은 아무리 선의로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감하기가 어렵다. 황일천의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국가가 집단적으로 개입된 전쟁에서 개인적 군인(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 전쟁은 국가가 주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참여는 단순히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머나먼 쏭바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다.

다른 장면에서 전쟁을 낭만적이고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황은 “한 번 신나게 살아보고 죽자”(93쪽) 라고 쉽게 생각했다. 이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할 정도로 순진한 생각이었다. 끊임없이 궁금했던 미지의

땅을 그려보면서 “도대체 전쟁터란 어떤 데냐? 거기 가서 내 삶이 얼마나 빛나며 쓰러지나, 한 번 구경이라도 하고 죽어도 되고” “장기복역수가 철장을 나서는 순간 느껴보는 그 눈부신 햇살의 의미를 나도 한 번 껴안아보”(93쪽) 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몽상을 품고 떠난 정글에서 결국 인생의 가장 비장한 날들은 오지 않았고 그 대신 “작열하는 태양과 뜨거운 바람”(85쪽)을 맞아 “지루하고 뭣 같은 나라”(344쪽)를 탈출하고 싶을 뿐이었다.

> 작전지역에서의 진저리나던 1주야들, 입안의 구린내와 사타구니의 습진, 정글화 속까지 기어드는 거머리, 전갈과 말라리아, 죽창에 묻힌 물소똥, 살점을 물어뜯는 불개미와 각다귀들, D-1일 밤의 우울한 회식… 이 모든 기억들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 그들은 자원파월이 절반 이상이었으나, 이젠 이 진저리나게 쪄대는 나라에서 한시 바삐 달아나 버리고 싶은 자가 대부분이었다. 무엇을 누구를 위해 총을 들고 싸워야 했던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 모두들 심드렁해져서 입을 다물고 있는 판국인데, 모자를 비뚜름히 내려꽂고, 총을 거꾸로 꼬나잡은 자 하나가 하품을 하며 일어섰다. 목과 가슴이 두껍고, 딱 바라진 자였다. 더훌백들 사이에 고개를 처박고 졸다가 깨어난 그자의 눈은 벌갰고, 모두들 하나같이 고릴라를 그 순간 떠올리고 있었다. 그자가 아무데나 침을 찍찍 뿌리며 떠들었다. (85쪽)

영광스러운 청춘을 만들기 위한 희망은 결국 암울한 현실에서 황을 실망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베트남에 가서 인생의 처절한 경험을 하며 비참하게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한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황이 한국에 있을 때도 삶의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판단된다. 하지만 베트남에 가서 본인이 잘 모르는 모호한 이상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전투를 한다는 것은 리얼리티적인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모국에서의 “의욕없는”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베트남까지 왔는데 또 다른 지루하고 힘겨운 리얼리티에 직면하여 또 다시 탈출하고 싶은 것 뿐이다. 이 참전 동기에 대해 논할 때 유철상은“작가 박영한은 자신이 베트남전쟁에 자원하여 참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188]고 말하면서 모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보람있게

188) 유철상,「활면의 전쟁과 관찰자의 시선 박영한의 베트남 전쟁 소설」, 현대소설연구, 57호, 2014, 92면.

살고 싶어서 참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영한 작가는 이 문제를 황일천을 통해서 표출했는데 그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참전목적 은 한국 젊은이들이 정부의 선전을 믿고 추상적인 몽상을 순진하게 추구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본고는 한국군의 참전동기 중 한국정부의 총동원 정책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분명히 이 까닭 외에 다른 요인도 존재한 것으로 본다. 정부입장에서 참전을 독려하려고 정의를 위한 전투라고 선전했지만 그때 한국은 모든 면에서 빈곤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한국이 전쟁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되어 국민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먹이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몽상을 구현하는 걸 우선적으로 볼 사람은 없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한국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사유 중에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면 분명히 군인 개인의 입장에서도 본인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기대하고 입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가난한 가족들의 현실 앞에서 그들의 삶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피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영한은 이익문제를 많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이익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 어떤 한 장면에서 한 중위가 부하에게 월남에 더 미련이 있느냐 물어봤을 때 “딸라를 더 벌구 싶어졌단 말이지?”(345쪽)라고 말했다. 이 장면은 박영한의 솔직한 태도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 소설에서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남베트남 현지인과 남베트남군, 미국군까지도 인물로 등장한다. 박영한은 이런 인물들의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한국군의 대표적인 인물인 황일천의 입장 외에 베트남전에 직간접적으로 관계한 사람들의 태도까지도 들춰냈다. 이를 통해 베트남전쟁에 대한 시각을 다양화시키고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미군의 입장을 다음 인용문에서 고찰할 것이다.

-넌 이 전쟁에서 이길 걸 바라느냐?
-관심 없어졌다…기분이나 내고 돌아가는 수밖에. 잘난 체 해봐야 별볼일…
-월남의 처지가 불쌍하다고 생각치 않느냐, 심프슨?
-웃기지 말라고 그래라. 구욱 (월남인을 깔보아서 부르는 말) 들이라….
한쪽에선 뻥뻥 터지고 있는데, 한쪽에선 마구 퍼마시고 주물르며 춤이나 추고

돌아가고 있다. 난 보상휴가를 받아 사이공엘 다녀온 적이 있는데, 레 러이 거리에 가 보라. 개판이야. 거기 블랙마키트는 국제적이지. 마카오랑 맞먹을 거야. 난 처음엔 대의명분을 위해서 여길 온 것으로 착각했지만, 이젠 관광차 온 거라는 게 확실해졌어… 전쟁의 목적 속엔 휴매니티란 건 없어. 미국은 월남전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다. (33쪽)

한국군의 동맹군인 미군은 미국정부의 전쟁 참전목적을 스스로 말했다. 미국이 "사회주의 팽창 방지", "세계질서 유지", "통일한 베트남"을 위하여 끊임없이 남베트남을 응원해주고 있다는 선포들은 위 텍스트와 대립적이다. 미국 국내에서도 이런 황당한 논리들이 이슬로 사라졌고 『머나먼 쏭바강』으로 한국 국민들도 미국 국민들처럼 베트남전쟁의 경제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 여기서 박영한 작가는 개인의 경제적 목적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국가의 이상이란 점을 여러 번 강조하고 미국인의 말을 통해서도 경제적인 참전 목적을 다시 언급했지만 이때도 국가가 원했던 목적으로 표출했다. 국가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국민(또는 개인적인 군인)을 동원한 사실을 군인들이 전쟁터에 도착해서 전쟁의 처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것들이 모국에서 들었던 것과 대립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이 정부(국가)로부터 속았다는 것을 표출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군인들은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참전한 목적을 소멸시킬 수 있고 동시에 국가의 속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베트남전쟁터에 가서 피해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황일천은 스스로 모순된 생각에 빠지면서 여러 장면에서 스스로 자문하며 국가입장에서 생각하기도 했고 정부가 선전했던 것에서 타당성을 찾아 정부의 목적을 이해해주고 싶은 태도를 보여줬다. 황일천은 매우 힘든 상황에 빠질 경우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서라도 항상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마음을 표출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장면들에서 황일천은 항상 피해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즉, 개인의 이익은 조금만 언급하고 나머지 내용은 다 정부때문에 참전했다며 끝까지 정부와 국가를 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런 형식으로 황일천은 본인의 참전목적이 본인의 이익보다 항상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관한 책임을 다 국가에게 던져주고 본인의 책임을 소멸시켰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아 황일천, 너는 너무 불평만 하고 있구나. 이 땅에 와서 너는 그래도

고기맛을 보았으며, 그런 것 말고도 때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지 않았느냐? 너는 돼먹지 못한, 흔해 빠진 소소한 졸병에 불과하구나. 사실이지, 여기 와서 제대로 만족해 있는 자가 어딨느냐? 너를 후린 상사는 대위 앞에서 쩔쩔매며 뛰고, 대위는 대대장 앞에서, 대대장은 연대장 앞에서 절절 기며 불만을 툴툴거릴 게 아니냐. 손해만 보며 언제나 당했다고만 생각하는 너의 태도는 옳지 않다. 너의 입장보다 하등 나을 것도 없는 네 나라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불평만 해선 안될 것이다. 네가 어렵다면 네 나라도 어려운 것이 아닐까… 네 정부는 공장주에게 가서 사정하여, 얼마나 어렵게 너희네 몫을 타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미군 GI가 받는 목숨수당이 기백 $이고 네것이 50$이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것은 너의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도였다.(95쪽)

황일천은 자신이 꿈꾸었던 멋진 군인의 몽상을 살리려고 노력하였고 지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을 스스로 지적했다. 황은 일반적인 인간 감정과 애국심 사이에서 소통이 막혔다. 그러므로 황의 머릿속에는 항상 양극 상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한국에서 키웠던 몽상적인 믿음이고 하나는 베트남전쟁터에서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직접 듣는 지루한 현실이다. 이 양극의 심리 상태에서 황이 큰 고민에 빠진 채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데 자신이 변명하고 있는 논리도 믿을 수 없었다. 황일천은 정부든 본인이든 다 “최선의 방도”라고 변명하며 의도적으로 이런 논리를 붙잡고 싶었다. 그래서 끝까지 황일천은 참전군인이 국가를 위해 참전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본인의 책임을 없애 버렸다. 특히, 소설에서 황과 사랑에 빠진 베트남 여자 빅뚜이란 인물도 등장한다. 두 사람의 행복하지 못한 결말은 전쟁의 죄악을 보여주고 동시에 개인들이 누구든지 다 전쟁의 피해자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여줬다. 이 사랑의 결말은 이별이며 ‘전쟁의 목적 속엔 휴매니티란 건 없다’ 라는 말처럼 낭만적인 연애는 존재할 수 없다. 전쟁때문에 황이 바라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랑하는 여자와도 동행할 수 없었다. 더 나아가 황일병이 몽상→사랑→현실의 악순환에서 본인이 나갈 길을 열심히 찾았지만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가 상상과 현실의 대립성을 절감하면서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지만 국가가 수여한 훈장을 목에 멘 것처럼 정부가 위탁해준 임무를 포기할 수 없었다. 여기서 황은 이 전쟁이 부당하더라도 개인 일이 아닌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훈장제도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득을 보는 자가 간혹 있긴 했다. 이를테면 연대 상벌계놈이, 당연히 훈장이 돌아가야 할 장병의 명단을 쥐고 수상한 장난을 한다거나, 훈장상신서를 묵은 서류설합 속에 쑤셔박아 놓고 날짜를 끌면서 돈을 울궈내고 골탕을 먹이는… 작전지구에서 고생한 장병은 이 사실에 분개하곤 하지만, 상대가 상급부대라 처분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왕왕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작전을 몸소 지휘한 연대장이나 사단장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노발대발할 게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지휘관의 손이 구석구석까지 미칠 순 없는 노릇이었다.
훈장을 탔다니까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난 듯 과장되게 떠벌이는 경향은, 그러므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 실제로 정글에서 고생을 한 사람에겐 오히려 그것은 모욕에 가까운 것이며, 고생한 대가 이상으로 칭찬받기를 바라는 장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어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103쪽)

황일천은 훈장은 형식적인 것이라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훈장을 받는 것 자체도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다. 국가가 메어준 귀중한 훈장을 받는데 이왕이면 전투에서 이겨야 된다는 사명감을 같이 불러온다. 전쟁의 본질을 잘 깨닫게 된 황은 훈장을 받으면서 민망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소설에는 북베트남과의 전투장면이나 북베트남 군인에 대한 스토리는 거의 없고 오히려 미국군에 대한 장면을 여기저기 배치해 놓았는데 황은 미군이 죄없는 민간인들에게 자행하는 만행을 직접 지켜보면서 미군 또는 베트남전쟁에 대한 생각을 표출했다.

다반 강변의 고구마밭에서 본 그 젊은 월남여자의 허벅지가 떠올랐고, 그 오래된 살덩이에서도 썩은 쇠고기 냄새가 나던 것을 황은 기억하고 있었다.
그건 미군들이 버리고 간 살덩이였었다. 얼마전 화염방사기를 내쏘며 게릴라들과 한 판 접전을 벌이고 간 미군의 쎅터를, 황의 중대는 지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었다. 아람드리 나무들이 꺼멓게 타서 죽어 넘어져 있었으며, 화전민들의 초가들도 흙벽과 기둥들만 남기고 깨끗하게 불타서 주저앉아 있었다. 포격이 아닌, 그 무서운 화력을 자랑하는 화염방사기의 무차별 난사임에 틀림없었다. (28쪽)

황일병이 동맹군이 자행한 학살현장을 직접 목격한 장면을 박영한이 문장으로 자세히 묘사하여 동맹군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황과 다른 동맹군에게는 베트남전쟁이 정부의 선언과 다르게 보이고 있는데 그들은 전쟁을 바로 기능공이 일하는 “공장”으로

묘사한다. 이 “공장”에선 모든 군인들이 기능공처럼 전투를 하고 명령대로 땅을 지키는데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싸우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그때 내가 사랑하려 했던 삶이란, 활활 타오르며 뜨겁고, 젊고, 발바닥에 땀나는,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쁜 그런 거였어… 적어도 전쟁이란 이 특수상황은, 내게 어느 정도는 그런 삶을 베풀어 주리라. 깜깜한 바다나 지켜보며 세월을 기다리다가, 병신같이 미끄러져 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한번 값지게 살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허지만 웬걸? 착각이었어. 허깨비를 좇았던 거지. 천진난만한 소년이, 강 건너 불을 바라보며 아주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었어.
나는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던 것이다. 북 치고 장구 치며 떠들썩했던 신문에게, 여기는 야자수가 있고 낭만이 있고 전우애가 있다고 편지를 보낸 그 돼먹지 않는 자식들에게.
대체 여기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태양, 늘어진 야자수, 시애스터라고 불리우는 그 맥빠져 자빠진 게으른 낮잠, 레이션박스가 널브러져 있고, 물소떼가 느리게 지나가며, 털갈이하는 짐승의 등어리처럼 살풍경한 들판… 거기다 뜻없이 저질러 본 소소한 전투행위, 뭐 그런 따위지.
전쟁이 허무맹랑하다는 건, 엄청난 물량을 뿜내며 우릉우릉 지나가는 저 미군차량들이 잘 말해 주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이 땅에가 쵸컬릿에서부터 전투기애 이르기까지, 엄청난 물량공세를 펴고 있다. 내가 핥고 있는 건 그 찌꺼기일 뿐이다. 소총을 떨렁대며 상관의 군홧발에 이리 부대끼고 저리 부대껴 온 나란, 참 허무맹랑한 존재였어. 기껏,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진 월남전이라는 공장에서, 나사 끼우는 작업만 배당받은 한 기능공에 불과했어. 미국은 이 거대한 공장의 10층이거나 15층의 관리실에 점잖게 앉아 있지.
우리 조원들은 그들이 만지는 버턴의 지시에 따라 얌전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돼… 이와 비슷한 기분은 정글 속에서도 맛보았지. 내가 땀을 삘삘거리고 온몸에 상채기를 입으며 기를 쓰고 뚫고 나간 그 고통스런 20~30㎞란, 작전지도의 좌표에선 고작 눈금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니 결국 그 1㎜를 위해 내 온 삶을 던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휘봉을 쥔 자의 짤막한 한마디에 따라 내 목숨이 처리될 수 있다는 것…
기능공들을 한 공장에다 몰아넣고, 나사 끼우는 작업만 밤낮주야로 시켜보라. 단순해지고 단순해져서, 나중엔 생각할 기능마저 잃어버린다. 그리고 그 기능공들은 끝내, 무엇을 위해 나사를 끼웠던지, 자신이 나사를 끼워 준 그 물체가 자동차가 될지 비행기가 될지조차 모르게 된다. 보라… 낯선 월남여인을 가운데 놓고, 멋모르고 낄낄대는 이 한국군들을. 무엇을 위해 싸웠던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 그저 주는 대로 쑤셔먹고, 시키는 대로 좇아갈 뿐이다.
내가 바라던 삶은 적어도 그런 건 아니었다. 내 손으로 만져 보고, 뜨거움을

> 느껴 보며, 틀림없이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시키는 대로 쏘면 편하다는 것, 그 것은 오히려 고통이었지. 그럴 양이면 밤새껏 막걸리나 퍼마시며, 오바이트나 하고, 아튼날 벌건 눈으로 태양을 맞으며 학교로 기어드는 생활과 뭐 다를 게 있느냐. 그러니 네가 바라는 삶이란 애초부터, 바다 건너 저쪽에도, 월남지도의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93~94쪽)

황은 본인이 월남 땅에서 기대했던 삶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그는 베트남 땅은 베트남사람의 땅이고 베트남의 화평을 위해서 베트남사람이 일어나서 지켜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소설에서 살펴보면 그는 베트남사람이 베트남 땅의 주인이고 베트남군인들은 베트남여자도 보호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황은 전쟁에서 전투를 하고 있는 군인의 입장에서 벗어나 순수한 민간인으로서 생각하는 다면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박영한은 황일천의 이미지를 대립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로 만들지 않고 직접 목격한 사건을 통하여 상상한 것과 현실에 일어난 것의 대립적인 성격을 보여줄 뿐이다. 즉, 황일천은 어떤 선언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의 충돌들을 다시 서술하기만 했다.

> 당신들이야말로 이 땅의 주인이며, 저 아름다운 여자는 당신들의 누이거나 애인일 것이며, 당신들이야말로 빼앗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아껴 줄 권리가 있다…(106쪽)

마지막으로 황은 베트남과 한국의 상황이 유사한 것으로 본다. 한국사람들이 외세인 일본군에 속아 살았다면 베트남사람은 프랑스식민 또한 봉건제도에 속아 살았다. 황은 국가를 잃은 사람의 입장에서 베트남사람에게 공감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황일천도 『물결은 메콩까지』의 남기욱처럼 동감하는 마음까지만 표시했을 뿐이지 결국 “최선의 방도”라고 변명을 할 때 국가의 그림자 속에 본인 개인의 목적을 소멸시켰다. 자신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의욕없는 한국사회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간 이유를 언급했지만 결국 국가의 이상을 가장 중요한 참전 요인으로 말했다. 이를 통해서 베트남전쟁에서 실망한 한국군이 국가의 책임을 물었고 동시에 본인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공감을 구하며 전쟁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부인하게 되었다.

박영한의 작품을 1960년대의 작품과 비교해 보면 군인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변했고 정부의 부정한 참전목적을 지적했지만 아직 1960년대에 나타난 특징을 갖고 있어서 한국군인들이 국가의 이름으로 참전했다며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그리고 이러한 변모는 객관적인 요소와 주관적인 요소로 구분된다. 박영한은 이 작품에서 전쟁에 대한 솔직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작가는 영웅적이고 추상적인 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종군하고 싶은 황일천부터 전쟁의 잔인한 현실을 제대로 경험하고 전쟁의 본질을 깨달은 황일천까지 황일병의 인식이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잘 그렸다. 이 작품은 1977년에 발표되어 독자의 호응을 상당히 받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작가 박영한은 왜 이렇게 썼는가? 에 대해 몇 가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김주현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에 간행된 특파원 수기와 소수의 참전군인 수기를 대상으로 월남전 서사의 구성원리와 문학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189]했고 "종군 기자와 참전 군인으로 나누는 이유는 이들이 파월 수기를 생산한 주체들이면서, 기자(특파원)와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연유하는 시선의 차이가 수기에 반영"[190]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한다. 그때 박영한 작가는 대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다가 파월군인으로 자원해서 참전했다. 따라서 박영한의 입장으로 보면 선우휘 같은 기자와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 또 박영한은 경상남도 합천에서 출생하여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공장 및 부두 노동자, 거리의 악사 등을 해야 할 만큼 청년시절이 어려웠다. 그래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1970년 3월 4일 (당시 24세) 베트남전에 자원입대하여 백마부대 29연대에 배속되었다. "박영한은 이때부터 1972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약 25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군복무 생활을 하게 되는데, 훗날 이 참전 경험을 되살려 작품으로 형상화하기 시작한다."[191] 그 결과 작가가 젊은 시절에 경험한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머나먼 쏭바강』이 1977년에 당선작품으로 발표되어 이 작품을 읽는 "독자들 역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게"[192]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설 속에 재현된 모든 사건들의 신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또한, 박영한이

189) 김주현,「월남전 서사의 구성 원리와 문학적 영향 파월 수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57, 2014, 278면.
190) 김주현, 앞 논문, 278면.
191) 유철상, 앞 논문, 89면.
192) 유철상, 앞 논문, 90면.

『머나먼 쏭바강』을 창작품으로 발표한 시점이 그가 연세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한 시점과 같은데 이때는 박영한이 순수 졸업생으로 어떤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본인의 체험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다시 재현했을 것이다. 이처럼 박영한의 출신배경을 보면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는 것과 그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거쳐서 자원으로 전쟁에 참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박영한은 "부모형제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멀리 정글까지 가서 고생했다는 것을 쉽게 공감할 수 있다. 또한 파월에 자원했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몽상을 실현하기 위해 빛나게 전투하고 죽어도 될 만큼의 용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막상 베트남에 가자마자 가기 전에 상상한 것과 전혀 다른 처절한 현실과 계속 직면하면서 전쟁의 본질을 깨닫게 된 심리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해되는데 이는 독자들이 박영한의 텍스트를 보면 더 확실히 믿게 될 수밖에 없다. 1960년대의 작품과 비교해 볼 때 군인의 인식이 변해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1960년대에 나타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는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고명철이 언급해본 적이 있다.

> 1970년대에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소설을 쓴 작가로는 박영한이 외에도 송영, 신상웅, 송기원, 황석영 등이 있다. 물론 이들 작가의 작품들이 모두 동일한 심급에서 베트남전쟁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지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전쟁 참전의 문학적 형상화는 황석영.박영한의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거의 '삽화'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작가들마다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작가들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러한 역사적 인식을 가로막는 1970년대 유신체제의 정치적 억압에서 비롯되었다. 때문에 이 시기에 씌어진 작품들인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의 실상을 파헤치지도 못하고 있고,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우리의 입장 역시 정치하게 탐구되고 있지는 못하다.[193]

베트남전쟁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아직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타국에 관련된 이야기를 등단 작품으로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베트남전에 관한 박영한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런지 원래 700매로

193) 고명철, 「베트남전쟁 소설,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 『칼날 위에 서다』, 실천문학사, 2005, 236면.

중편소설에 불과했던 이 작품이 1년 후에 1700매로 개작되어서 장편소설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머나먼 쏭바강』의 후작까지 발표했는데 바로 장편소설 『인간의 새벽』 (1980)이다. 『머나먼 쏭바강』처럼 이 후작에서는 박영한이 서술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기본적인 사실들만 기록하는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인간의 새벽』에서 박영한은 사이공의 함락을 둘러싼 넉 달간의 기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하여 주인공인 황일천의 낭만적인 내적 각성 과정을 그려낸 대신 베트남전쟁의 다층적인 특징을 보여주었다.

박영한 작가는 베트남전쟁을 낭만적인 시각으로 묘사 하여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표적 인식을 보여줬다. 그런데 낭만적인 양상을 선택하는 대신 현실에 치중하여 드러난 현상을 소재로 창작한 작가도 있는데 바로 신상웅 작가다. 그는 박영한처럼 베트남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변고적 시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다 문학에 담았는데 그 중에 베트남전쟁이란 양상도 나왔다. 하지만 신상웅이란 이름이 바로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작가가 베트남전쟁에 대해 많이 쓴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3년에 발표된 장편소설 『심야의 정담』에서 베트남전쟁의 현실적 측면을 보여줬다. 물론 이 작품은 『머나먼 쏭바강』과 달리 베트남전쟁이란 주제를 중심적으로 쓰지는 않았지만 8.15 이후 6.25라는 동족상잔의 민족적 비극과 분단의 아픔, 4.19와 5.16과 베트남전쟁 참전 등으로 이어지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한국 현대사의 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1973년 제6회 한국일보 창작문학상 수상작으로 문단의 주목을 많이 받게 되었다. 소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한국역사의 현실적인 아픔으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쟁도 베트남 민족의 하나의 비참한 사건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낭만적인 정의를 위해 이상을 갖고 전쟁터에 간 것보다 민족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월남전에 가버린 모습으로 등장했다. 서준학, 윤경, 방민욱 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국 현대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비극적이고 처절한 모습을 다뤘다. 신상웅은 『심야의 정담』에서 분단국의 특수한 상황을 독특하고 실감나게 묘사했으며 분단 조국의 비극을 아프게 드러냈다. 이

작품은 한국 현대역사의 흐름속에서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말까지의 중요한 사건들을 포장해서 독자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 베트남전쟁도 있었다. 이를 통해 베트남전쟁이 한국역사의 흐름 속에서 뺄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 배경이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신상웅은 리얼리티 작가라서 그의 글을 통해서 베트남전쟁을 진실하게 볼 수 있는데 우선 베트콩과 시민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다른 작품들과 동일하게 묘사했다.

> "그때 느닷없이 야자수숲 사잇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전적으로 매복조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그가 단순히 옆집을 다녀오는 사람인지, 아니면 베트콩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매복조의 판단에 따라서는 적의 없는 민간인이 살해될 수 있으며, 더구나 그 매복조가 말라리아에 걸렸거나 열대기후를 못 이겨 소화불량이라도 일으키고 있었다면 작전임무와 상관없이 감정적인 대응을 나타낼 가능성은 너무나 농후했다." (197면)[194]

베트남전쟁을 중심적으로 다룬 작품보다 『심야의 정담』은 이 전쟁에 대한 평가나 태도를 밀도있게 나타내지 않으면서 전쟁 상황을 단순하게 서술할 뿐이었다. 특수한 베트남 전쟁터에서 적을 죽이는 것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298면)이 정찰임무 수행에서 가장 큰 전과일 수도 있다. 전쟁터를 말하면 보통 치열한 전투장을 자꾸 연상하게 되는데 『심야의 정담』에서는 오히려 지루하고 따분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는 60년대 작품과 달리 70년대 작품의 공통적인 분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머나먼 쏭바강』의 도입 부분에서는 60년대의 영웅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만 『심야의 정담』에서는 전반적으로 낭만적이고 영웅적인 양상을 못 찾았다. 그리고 이 작품처럼 전쟁에 관한 작가의 관점을 다룬 장면도 흔하지 않은데 다음 장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절대로 총을 쏘지 말라고. 적의를 품을 이유도 원한도 없는 사람들을 쏜다는 것은 살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남의 나라에 와서 그 따위 짓을 하는 것은 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300면)

194) 신상웅, 『심야의 정담』, 한국소설문학대계, 동아출판사, 1995.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위 인용문을 통해서 작가의 입장을 알 수 있다. 베트남전쟁은 남의 전쟁이며 한국 개인들이 남의 영토에 가서 싸우고 있을 뿐이라는 쓸쓸한 기분을 표출했다. 한편 한국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남을 죽이는 것은 비인도적 행동이고 남의 나라에 가서 죄없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신상웅 작가는 베트남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냐 또한 누가 이 전쟁의 주체냐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았는데 그에게는 이 전쟁이 "남의 나라"에서 벌어진 남의 전쟁일 뿐으로 불쌍한 민간까지 살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박영한이든 신상웅이든 그들이 1970년대에 발표한 작품들이 그 전의 작품에서 나타난 베트남전에 대한 인식보다 분명히 변화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각 작품에서 이 전쟁에 관한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작가의 태도와 인식이 적게 나왔는지 아니면 많이 나왔는지의 농도가 다를 뿐이다.

3.2. 경제적 이익을 위한 전쟁

베트남전에 대해 쓴 한국 현대소설을 연구할 때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만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작품은 드물다. 황석영은 오랫동안 한국 리얼리즘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로 인정받으며 그의 작품에 각기 한 시대의 문학적 경향을 대표하는 명징한 의미와 그에 상응하는 감동을 한국 문학사에 새겨 넣었다. 그가 베트남전에 대해 쓴 첫 작품은 「탑」(1970)이었지만 『무기의 그늘』[195]에 와서야 독자의 높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196]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은 베트남에 파병되어 정글에서 죽음을 넘나드는 전투를 하다가 우연히 군의 정보기관으로 전속되는 안영규와 보조 수사 요원인 현지인 토이,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구엔타트와 팜민, 남베트남 정부군인 팜꾸엔이 있다. 구엔타트와 팜민은 미군의 PX에서 전투식량과

195) 황석영,『무기의 그늘』, 상과 하를 포함하여 1988년에 초판 발간하였고 일본어판 (이와나미 1994)과 영어판 (코넬대학출판부 1994), 프랑스어판 (쥘마 2003) 등을 비롯한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196) 「탑」(1970)과 『무기의 그늘』(1988) 외에 다른 작품도 창작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단편소설 「삼포가는 길」(1973)과 장편소설 『장길산』(1974-1984)을 발표했다.

각종 전투무기와 실탄, 약품을 암시장을 통해 빼내어 해방전선에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안영규와 토이는 연합군수사대의 한국군 파견대 소속으로 미군과 남베트남정부군의 암시장 거래내역을 수사하여 이를 볼모로 약점을 잡아 한국군의 암시장에서의 입지를 안정시키고 한국군 수사대 지위를 지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베트남 정부의 팜꾸엔은 남베트남군 수뇌부로서 역시 미군 PX에서 물품을 빼내어 암거래하고, 또 그동안 구하기 어려워 값이 폭등한 계피를 채취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 특히, 팜꾸엔의 유일한 희망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모아 해외로 가족과 함께 도피해서 전쟁이 없는 편안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한편 팜민과 구엔타트와의 공작활동이 안영규와 토이에 의해서 밝혀지고 토이가 그 사실을 구실로 구엔타트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자 구엔타트가 게릴라 조직을 이용하여 토이를 살해한다. 이를 알게 된 안영규가 수사대와 남베트남 경찰을 동원하여 그들을 소탕하게 되는데 그 작전에서 안영규는 팜꾸엔의 동생인 팜민을 사살했다. 결국 객관적인 통찰력으로 베트남의 많은 부분을 지켜본 안영규는 살아서 귀국선에 올랐는데『무기의 그늘』을 통해서 이 시기에 참전한 한국군의 베트남전에 대한 생각과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은 단순한 휴머니즘이나 파병된 한국군의 연애와 운명에 대한 내용이 아닌 이보다 베트남의 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당시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재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연결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갔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의 본질을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전장이 아니라 다낭을 배경으로 한 블랙마켓이란 암시장에 중심을 두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우거나 목숨을 지켜야 하는 장면을 표현한 다른 작품들과 달리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은 독특한 배경을 특징으로 구성된다. 이는 전쟁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본질도 드러낸다. 그리고 한국군의 생각과 인식의 변모를 볼 수 있다. 본고는 『무기의 그늘』을 통하여 베트남전이 과연 세계의 질서와 화평과 베트남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대표로 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무슨 음모를 꾸미려고 일부러 일으킨 것인가? 라는 의문을 밝히고자 한다. 즉, 한국정부가 선언했던 참전 동기의 그늘 속에 도대체

무슨 음모 또한 어떤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군인들이 위험한 정글에서 힘들게 싸우며 견뎌내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황석영이 『무기의 그늘』에서 한국군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이 문제를 밝히기 전에 한국정부가 선전했던 것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시점은 한반도 전쟁에서 벗어 난지 십년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박정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정권을 잡을 때부터 파병을 추진하며 미국에 여러 번 파병의사를 보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참전목적도 다르지 않았다. 한국정부 입장에서 베트남파병은 안보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외교적 돌파구"였다.[197] 한국정부는 파병군인에게 "자랑과 용기를 지니고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영광스런 자유의 십자군으로 성전에 참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 123~124면) 라고 말하며 참전용사를 독려했다. 이 선전은 선우휘의 『물결은 메콩까지』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에서 베트남전쟁에 직접 참전한 안영규의 선임인 강수병은 안영규에게 전쟁의 본질은 강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 먹"으면서 (상, 48면) 살아가는 방편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은 전제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긍정하지 않고 완전히 은폐해 버릴 수는 없다" (상, 48면)는 것도 알려주었다. 그리고 안영규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하여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까지도 인정했다.

> -너희 (한국군[198]) 신문에서 보았다. 데모대원의 피켓에 써있더라. '우리는 베트남을 위해서 죽기는 싫다!'라고. 그처럼 어리석고 엉터리 같은 수작은 없다. 뭐 베트남을 위한다고? 너희 병사들은 허섭쓰레기 같은 더러운 빈민가의 뒷골목에서, 어두운 바에서, 할인표를 오려갖고 달려가던 슈퍼머켓에서, 기름투성이의 차 밑바닥에서 이리로 끌려왔다. 왜냐구? 도련님은 여기에 안 오니까. 너희들 기업가들과 그들의 세일즈맨인 정치하는 자들에게 물어보렴.

197) 정현우, 「베트남전쟁 초기(1964~1968),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및 국군 파병에 대한 인식-파월 병사와 기술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2면.
198) 인용자 주

너희가 베트남인 수렁에 빠져 개처럼 죽어가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야.
-그런 것쯤은 나두 (안영규[199]) 안다. 우리 식으로 길들이고 고분고분하게 만들어서 먹으려고 세계 도처에 우리 군대가 간다. 우리 정부는 베트남을 위한다거나 통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얼빠진 감상주의라고 여긴다. 자본가들은 그들의 기업방침에 따라서 이 발판에서 물러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하, 123면)

안영규가 참전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인다. 안영규는 자신이 베트남에 가는 목적이 다른 군인들처럼 자유수호를 위해 가거나 영웅적인 몽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본인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숨김없이 밝혔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은 한국군의 베트남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한국정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드러냈다. 한국군은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 무섭고 더러운 정글에 갔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로 권력을 잡고 있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 이익이라는 그늘 속에 숨어서 국민들을 기만했다. 이는 박정희 정부의 독재정권부터 출발하였고 국가이익과 통치세력의 문제였다. 이에 대해 권혁범은 다음과 같이 논했다.

"박정희 시대의 모든 문제는 '조국'으로 합리화되거나 은폐되며 도대체 '조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핵무기 개발이나 '조국이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게 국민 대다수의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박정희로 대표되는 당시 권위주의 정권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문제는 '조국' 속에 묻혀버린다."[200]

인용문에서 보듯, 한국정부는 파병을 "자유주의의 수호자" 내지는 "평화의 사도" 등으로 평가하며 파병의 당위성을 설명했다.[201] 그렇지만, 베트남 전장에 막상 가보니 전장에서 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기의 그늘』은 격렬한 전쟁을 재현하지 않았지만 전장보다 더 더러운 현실을 밝혔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이 자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트남전에 집착한 가장 큰 이유였다. "블랙마켓" 또는 "시장" 또는

199) 필자의 각주
200)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솔, 2000, 53면.
201) 정현우, 앞 논문, 22면.

“PX”라는 개념이 등장했고 이것들이 “전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곳은 다낭이 위치한 중부 월남에서 “가장 큰 블랙마켓”이고 “더러운 쓰레기통” 같이 암거래를 하는 곳이다. 여기서 미국과 한국, 남베트남, 북베트남은 무기부터 군표까지 모두 다 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이들이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각 군 모두 이 블랙마켓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시장은 전쟁에서 병참부대 역할을 하는 암시장으로 전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한 곳이었다. 이 구역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전장에 직접 나갈 필요도 없는데 정부가 블랙마켓을 계속 활용하는 동기를 더 잘 알 수 있다.

> 공연히 도덕책 들치지 말라 그거야. 여긴 쓰레기통 속이야. 너는 오물에 목까지 깊숙이 빠졌어. 헤엄치면 살지만 허우적대면 더 깊이 빠져 죽는다.” (상, 44면)

그렇다면 모든 참전군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가? 황석영은 베트남전과 연관된 각 부문의 대표적 인물들을 통하여 참전 목적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여기서 미국과 한국, 남베트남이 같은 편이고 북베트남은 반대편 전선에 서 있다. 본고는 한국군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참전목적에 한해서 논하고자 한다. 위 인용문은 안영규와 선임인 강수병의 대화 장면인데 이를 통해 “오물”과 “쓰레기통 속” 세계를 발견할 수 있다. 강수병의 주장은 화평과 민주, 자유 같은 모호한 개념과 상반되었다. 생사를 건 위험한 전투에 직접 참전한 한국군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왔나? 라는 회의와 물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 비참한 현실이 베트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한국을 위한 것인가 라는 회의였다. 황석영의 작품을 보면 안영규가 돈을 벌려고 전쟁에 나갔다는 것과 이 전쟁이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도대체 한국정부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젊은 한국청년들을 목숨이 걸린 정글로 보내서 죽기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했는가? 이를 밝히기 위해 민족의 권리에 관한 권혁범의 말을 인용하여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여기서 사실 위험한 것은 이러한 집단이익의 단일성이라는 요구가 내부의

이해관계를 단순히 은폐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집단 내부의 다수 구성원의 이해를 억압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집단의 공동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상 적지 않은 경우 그 집단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소수 무리들의 이데올로기적인 표현일 뿐, 집단 구성원의 진정한 공동 이해를 포괄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집단의식은 소수 세력의 기득권 유지와 확대를 위해서, 그러나 나름대로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허위 개념인 경우가 많았다." 202)

위의 대목을 통해서 민족주의라는 것은 집단주의 또는 계급주의와 다른 개념이지만 그 집단 또는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완전히 다른 두 개념을 동일화시킨다. 여기서 집단과 계급은 국가권력을 잡고 있는 정부로서 이 통치계급의 권리를 민족의 권리라는 그림자 속에 숨겨서 통치세력의 권리만 보호해주고 있다. 즉,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목적은 국가주의를 대표하는 의지가 아니라 일부의 한국 정치지도자들을 대표하는 의지일 뿐이었다. 달리 말하면 민족주의가 아닌 계급주의의 이익을 위하여 제국주의 정권들의 뜻대로 베트남 참전을 추진하였다. 이 때문에 화평을 선호하는 미국사람들이 미국정부의 참전목적을 알게 된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전 시위를 벌였다. 203)

다낭(Da Nang)에 있는 블랙마켓은 "단순히 미군과 연합군에게 전쟁의

202)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 솔, 2000, 43면.

203) 1948년부터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간접적으로 간섭했다. 즉 베트남이 항불전쟁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 미국은 아직 베트남과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프랑스를 원조해주는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동아시아 전쟁에 한 발을 들여 놓았다. 원조 이유는 공산주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1948년-1952년 시기에 동양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소련과 중국의 원조를 통해 점점 팽창해 졌기 때문이었다. 또한 미국은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응원을 하겠고 동맹국이라면 원조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49년부터 프랑스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서 1949년 1월에 미국은 프랑스에게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했다. 그 후 1949년 말부터 공식적으로 미국 군대가 베트남전쟁에 투입하게 되었다. 1949년 10월에 미국의 대표단은 베트남에 진입하였으며 1951년부터 프랑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남베트남을 원조하기 시작했다. 1954년에 항불전쟁이 베트남의 승리로 끝났고 프랑스대신 미국군대가 남베트남에 들어왔다. 이 때부터 항미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많은 대통령에 걸쳐서 베트남에서 여러 군사계획을 실행했는데 미군이 베트남에 들어간 목적이 처음에 발언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본국의 시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그만 두어야 된다는 반전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미국 정부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강렬한 저항에 봉착했다.

한편, 이 때는 남베트남 정부도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시민의 옹호를 받지 못 할 뿐만 아니라 북베트남의 활동도 매우 신속하고 강렬해졌다. 따라서 남베트남 정부는 미국에게 군사원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미국이 남베트남에 군대를 더 이상 보내면 본국에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바로 동맹국의 군인을 원조를 받는 것이다.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 주는 곳이라기보다 베트남 경제의 조절능력을 혼란시켜서 베트남 경제를 미국에 의존시키는 제국주의의 야욕이 뒤엉켜 있는 곳”[204]이다. 베트남전쟁에서 이런 암시장 조사를 담당한 안영규는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작품에서 블랙시장 즉 암시장 또는 PX의 문제를 자세히 묘사한다. 이런 장면을 통하여 황석영은 더러운 “쓰레기통”속에 있는 세계는 “큰 함석창고 안에 벌어진 디즈니랜드, 그리하여 대량 산업사회가 지어낸 소유의 꿈을 피묻은 군표 몇 장으로 살 수 있는 곳, 3백 에이커를 단 4분 동안에 소멸시킬 수 있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나라의 일상용품을 파는 곳, 갈보와 목사와 무기밀매업자가 사이좋게 드나들던 기병대 요새의 잡화점, 무엇보다 PX는 가난한 아시아인의 문명을 파괴하고 멀리서 온 아메리카 문명을 새롭게 길들이는 아메리카의 가장 강력한 신형무기였다.”[205] 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각 정파(政派)가 블랙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거래를 했는지를 역사적인 근거에 의존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시장은 남베트남정부의 후방에서 북베트남정부군과 베트콩을 진압하는데 필요한 무기와 식품을 비롯한 군수물자를 다 공급해주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시장에서 미국과 동맹국뿐만 아니라 북베트남정부도 거래에 참여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트남 남-북 정부의 군사력을 비교해보면 남베트남정부가 미국의 막대한 지원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미국의 엄청난 지원이 실제로 전투를 하기 위한 목적에 잘 활용되었을까? 사실 남베트남정권은 이런 군수물자를 지원을 받으면 이것들을 전투에 사용하지 않고 다시 블랙마켓에 쏟아 부어서 팔았는데 그때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북베트남정부의 사람들이었다. 결국 남베트남정부는 미국의 지원품을 전투에 쓰지 않고 블랙마켓에 쏟아 부어서 그곳에서 형성된 밀거래로 남베트남정부 통치자들의 주머니에 거대한 돈이 들어갔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미국이 알지 못할 리가 없었지만 미국이 그냥 묵인한 것뿐인데 그 이유는 미국도 이 시장 덕분에 경제적인 이익을 상당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북베트남정부의 경우 블랙마켓을 통해서 적의 최신 무기와 군용품을 구입하여 그걸로 적군과 싸웠는데 이는 호치민정부의 군사전략 중 하나로 게릴라전

204) 응웬 레 투 (NGUYEN LE THU), 「황석영 문학에 나타난 베트남전쟁-『무기의 그늘』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5, 45면.
205) 응웬 레 투 (NGUYEN LE THU), 앞 논문, 45면.

만큼 북베트남의 최종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블랙마켓은 미국과 동맹국의 통치자들이 돈을 잘 버는 곳일 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부대의 군용품이나 식품, 무기 등을 후무려서 블랙시장에 내다 팔아 개인적인 돈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베트남전쟁 초기 남-북간 이동의 제한으로 북부지방의 군수품을 남부전쟁터로 원활하게 보내지 못했는데 이 때 블랙마켓은 북베트남정부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북베트남정부는 적의 무기로 적을 죽인다는 지시를 내려서 전쟁초기에 미국이 남베트남 정부에 지원해준 물품의 대부분을 블랙마켓에서 사게 되었다. 미국의 비밀정보기관(CIA)에 따르면 6개월 만에 (1965년 10월~ 1966년 4월) 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 무기와 군용 외에 연료 약 5만 리터, 옷감과 전선 약 만 미터, 그리고 셀 수 없는 약품과 라디오 등을 블랙마켓에서 샀는데 이런 물품들이 모두 다 미국 국방부의 계약자가 만들었다는 것이었다.[206] 미국에서 이런 문제때문에 여론의 지탄을 상당히 받았는데 미국이 블랙마켓을 통해 북베트남정부를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비아냥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남베트남정부와 블랙마켓의 활동을 계속 봐주었는데 이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깊게 빠질수록 미국 방위산업체는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베트남군이 미국의 지원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베트콩이 남베트남정부가 관리하고 있었던 농촌과 트럭에서 강탈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 블랙마켓 활동의 본질을 알아봐야 미국과 남베트남정부가 이 전쟁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사람의 평화를 위해서? 자유로운 세계를 세우기 위해서? 아니었다. 권력자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감행해서 연약한 베트남민족의 자유권과 독립권을 유린했다. 이런 상황에서 호치민정부는 외방 세력의 침략으로 조국과 민족이 위기에 처한 실상을 잘 인식하고 국민들을 지도해서 민족해방투쟁을 계속하게 되었다.

이 블랙마켓에 대해 한국군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본다.

---

206) Đăng Sơn, 「Mỹ đã "viện trợ" cho Mặt trận dân tộc giải phóng Miền Nam như thế nào?」 Báo Quân đội Nhân dân, số ra ngày 21/12/2019. (People's Army Newspaper-Organ of the central military commission and Vietnames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ow the U.S. supported the Vietnam National Liberation Front of the South?」, 2019/12/21).

한국군은 이런 곳이 전쟁터보다 더 무섭고 더럽다고 느끼며 “가운데서 찜바 되느라구 그 동안 녹초가 되었”(상, 45면) 다고 말했다. 심지어 강수병은 “야전은 한 번도 안 갔었지만, 거기가 훨씬 속 편할 게다”(상, 45면)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파병군인들은 모국과 토양-지형부터 기후까지 모두 다른 정글에 가서 고통을 많이 겪었다.

> 영규는 반년만 처음 거울을 보았다. 거기엔 낯선 사람이 서 있었다. 볼은 바싹 패었고 얼굴은 볕에 그을다 못해 암갈색이었으며 눈빛에는 부드러운 기가 전혀 없었다. 깡마르고 살빛이 검어서 남방 계통의 아시아인의 모습이었다. 월남인이라기엔 키가 크고 한국인이라기엔 살빛이 검었다. 필리핀 계통의 인종 같다고 그는 생각했다. (상, 43면)

안영규는 자신이 자원으로 참전했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안영규는 이 내용을 뉴욕 출신인 스태플리와의 대화 중에 표출했고 이 선택은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데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게 “경제적인 이권이나 군사원조를 약속”(하, 118면) 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안영규의 인식 갈등을 볼 수 있는데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전쟁터로 갔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여기 와서 정부의 선택에 따라 본인도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말한다. 안영규는 정부와 개인의 경제적인 참전 원인을 밝혔는데 결국 정부만 비난하고 본인은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의 역할을 했다. 또한 안영규는 미국의 동맹인 한 국가의 파병이지만 사실 본인의 모국이 아직 약소국이라는 것과 한국과 베트남이 같은 아시아 국가로 빈곤한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영규는 미국이 베트남사람을 더럽고 야만적인 존재로 격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람에게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국주의를 위하여 같은 전선에 서 있을 뿐이지 미국과 한국은 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안영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들이 한국말을 들으면 냉소하고 조롱하며 비웃던 표현을 회상하며 베트남과 한국이 약소국이라는 동질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표출한다. 안영규와 같은 한국군은 베트남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영광스런 자유의 십자군’으로 성전에 참전한다는 교육을 받고 베트남전에 투입되지만, 한국의 식민지 경험과 남북 분단상황이 베트남의 현실과 비슷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영규는

제국주의의 용병으로 자신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한 죄의식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 전쟁에 책임없이 참전한 정병군인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제대할 뿐”(상, 79면)이란 냉정한 입장을 취하는 인물이었다. 안영규는 끝까지 “입장이 없다”(하, 90면)라고 말하며 미국군, 한국군, 베트남군 중에 꼭 어떤 한 편에 서지 않았다. 그는 미국인 대신에 한국군들이 죽음의 전장에 투입된 용병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베트남전쟁의 객관적 실체를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그의 중도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는데 베트남에서는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겠다는 결심의 단호함은 이것을 단적으로 증명했다. 그는 나름의 기준으로 관찰하고 판단할 뿐, 자발적으로 개입하진 않는다.”[2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석영의 작품에서 전쟁의 본질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이는 시대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보다 황석영은 1962년 11월 단편 『입석부근』으로 『사상계』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한 후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러 작품을 발표하여 1970년대 대표적인 리얼리즘 작가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양상을 황석영의 작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이 양상들은 황석영 문학의 특징이 되었다. 따라서 이후에 『무기의 그늘』을 창작할 때도 베트남전쟁의 현실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표출했다. 기존의 베트남전을 다룬 소설은 베트남전이 미국식 자본 논리 아래서 기획된 것임을 간파하지 못했으며, 대부분 참전 용사의 정신적 후유증 혹은 베트남 여성과의 낭만적 사랑을 전형화함으로써, 베트남전의 실체에 다가가지 못했지만 황석영은 여느 작가와 달리 이러한 월남전의 실체를 꿰뚫고 있었다. “그의 첫 데뷔작품에서부터 월남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베트남 참전을 통해 정리한 미국과 제국주의 이념에 대한 입장들은 향후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208]

4. 1990년대 후: 국가가 참전한 전쟁에 대한 후세 개인의 재인식

4.1. 한국군의 정신적인 후유증

207) 정호웅, 「베트남 민족해방투쟁의 안과 밖」, 외국문학, 1990년 봄호, 제22호, 166면.
208) 임기현, 『 황석영 소설의 탈식민성』, 역락, 2010, 202면.

지금까지 최정희와 선우휘의 종군기, 선우휘의 『물결은 메콩까지』,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 그리고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알아봤다. 각 작품은 작가가 직접 체험한 베트남전쟁을 배경으로 쓴 작품으로 경험시기에 따라서 한국군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다르게 표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작품 모두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는 것과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베트남 전장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작품들을 시간 순서로 살펴보면 베트남전쟁에 관한 인식의 변모 과정을 볼 수 있는데 한국정부의 참전목적에 관한 인식이 영웅주의와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제국주의와 계급주의의 입장으로 변화해 나갔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작품 공히 한국군인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참전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 아직까지 이 참전목적을 국가의 그늘 속에 숨겨서 소멸시키고 있다. 개인의 죄책감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에게 베트남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본인은 단지 순수한 피해자일 뿐이었다고 시사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정부와 같은 공범인 개인 군인들이 이 전쟁에서 자신의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군인들이 철수한 후에 전쟁으로 인해 여러 후유증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 그들을 가해자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피해자로 봐야 되는 건가? 본고는 군인들도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일정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인도적인 견지에서 볼 때 그들이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209]. 그러므로 그들이 과거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주고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이다. 뿐만아니라 전쟁과 무관한 죄없는 후세들도 전쟁때문에 여러 면에서 나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도 살펴보며 국가와 사회와 가족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끝난 전쟁에 대한 이해와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관계가 멀어진 후세들은 이

209) 한국은 베트남 참전에서 사망 4,687명, 부상 5,000명 이상의 피해를 입어야 했다.

전쟁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클 것 같다. 달리 해석하자면 젊은 후세들은 조상 시대의 사건에 대해 더욱 알아보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스스로 묻는다. 역사는 바꿀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지만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배움을 얻어서 더 좋은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지금 현재 파병군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지금의 삶이 과거 베트남전쟁의 체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베트남전쟁이 현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 이를 안정효의『하얀전쟁』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안정효는 한국전쟁시 태어나 전쟁의 상흔이 깊은 분위기에서 자라서 젊은 나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 그가 그 당시 베트남 전쟁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다 회고하며 정리한 것을 세 번에 걸쳐서 연재했는데[210] 나중에 영어로 번역할 때 그 제목을 『White Badge』로 이름을 바꿨는데[211] 작가 후기에서 안정효는 창작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잠깐 언급했다.

> 이 소설은 나 한 사람이 월남으로 가서 보고 느꼈던 전쟁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서술이다. 그때 나는 갓 대학을 졸업한 나이였으므로 월남전과 한국군의 파병이라는 사건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비판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보다는 전쟁 상황에 사로잡힌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느끼고 기록하며, 그 많은 얘기를 무작정, 아무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릿속에 주워 담아 두었었다.[212]

인용문에서 살펴보듯이, 작가는 허구적인 사건을 만들어서 과장해서 창작하지 않고 작가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솔직하게 서술했다. 물론 이 작품도 다른 작품들처럼 작가의 주관적인 태도가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지 않고 베트남전쟁을 있는 모습 그대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

210) 안정효는 1985년 『실천문학』에 '전쟁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2회(봄호와 여름호)만 연재한 후, 같은 해에『전쟁과 도시』라는 제목으로 실천문학에서 단행본을 출판한다. (이경재,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기억의 변모 양상, 안정효의 『하얀 전쟁』개작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6, 40면.)

211) 이 작품은 안정효가 직접 번역한 첫 작품으로써 1989년에 미국의 Soho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된다. 이후에 한국어 단행본도 『하얀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212) 작가후기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 안정효 작가가 직접 고백한 적이 있었다.

> 나로서는 전쟁이라는 집단적인 사건이 지니는 정치적- 군사적- 역사적 의미보다는 전쟁 행위에 휘말린 인간의 모습을 내가 보았던 그대로 전하는 작업이 더 절실한 욕구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213]

따라서 본고는 이런 관점으로 출발해서『하얀 전쟁』을 연구하여 이를 통해 한국군이 베트남전쟁 참전 후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동시에 주인공을 작가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니[214] 주인공의 삶을 통하여 작가의 태도와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베트남전쟁에서 벗어나 귀국한 후 기자생활을 하고 있는 한기주 병장이다. 한 병장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글을 올린 후 베트남 전쟁터에서 전투했던 동료인 변진수 일병의 전화를 받았다. 두 사람의 만남 후 한 병장은 변진수 일병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게 되었다. 변진수 일병은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시민학살로 인한 트라우마로 제대를 하고 귀국한 후 아직까지 일반적인 삶에 다시 재적응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변진수 일병이 한 병장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한 병장에게 자신을 총으로 죽여 달라는 요청을 부탁하러 간 것이다. 한참 동안 주저하던 한 병장이 변진수 일병의 부탁을 거부하다가 변일병이 멀리 떠나기 전에 총을 들어 변일병을 향하여 쏘았다.
안정효 소설의 내면적 깊이는 인간존재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얀전쟁』을 위시한 일련의 작품에서 그는 과거와 현재, 현실과 몽상 사이를 넘나들면서 상처받은 영혼의 뿌리가 인간의식의 심연에 근거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하얀전쟁』은 한병장을 1인칭 주인공으로 세워서 의미가 없는 전쟁 참전과 암담한 현실을 섞어서 서술하여 불행한 변진수 일병을 만날 때부터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길 때까지의 이야기로 이루어졌다. “전투와 회상 장면들과 권태감이나 월남전 이후의 절망감에 대한 살벌한 서술이 전개되는 동안, 기둥 줄거리는 한국전쟁 때 어린아이였던 자신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교환한 월남 소설, 그리고 두려움을 못 이겨 정신 이상이 된 전우, 이렇게 두 가지 망령을 극복하려는 주인공의 노력을

213) 작가후기
214) 여기는 주인공인 한병장이 문학을 선택하여 공부했었고 귀국한 후에 기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작가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니 통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추적한다.” 215)

우선 주인공의 전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하얀전쟁』에서는 베트남 전장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게 묘사되었다. 선우휘의 『물결은 메콩까지』와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에서는 전선 배경이 나타나고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에선 후방을 배경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 『하얀전쟁』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모든 작품들이 베트콩과 그 세력의 위험성을 언급했지만『하얀전쟁』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가장 많이 표출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작품에서 보듯이 한국군이 베트콩과 시민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군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는데 변진수 일병이 귀국한 후까지도 베트콩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결국 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다.

> 주민들과 베트콩이 뒤섞여 같이 살고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월남이란 마을에 가더라도 적과 주민을 식별할 방법이 없어서 누구에게 미소를 짓고 누구에게 총을 겨누어야 할지를 모르고, 숨어 있던 적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덮칠지 모르는 이상한 나라였다. (13면)

인용문을 통하여 베트남전쟁의 현실을 투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베트남 전쟁은 주로 남위 17도 아래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남쪽 시민들이 베트남민족해방 전선에 가입하여 투쟁한다. 낮에는 농민처럼 일을 하고 밤에 게릴라 전투를 수행한 것이다. 이 때문에 남베트남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 군대들이 마을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헷갈려서 누가 적인지 누가 시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 한국군이 전투를 한다는 것은 한국군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 적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다 숨어서 준동했다. 전방도 없고 후방도 없으며 전선도 없어 정신이 갈팡질팡하는 게릴라 전쟁이 벌써 20년 동안 끝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런 나라에서,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이 복잡한 전쟁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며 과연 무엇을 할 수가 있으려나? 낮이면 농부처럼 땅을 파고 밤이면 베트콩이 독약을 풀어 넣을 까봐 개울가에 엎드려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은 무엇일까? (14면).

---

215) 칼 션버거,「한국군 용병론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Los Angeles Times, 10 September, 1989, Book Review p.2.

“역사적 사명”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날마다 전투를 하면서 동지들의 비참한 주검을 목격한 한국군 누구에게나 베트남전쟁은 잊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군이 철수한 후 모국에 다시 돌아가서 일반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한국군이 일반적인 죽음을 겪고 일반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에서 낯선 인간을 죽였는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했는지를 몰랐다. 전쟁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한국군이 베트남 땅에 도착할 때부터 그들은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안정효 작가가 베트남전쟁을 본 관점은 다른 작가와 달리 아주 독특하고 정확하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서 무사히 고국에 귀국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예감할 수 있다. 베트남에 가기 전에 연구해 왔던 작품의 주인공들처럼 영웅주의와 낭만주의의 깃발을 들고 한 번이라도 빛나는 청춘을 기록하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에 도착한 후 그 땅에서 벌어지는 실상은 그들이 기대했던 낭만적인 세상이 아니고 그 대신 잔인한 현실과 예측할 수 없는 죽음뿐이었다.

> 한국을 떠날 때 지녔던 전쟁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후방에 눌러앉아 사역만 계속할 것 같은 따분한 생각에 답답했다. 뜨겁기만 한 하루하루가 흘러갔지만 오늘은 끝이 없었다. 권태롭고 비현실적인 하루가 멍청하게 왔다가 맥없이 그냥 가버리는 지루한 기간이었다. 소설에서 읽은 전쟁, 시로 웅변하고 용기로 행동하는 영웅의 전쟁은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대학시절의 여름날 오후 따분한 강의시간 같기만 했다. 모두가 거짓된 선웃음처럼만 여겨졌다. 갑자기 누군가 불쑥 우리들 앞에 나타나서 “여긴 전쟁이 없답니다. 장난삼아 오라고 한 것이니까 이제 모두들 철모를 벗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할 것만 같았다. (45면)

한병장은 전쟁이 “정말로 한심했”고(47면) “참으로 시시했다”(44면)고 여러 번에 걸쳐 토로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희생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판에 누구를 위하여 인간들이 서로 죽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물었다.

> 그리고 아마도 나는 나 자신에게라도 내가 참으로 멋있는 사내라는 착각을 증명하고 싶어서 남의 나라에서 타인들이 시작한 전쟁을 싸우러 찾아갔는지도

모른다.(24면)

인용문에서 보듯이, 참전 사유가 시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주인공이 후회하는 모습을 감지할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장면에서는 “나는 월남엘 오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206면)고 직선적으로 말했다. 동시에 베트남전쟁은 남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점은 『하얀전쟁』이 다른 작품들보다 전쟁에 대한 관점을 한 단계 더 높여서 한국군의 비약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는 바로 휴머니티적인 인식인데 작품에서 한병장이 죄없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직접 고백했다는 것이다. 『머나먼 쏭바강』과 『무기의 그늘』에서는 베트남전쟁을 비판적인 태도로 표출하며 한국군의 입장에서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남의 땅에서 고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렇지만 『하얀전쟁』에서는 죄없는 베트남 시민들의 입장까지 생각해주고 국가주의를 넘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전쟁을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군이 나약한 베트남 시민들에게 자행한 횡포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며 살인죄까지 인정했다.

> 아무리 여러 가지 이론을 머릿속에 전개시켜도 내가, 바로 이 내가 인간을 죽였다는 명제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가소롭게도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전쟁을 공부하겠다던 나는 인간 하나를 동물처럼, 지극히 원시적인 동물처럼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렸다. 그리하여 내 마음속에는 전쟁의 승리와 패배와 영광 따위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들이 침몰해버리고 설명은 할 수 있어도 용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 발생한 과정만이 영혼의 커다란 얼룩으로 남았다. (175면)

『하얀전쟁』에서 한병장의 생각을 통하여 안정효 작가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알 수 있는데 안정효는 기존 작가와 달리 휴머니티에 중심을 두고 창작했다. 거대하고 위대한 국가의 입장이 아닌 전쟁에서 발생한 고통스러운 인간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인간들의 입장에서 전개한 것이다. 『하얀전쟁』에서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죄없는 양민 학살에 대한 자문, 인간의 올바른 행동에 대한 자문 그리고 전쟁의 책임에 대한 자문이다. 국가의 참전 동원에 호응하든 본인의 개인 이익을 얻고 싶어 하든 어떤

목적으로 참전했더라도 이 전쟁에 참전했기 때문에 전쟁과 무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표출했다.

> 그러나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93면)

또한

> 그 베트콩을 죽이고 나는 훈장을 탔다. 하지만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의 생명을 파괴했다는 전율이 무서웠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으리라는 두려움에서 언젠가는 그 보복을 받으리라고 느꼈다. (175면)

그리고

> 나는 어떤 인간일까? 전쟁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약간의 영웅심리가 가미된 이런 호기심 때문에 나는 파월 복무를 자원했고 어느날 나트랑 해안에 상륙한 선발대에 끼었다. 그러나 전쟁이란 신나게 총을 쏘고, 씩씩하게 뛰어다니고, 기계체조를 하듯 잽싸게 땅바닥에서 구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꿈틀거리는 생명을 파괴하고 칼로 찢어서라도 그 생명을 죽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나는 존재하지 않는 명제라고 생각했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실제로 사람이 죽고 죽이는 일은 없으리라는 막연한 전제, 그것은 그 무렵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남전은 정규전에 비하면 시시한 어린애 장난 같은 게릴라전이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나는 전쟁을 구경하러 갔지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남의 나라에 가서 배운 전쟁은 부상병이 내는 짐승 같은 소리, 아직 이름도 외우지 못한 낯선 신병이 죽는 순간에 갑자기 느껴지는 묘한 사랑, 피를 보면 상어처럼 복수의 광증이 폭발하는 심리 따위였다. 그 속에서 새겨진 기억과 상처는 끈끈한 얼룩이 되어 지워지지 않는 과거로 현재에 남았다. (24면)

전쟁이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고 공포스러운 시간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에 “모든 것이 죽음이라고 느꼈”고 “틀림없이 살아서 귀국한다는 약속은 사치스러운 환상이었다” (28면)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 의학적으로 고찰하면 변진수 일병은 피해망상증에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피해망상증은 단순한 병리적인 문제라기보다 죽음보다 무서운 질병인데 그만큼 죽음이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죽음은 매우 억울한 희생이지만 “죽음의 손익계산서에 아무것도 기록하지 못했다.” (330면) 결국 전쟁은 수많은 소소한 인간

들이 목숨을 걸고 통치자들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뿐이다. 이렇게 같은 편에 서 있더라도 지휘자와 일반군인들의 전쟁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대립된다.

> "18명이 죽어 적을 172명이나 때려잡는 악몽이라면 전투 지휘관에게는 만족스러운 승부였다." (114면)

윗 인용문은 지휘관의 입장을 보여준다. 정부를 대표한 지휘관에게는 적이 많이 죽을수록 승리감을 가질 수 있다. 한국군이 몇 명이 죽었는지는 지휘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한국군에게는 무서운 악몽일 수 있지만 지휘관에게는 "만족스러운 승부"였는지도 모른다. 한병장 에게는 베트콩이 아닌 무고한 일반시민을 죽인 것이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지휘관에겐 승리를 증명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정부와 일반군인의 견해 차이가 난다면 베트남 전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별하기 어렵다. 위 장면은 베트남전쟁에 대한 사실적인 스토리다. 한국군이 어떤 마을 사람들 전체를 베트콩 이라고 판단하고 모두 다 죽였다는 것은 단지 한국군의 야만적인 죄악을 변명하는 구차한 소리일 뿐이었다. 베트콩은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구성원이라서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었는데 한국군이 죽인 사람들은 마을의 노인과 아기와 임산부와 여자들이었다. 그 당시 미국은 세계 여론의 반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한국군의 만행을 다 숨겼지만 2011년에 비밀자료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한국군의 비인간적인 학살을 알게 되었다.[216] 한국군은 적의 팔이나 다리 하나만으로도 적을 죽였다는 증거로 보고 전과로 보고했다. 한국군이 학살만행을 저질렀을 때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 놓고 총을 쏘았다. 임신부들의 배를 째서 죽였고 아이들을 불로 태워서 죽였는데 심지어 젊은 여자들을 죽을 때까지 강간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중에 남자가 거의 없었고 실제로 베트콩이 아닌 반항력이 없는 선량한 사람만 죽었다. 한국군은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생명을 전과로

---

21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6월 13일 미국은 베트남전쟁에 관한 '국가의 비밀문서'를 공개했다. 원본 영문 제목은 Pentagon Papers:「United States – Vietnam Relations, 1945–1967: A Study Prepared by the Department of Defense」라는 것인데 이 자료가 공개된 후 한국군의 야만적인 학살 사건들이 밝혀져서 전세계 여론에 큰 충격을 주었다.

포장해서 자랑하며 자신들이 정의를 위해 전투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안정효는 작품에서 이런 끔찍한 사실을 다 드러내지 못했지만 전쟁터에서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변진수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더 힘든 상황을 표출함으로서 한국군의 죄악상과 전쟁의 죄악상을 드러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인간이었던 2백명은 여덟 시간 동안에 쇳조각에 찢겨 삶을 끝냈다. (115면)

또한

> "적을 사살했다는 걸 확인시키려면 시체를 제시할 수가 없는 경우엔 귀를 내놔야 해요. 훈장을 타려면 영수증이 있어야죠" (173면)

전쟁때문에 많은 한국군들이 베트남 땅에서 영원히 누웠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병신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병신이 되는 것보다 "차라리 아쌀하게 전사를 하는 편이 좋겠"다 (17면)고 말했는데 다음 인용문을 같이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전사를 하면 미국정부에서 보상금이 두둑이 나올테니까 부모한테 난생 처음 효도라도 한번 제대로 할 거 아네요?" 운전병 출신의 김재오 상병이 맞장구를 쳤다.
> "부상만 당해도 보상금이 나온다며?"
> "그래도 목돈이 필요한 사람은 죽어야 해"
> 우리 중대로 갓 진출을 온 황찬희 상병이 얘기에 끼어들었다. "하지만 죽으면 번 돈을 쓰지도 못하잖아?"
> "헌데 다리 병신이 되어 귀국을 하면 무얼해서 먹고 살지? 부상을 당해봤자 그 보상금으로 평생 곳감 빼먹기만 할 수도 없겠고" (18면)

인용문을 통하여 병신으로 귀국하는 것이 왜 두려운지를 잘 볼 수 있는데 병신이 되면 귀국해도 다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한국군이 참전한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제적인 이유가 참전사유 중 하나였기 때문에 병신 모양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불구자로 힘들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게 더 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병장과 변진수 일병처럼 신체적으로 멀쩡하게 병신이 아닌 일반인으로 귀국했다고 해서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다시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베트남 땅을 떠나면 다시 예전처럼 편안하게 사는 게 가능한가? 전쟁은 정말 끝난 건가? 부상을 당해서 고생하며 사는 신체적 병신만 사회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가? 안정효는 한병장과 변진수의 이미지로서 독자에게 아니라는 답을 전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백배 더 아픈 상처가 있다. 바로 정신적인 트라우마다. 그래서 전쟁의 아픔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 상흔은 참전한 군인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심지어 귀국할 날을 날마다 고대하며 수많은 고통을 견뎌내면서 하루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한국군들조차 귀국할 날이 다가오면 일반인들처럼 사회에 다시 적응할 자신이 없는 두려움으로 지레 겁이 난다.

> 귀국을 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했다. 나는 이 답답한 제한 상황으로부터 언젠가는 벗어날 수가 있으려나? 육체는 지치고 영혼은 발기발기 찢어졌는데, 그래도 나는 살아 있으며, 존재하는가? 그리고 내가 만일 정말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세상은 모두 그대로일 텐데, 나는 부서지고 깨어진 존재를 끼워맞추고 누덕누덕 기워서나마 옛 모습을 되찾을 수 가 있으려나? 아니면 낯선 객이 되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망각된 짐승으로 변신해 있을 터인가? 잔인하도록 강하고 무자비하게 자신을 이끌어갈 힘이 없다면 전장에서는 생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동물적인 생명력이 전쟁을 모르는 자들의 눈에는 얼마나 흉악한 괴수의 잔인성처럼 보일 것인가? 일 년 전까지는 나에게 현실이었던 생활로 되돌아간다는 과정이 웬일인지 불가능하다는 두려움이 느껴졌다. 오랜 형무소생활 끝에 무슨 경축일을 만나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 죄수의 기분이 이럴까? 나는 후천성 원시인, 야만인이 되었나? 이제 나는 누구일까?
> 나는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쫓겨날 것만 같았다. 너무나 이질적으로 변해버렸고,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고, 지옥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가 겁이 났다. (302-303면)

참전한 사람들은 걱정과 두려움이 많았다. 참전하기 전과 그 후의 생각이 분명히 달라졌다. 베트남에 가기 전에는 빛나게 전투하고 영웅처럼 귀국해서 전쟁에서 번 돈으로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참전 후 전쟁의 잔혹한 참상을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며 철수할 날만 목이 빠지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드디어 귀국할 날이 와서 기뻤어야 할 그 순간에 한국 사회로

돌아가면 재적응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걱정과 염려로 두려움이 계속되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귀국한 후에 병신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멀쩡한 병사조차도 참전하기 전의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육체적인 상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정신적인 무형의 상처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처들이 신체적인 상처보다 더 깊고 더 아프고 회복시키는 시간도 꽤 많이 걸리고 심지어 변진수 일병 경우처럼 영원히 마음속의 얼룩을 지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전쟁의 트라우마가 되어버렸다.

변진수의 경우를 고찰하기 전에 그보다 삶이 좀 더 괜찮아 보인 한병장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전쟁 후 일상생활의 리듬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일자리도 있어서 겉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한병장은 전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지우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어두운 기억이 그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듯했다. 그렇지만 한병장이 과연 전쟁의 상흔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제거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한병장이 어떤 신문에 연재한 전쟁과 관련된 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는 나중에 변진수 일병이 한병장을 찾아가게 된 단초가 되었는데 변진수와의 만남을 통하여 한병장은 자신이 아직 전쟁을 잊지 못했고 앞으로도 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전쟁은 지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과 한병장 과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로는 한병장이 일반인의 삶에 다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본인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더 이상 감격이나 혁명이 없으리라는 사실을 오래 전부터 인정했다.” (7면)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미 신비로운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나는 중국집에서 날마다 짜장면으로 점심을 치우고 영화 얘기나 하면서 살아가는 왜소한 인간이 되기 싫고, 인간으로서 해야 하고 죽기 전에 꼭 달성해야 할 무엇이 존재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날이면 날마다 남들이 써놓은 문장과 7호에서 9호짜리 활자들로 이루어진 삶을 살아갈 뿐이다. 내 존재가 마치 그 무수한 활자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22-23면)

한병장에게는 전쟁이 이미 과거의 사건이 되었지만 그 과거 때문에 현재의 삶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었다. 과거의 전쟁이 분명히

한병장의 삶에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것이 무형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병장은 전쟁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변진수 일병의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월남에서 보냈던 11개월 26일이, 잠복했던 전쟁병 증후군이" (11면) 서서히 그를 되찾아오기 시작했다. 변진수 일병처럼 죽고 싶을 정도인 트라우마는 아니었지만 전쟁의 공포스러운 악몽이 꿈속에 한병장을 찾아왔다.

> 꿈. 답답한 악몽. 나는 얼굴의 윤곽이 없는 어떤 죽은 사람과 수갑으로 손목이 채워져 있어서 벌목도로 시체의 손목을 잘라버리고 도망치려고 했지만 뼈가 잘라지지를 않았다. 치고 또 쳤는데도. 벌목도. 월남의 정글에서 쓰던 벌목도가 꿈에 보인 것은 잠재의식의 경고였을까? (7-8면)

그러나 한병장과 변진수 일병은 수십만명의 파병군인들 중에 두 사람의 사례에 불과할 뿐이다. 작가가 표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밖에 없지만 실제로 참전한 수많은 파병군인들이 전쟁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전쟁의 상흔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다.

> 한번 전쟁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 전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 성숙이 시작되는 시기에 의식의 밑바닥으로 스며드는 전쟁터에서의 경험, 감각을 마비시키는 그런 경험은 깨어나면 흘가분하게 없어지는 악몽과는 같지 않다. 인간의 과거란 잇몸에 낀 찐득거리는 더러움이나 마찬가지로 불쾌하고 끈질기다. 과거는 현재를 파먹고 덮어버리는 침전물이다. 그래서 과거에 겪은 전쟁은 현재의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가 없다. 전쟁 때문에 타의에 의해 파괴된 영혼은 십 년이 지나도 본디 상태로 재생되지 못하는 까닭에서이다. 교실에 앉아서 코울릿지와 드라이덴의 시가 어떻다고 선생님의 강의를 부지런히 받아쓰던 나는 대학을 졸업한 지 일 년쯤 후에 총을 들고 월남의 어둑어둑한 정글로 가서 인간사냥을 다녔다. 월남에서 보낸 그 일년동안에 벌어진 사건들은 영혼을 불에 달군 쇠로 지진 낙인(烙印)이었다. 살아서 돌아온 다음에도 여러 해 동안 나는 전쟁터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그려보고 되새기면서 수십 번도 더 그 상황을 다시 살았다. 그때 적이, 우리들이, 그리고 내가 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는지 아무리 따져보아도 납득이 가지 않았다. 대단위 집단을 이루고 편을 짜서 살인을 위한 기계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대량 살륙을 할 늘력은 동물들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지녔다. (23-24면)

전쟁은 끝이 없다. 특히, 전쟁 시대에 태어난 한병장의 경우에는 모든 중요한 사건들이 다 전쟁과 연루된다. 그가 "태어난 1941년 12월은 일본이 진주만과 필리핀을 공격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가열시키던 무렵이었"고 전쟁 속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을 한국전쟁 속에서 보냈고, 젊은 시절의 한 부분을 월남에서 싸우며 보냈다. 군가를 동요 대신 부르며 보냈던 어린 시절은 "눈덮인 산모퉁이 피난길과, 폭격과, 용산역이 불타는 연기와, 철수하는 미군이 학교 운동장에 버리고 간 빵과, 트럭에서 던져주던 깡통과, 야간 후퇴를 하던 군용 트럭들의 요란한 소음과, 양갈보와, 부역에 끌려 나가던 아버지와, 탱크와, 내무서원과, 재강과 꿀꿀이죽으로 때우던 끼니와, 이가 끓는 옷과, 칡뿌리와, '아까다마'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값과, '작전상 후퇴' 라는 유행어로 이루어졌었다"(37면)는 것을 기억한다. 출생배경부터 성장과정까지 모든 사건들이 다 전쟁과 관련이 있어서 한병장에게도 그렇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렸다. 사실 『하얀전쟁』에서 휴머니티의 양상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시기의 다른 작품들보다 독특한 점으로 봐도 좋다. 물론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에서도 휴머니티의 양상을 찾을 수 있지만 남녀관계에 불과하다. 반면, 『하얀전쟁』에서는 안정효 작가가 일반적인 인간의 입장으로 전쟁을 고찰한 점에서 공감을 많이 불러올 수 있다. 즉, 한국군의 입장뿐만 아니라 베트남사람의 입장까지 이해해주면서 국가-민족-당파-전선 등의 구분없이 평범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가 겪은 전쟁의 손실, 아픔, 공포 등에 대해 말한 것뿐이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백마사단에서 복무했는데 백마사단은 본래 다른 작품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부대로 묘사되었지만 『하얀전쟁』에서는 그 부대의 인물들을 훨씬 더 인간적이고 고뇌하는 병사로 그리게 된다. 오히려 그들은 베트남사람을 이해하고 무척 동정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 작품에서 전쟁에 참전한 이유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같이 살펴볼 것이다.

> 그에게서는 고독의 냄새가 나는 듯싶었다. 그리고 나는 백열의 태양이 갑자기 내 망막이라도 태워버린 듯 시야가 하얗게 표백되는 것을 느꼈다. 백의민족이어서 예로부터 흰옷을 사랑했다는 한국인들, 나의 옛 전우들은

팔뚝에 하얀 말을 그려 붙이고 남의 나라로 전쟁을 하러 갔었다. 우리들은 월남사람들이 오라고 해서 그곳 전쟁에 간 것이 아니라 미국인들의 참전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 미국 돈을 받으며 월남 땅에서 미국을 위해 싸웠다.
언젠가 저곳에 살던 대통령은 그가 이 민족을 위해 옳고 보탬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들을 월남으로 보냈다. 국제적인 체면이나, 어쩌면 한국전쟁 동안 우리들을 도와준 미국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는지도 모르지. 아니면 국가의 복지를 위해서. 그까짓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들이 목숨을 바쳐 그 대가로 벌어들인 피묻은 돈이 나라의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밑거름 노릇을 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공훈 때문에 대한민국은, 적어도 그 상부 계층은 세계 시장으로 거보(巨步)를 내디뎠다. 목숨을 팝니다 용병의 민족.' (52면)

이 인용문을 통하여 참전목적을 알 수 있다. 한병장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을 위해서 전투하고 있고 "미국인들의 참전 명분을 살려주기 위해" 목숨을 걸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미국의 돈을 받았다는 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한국군이 만약 미국을 위해서 전투를 한다고 했으면 전쟁에 억지로 갈 필요도 없고 미국의 돈을 안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지만 미국의 돈을 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라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한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도 암담하고 가난한 전쟁 후의 삶을 계속 유지했을지도 모른다. 실제적으로 한국은 베트남전쟁에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파병 첫 해인 1965년 남한의 상품 수출은 1,500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1960년대 수치 중 최고였다. 즉 1960년 초반까지 생산능력을 별로 갖추고 있지 못하던 남한 경제는 베트남전에 파병을 개시하면서 부터 무역 및 수출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었다.[217] 1964년에 630만 달러에 그친 수출량은 다음해 4배에 가까운 2,380만 달러로 급증했다.[218] (중략) 남한은 남베트남에 근로자 파견도 실시했고, 인력 수출은 1968년 말까지 계속 증가했다. 파병 초기인 1965년 남베트남의 남한인 근로자 수는 105명에 불과했으나 1966년 말 1만 명, 1967년 말에는 1만 3000명으로 20늘었으며, 1968년 말에 1만 5,500여 명으로 정점에 달했다.[219] 초기 남한 근로자의 근로 형태는 외국 기업

217) 홍규덕,「베트남전 참전 결정과정과 그 영향」,『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백산서당, 1999, 77면.
218) 최동주,「베트남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동남아시아연구』, 제 11권 봄호, 2001, 210쪽.

(주로미국)이 고용하는 형태였는데 1966년부터 남한 기업이 직접 고용했다. 이들은 참전 기간 중 남베트남에서 근무한 외국 인력의 40%를 차지했으며, 봉급과 보상비 등을 합해 1969년까지 약 1억 2천 백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군인을 포함한 남베트남 진출 인력의 송금을 통한 저축률의 향상은 사회경제적으로 남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220]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군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간 것이 맞기는 하지만 한국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참전 동기를 밝혔는데 다음으로 한국군 개인 입장 측면에서 참전 동기를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이는 바로 한국정부의 교육정책 때문인데 그 당시 한국정부는 바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면 영웅이 된다는 것과 전쟁 자체를 낭만적인 것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교육시켰다. 그래서 젊은 한국사람에게는 전쟁이 매우 낭만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었는데 막상 베트남전장에 가서 직접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전쟁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다. 이는 다른 작품들과 똑같이 시대적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영화와 문학작품에서 잘못 납득한 전쟁에 대한 영웅의 개념 탓일지도 모른다. 예술은 전쟁을 환상과 낭만으로 그린다. 죽음까지도 찬란하게 아름다운 행위로 묘사된다. 인간의 가장 숭고하고 진화된 자질이 극한상황에서 남김없이 노출되고 승화된다는 그릇된 각도에서 타인의 얘기를 통해 해석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리 비극적이고 처절한 전쟁 영화를 보면서도 속으로는 “멋있어!” 라고 감탄만 했다.(24면)

또한

나는 전쟁과 죽음 앞에서 인간이 과연 어느 만큼이나 심각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목에 힘을 주는 관념적인 사고가 여기에서는 오히려 우스꽝스럽다고 느껴졌다. 이 병사들은 죽음을 희롱하는 가면극의 광대들일까? 전쟁은 하찮은 장난일까? 사람들이 비극이라고 믿는 전쟁은 그 본질이 하나의 농담에 지나지 않는가? 전쟁과 죽음이 인상을 쓰며 따져야 마땅할 철학적 명제인지, 예술을 빚어낼 가치를 지닌 낭만적 영웅주의의 한 개념이지, 아니면 그냥 해괴한 희극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18면)

---

219) 주익종,「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베트남 특수를 일으켰나?」, 경제사학회, 2018, 58면.
220) DO THANH THAO MIEN, 앞의 글, 181면 (재인용).

그들이 영웅처럼 모국을 떠나 낯선 정글에 가서 전투하다가 귀국했을 때 사람들이 과연 그들을 영웅처럼 볼 것인가? 그들이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을 잊지 못하고 다시 일반인의 삶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포들에게는 그들이 영웅인가? 이 문제는 한국군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미국군도 그랬다. 다음 글을 고찰하면 미국군들도 다시 일반의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들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그들이 일반사회로부터 소외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미국으로 돌아가 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월남 참전 장병들이 알래스카의 산속에 모여 산다고 했다. 그들은 사회로부터, 평범하고 정상적인 인간들로부터 이질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소외되어 스스로 유형의 길을 택한 것이다.
> 미국에서는 금년에 그들을 위해서 아무도 열어주지 않던 현충일 기념식을 2백50만 월남 참전 병사들이 모여 열고 자기들끼리 서로 위로했었다. 그들이 전쟁을 끝내고 귀국했을 때 미국에서는 어떤 기념행사도 열어주지 않았다. 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월남 참전병들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다. 알래스카 산속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캐스퍼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은 월남전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더러 가서 싸우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배웠다"고 했다. 패배한 전쟁은 망각하고 '없었던 일'로 하자는 얘기지만, 역사는 흘러가도 한 인간이 스스로 겪은 전쟁은 잊혀지지 않는다. 미국이 망각하려던 악몽, 그 전쟁에서 싸우며 죽어간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왜 그들은 전쟁에서 싸우다 죽은 젊은이들을 적보다도 더 미워했을까? 현충일에 모인 2백 50만 분노한 참전병들의 행진. 그것은 이 아침 사람들의 행진과는 같지 않았다. 이길 수만 있었다면 월남전은 미국이 공산주의를 저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싸움이 아니었던가? (141-142면)

세계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전쟁에 참전해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미국 군인들이 전쟁 후 미국에 돌아가서 받은 건 차가운 냉대였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그들만의 다른 세계를 만들어 영원히 일반인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했다. 미국 국민들이 귀국한 병사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격렬하게 거부한 이유는 베트남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다. 전쟁을 경험하면서 비로소 전쟁의 본질을 깨닫고 전쟁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지만 귀국병사들이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는데 이 분위기는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철수한 후까지 계속

되었다.

> “그 모든 일이 이제는 까마득하게 지워진 과거였고 미래는 진공상태였다. 후회를 하기에도 너무 늦었다. 해만 뜨면 월남이다. 그 땅에서 일 년 동안 죽지 않고 버텨야 한다는 것만이 그에게 나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엄청난 숙제였다. 그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알 길이 없었지만. (34면)

한병장과 변진수 일병의 경우 전쟁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귀국했으면서도 미군처럼 완전히 일반의 세계와 동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남들과 다른 세상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냥 같은 한국의 땅을 공유해서 살고 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을 서로 공감해주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 ‘고향’ 땅 서울로 돌아온 나는 버스를 타고, 연탄을 갈고, 취직할 길을 알아보면서 전쟁보다도 어려운 현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 다방에 쭈그리고 앉아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갈 때의 속도감이 없으니 너무나 답답하다고 느끼며 잡담도 나누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처럼 취급했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환각 관념을 통해서 나를 관찰하려고 했으며, 월남 여자의 맛이 어떠냐는 등 이국적이고 낭만적인 얘기만 듣고 싶어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들으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비록 내가 얘기를 했더라도 그들은 전쟁을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외계에서 툭 떨어진 외토리 같은 기분을 느꼈고, 그래서 나는 1967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양평으로 찾아갔다. (58-59면)

일반인들의 시선이 참전한 병사들과 멀리 떨어지면서 파병군인들의 가슴에는 허전한 마음뿐이었다.

> 전쟁은 너무나 거센 타성처럼 엄청난 힘이어서 그 소용돌이에 휘말렸던 인간의 영혼은 완전 분해가 되어 새로 조립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변함이 없었으니,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호소할 수가 있었으며, 그들의 이해와, 일체감과, 동질적인 의식을 기대한다는 욕심은 사치라고 밖에 스스로 어떤 위안을 얻을 수 가 있었을까? (318면)

심지어 변진수 일병은 가족들이 그가 죽어버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는데 어쩌면 변진수 일병은 전쟁 후기의 대표적인 피해자라고 말할 수 있다. 변일병은 전사한 동지들의 참혹한 모습과 고통 속에서 내지르는 비명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러한 끔찍한 악몽들을 같이 나누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심리적인 충격이 점점 커지면서 잠을 잘 때도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꿈속에 계속 나타났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나면 어디서든 적의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지기도 한다. 이는 단순한 괴로움이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병이 되어버렸다. 안정효는 이 트라우마를 한병장과 변일병의 긴 대화를 통하여 자세하게 묘사했는데 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고 오랫동안 이런 섬쩍지근한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갈 수 없는 효과를 준다.

> “나에게는 모든 사람이 적이었어요. 월남에서 돌아왔을 때도 부모는 무엇 하러 살아왔느냐는 표정으로 날 쳐다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만 보면 눈을 돌렸고요. 마치 나는 존재해선 안되는 짐승이라는 것처럼 말예요. 난 그런 눈초리가 싫어서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여관을 전전하기도 했죠. 여관방에서 잠이 안 와 소주를 마시며 고생하던 그 허전한 기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토록 무섭고 참혹한 죽음의 땅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는데 왜 사람들은 날 화성인이라도 된다는 듯한 눈초리로 쳐다봤을까요? 왜 모두들 날 그렇게 따돌렸나요?”
>
> (중략)
>
> “매일 밤술에다 아티반을 서너 알씩 타 먹어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억지로 잠이 들지만 혼몽한 의식 속에서도 무언가 끊임없이 자꾸만 쫓아오는 것 같고, 잠이 깨어보면 이부자리가 식은땀으로 펑 젖어 있기가 일쑤예요.”
>
> (중략)
>
> “난 거의 매일 밤 구더기 꿈을 꿔요. 이 꿈을 처음 꾼 것은 월남에서 돌아오는 귀국선을 탔을 때부터였어요. 물론 그전에도 악몽을 자주 꾸고는 했지만 이렇게 끈질기게 똑같은 꿈이 자꾸만 반복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귀국선에서, 그 미군용 수송선에서 쓰던 식기 생각나세요? 반쯤 투명하고 새하얀 사기그릇 말예요. 그 새하얀 그릇에 담은 새하얀 쌀밥이 꿈속에 나타났는데, 갑자기 그 밥알들이 하나씩 구더기로 변해서 스멀거렸어요. 깜짝 놀라 잠이 깬 나는 구역질이 났고, 그때부터 멀미가 시작되어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밥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귀국을 해서도 구더기 꿈은 계속되었는데, 처음에는 똑같은 장면이 되풀이되다가 날이 갈수록 그 장면이 조금씩 변했어요. 똑같은 내용이 끝없이 반복되며 그 내부적인 묘사가 조금씩 달라져서 한없이 더디게 줄거리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구더기가 밥그릇 속에서 스멀거리더니 몇 달 후부터는 한 마리씩 그릇에서 흐물흐물 기어 나오는데, 구더기가 움직이는 동작은 뾰족한 대가리를 내밀고 엉덩이로 밀며 나오죠. 거머리의 동작을 좀 빨리한 것처럼요.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난 다음에는

구더기들이 모두 하얀 사기그릇에서 하얀 식탁 위로 기어 나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꿈이 되었어요. 또 몇 달 있으니까 아예 사기그릇은 없이 식탁 위에서 오글오글 기어 다니는 구더기뿐이었고, 그러다가 한 2년쯤 되었을 무렵에는 사기그릇은커녕 식탁과 의자도 없고, 아무도 없이 텅 빈 하얀 방의 네 벽과 천장과 바닥이 온통 구더기로 뒤덮여 꿈틀거렸고 그 방 한가운데 나 혼자만 서 있게 되었어요."

(중략)

"그러자 언제부터인지 구더기들이 나에게로 몰려들더니 꿈틀꿈틀 다리를 타고 기어올라와 내 몸을 덮고는 집단 이주를 하는 개미떼처럼 내 입과 콧구멍과 귀와 눈으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 기어오르니까 구더기는 한 마디도 안 남고 내 몸 속에 땡땡하게 들어가 꾸물거렸고, 그러더니 결국 땀구멍들을 벌리고 다시 와르르 기어나오기 시작해서…" (324-325면)

괴로움과 공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트라우마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조차도 변일병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들이 변일병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가 없었다. 가족의 먹이를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무사히 다시 돌아왔는데 환대는커녕 남처럼 대해주었다. 이런 것들이 파병군인들의 공포감을 더 심각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우리사회를 향해 파병군인들의 고통스런 삶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느냐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는 일단 논외로 하고 단지 베트남전에 참전한 한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을 당해서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얻게 된 것을 우선 논하고 싶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공감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므로 과거가 그대로 유지된 채 시간만 계속 흘러가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트라우마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져서 "인상이 더욱 황량해" (51면)보일 만큼 "고장난 삶"(215면) 으로 변해버렸다.

"난 정신병원으로 가기가 싫어요. 거길 가면 온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뿐인데 누가 날 죽이러 덤빌지 알 수도 없잖아요? 아마 식구들은 내가 그런 곳에라도 가서 얼른 죽어버리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327면)

이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편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한 변일병은 한병장을 찾아가서 아주 어려운 부탁을 했는데 변일병은 자신이 인간의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어서 죽음을 시도한 것이다.

> 난 머리가 아파 터질 것 같았고 온 세상이 싫어졌어요.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요, 난 오래 전부터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어요." (327면)
> "하지만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건 타인을 죽이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중략) "그래서 전 한병장님을 찾은 거예요." (327면) "전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죽여주세요." (328면)

이처럼 변일병은 본인 스스로 자살을 할 수 없어서 남에게 부탁을 하러 많이 찾아다녔는데 변일병이 한병장을 찾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한병장이 자기의 부탁을 받아주지 않으면 변일병은 죽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병장: "잘못 찾아왔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끔찍했는데- 난 이젠 그런 짓 못해. 아냐, 난 못해" - "이건 가지고 가"(329면)
> 변일병: "아녜요. 가지고 가봤자 이제는 더 부탁할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버리겠어요. 난 도저히 내 머리에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겠어요." (329면)

한병장은 처음에 변일병의 부탁을 거부했다. 그런데 변일병이 힘없이 멀리 사라져가는 뒷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저렇게 쫓기며 살다가 결국 그는 어떻게 될까? 오늘 밤에는 의정부의 어느 하숙집에 들어가 숙박부에 가명을 적고 술에다 약을 타서 먹고는 억지로 잠을 자겠지만, 내일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모레는? 저렇게 힘빠진 걸음으로 그는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으려나? 이 순간에 그는 영원히 내 앞에서 사라질 터이지만, 과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그는 이 엄청난 도주를, 힘겹고 끝없는 형벌을 끝내지 못하는가? 왜 그는 영혼의 유형지를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미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꺼내 차가운 총구를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그러면 더이상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악몽도 사라지고, 비록 생물체로서는 존재하지 못한다손 치더라도 고통과 악령의 추적은 당장 끝날 텐데. 변진수의 전쟁은 언제 끝나려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벌써 십년 전에 끝난 전쟁이 왜 그에게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까?" (330-331면)

그러다 결국은 변일병의 부탁을 수락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었다.

> 나는 권총으로 변진수의 목을 겨누었다. 공중전화 옆에서 연애를 하던 아이들과, 정체된 시간을 새김질하며 벤치에 앉아 있던 노인들과, 혹시 길을 잃으면 연락을 해달라고 국민학교 학생의 콧물수건처럼 전화번호를 가슴팍에 달고 철책 앞에서 오락가락하던 풍맞은 할머니와, 사철나무 울타리 앞에서 사진을 찍던 젊은 남녀와, 청량음료를 팔던 가게주인이 무슨 영화라도 촬영하는 줄 알았는지 호기심이 어린 표정으로 우리 두 사람을 쳐다보거나 촬영기가 어디 있는지 두리번거렸다.
> 나는 방아쇠를 당겼다. 변진수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또 한번 공포와 경악의 표정을 짓더니 부서졌고, 총성이 아득하게 울렸고,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331면)

변일병은 마지막 장면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서 이젠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고 길고 편안한 긴 숙면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에게는 죽음이 마지막 선택이고 가장 적합한 선택이었다. 안 그러면 평생 끝날 때까지 단 한 순간도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의 악몽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를 물고 늘어지며 따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변일병은 이제서야 전쟁과의 악연을 끊었지만 계속 살아가야 할 한병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여기서 안정효 작가는 독자에게 큰 물음표를 준 것 같다. 전쟁을 단순하게 죽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베트남 전장에서 가난하고 죄없는 시민들을 죽인 죄를 변일병의 죽음으로 보상할 수 있는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가? 전쟁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절대 아니다. 과거는 하나도 안 변할 것이고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도 없다. 따라서 살아있는 한병장은 앞으로도 계속 과거의 전쟁과 함께 싸우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에게 사죄를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살아남은 군인들의 상처를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전쟁에 대해 어떤 태도와 인식을 가지는 게 올바른 것인지가 군인 가족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정부에게 묻는 공통 질문이 될 것이다.

> 살인의 충격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 그것은 의식적인 극복이라고는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멍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거부하고 부인하려는 본능적 심리작용일 따름이었다. 시름시름 앓아야 하는 오랜 질병처럼 죽음은 내

머릿속에서 말끔히 지워지지는 않았지만 한 꺼풀씩 속에서부터 벗겨져 뒤집히고 사라지듯, 모두가 환각이요 공허감 뿐이라는 희미한 의식만 남았다. (175-176면)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공포와 상처를 이겨내고 마음의 허전한 공간을 채우는 데는 군인 자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사회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포스러운 전장에서 싸움을 마치고 귀국한 군인들이 평화로운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온 사회와 정부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4.2. 후세들의 후유증

4.2.1. 고엽제 문제

베트남전쟁이 끝난지 46년이나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관점도 있다. 총을 들고 적을 향해 쏜 것은 과거로 흘러갔지만 전쟁으로 인한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처들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속에 남아있다. 따라서 이런 전쟁의 후유증은 참전자에게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후세들에게까지도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달리 말하면 전쟁에 직접 참전한 군인들에게만이 아니고 전후에 태어나서 거의 전쟁과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지금까지 1960년대에 발표된 베트남전에 대한 첫 작품인 『물결은 메콩까지』부터 1980년대에 전쟁 후 트라우마에 대해 묘사한 『하얀전쟁』까지를 살펴보았다. 각 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인식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한국정부 및 한국군의 생각을 알 수 있었다. 『하얀전쟁』에서 변일병은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트라우마에서 벗어났다. 그렇지만 참전자들 중에 변일병처럼 죽음을 택하여 전쟁과의 악연을 끊고 고통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리고 본인의 죽음으로 죄없는 양민을 살해한 것에 대해 보상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타당한 방법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영한은 유일하게 변일병의 탈출로를 만들어줬을 뿐이지 다른 사병들이 따라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아니었다. 사실 다른 사병들도 변일병처럼 정신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상처도 가지고 있어서 그 상처를 평생토록

함께 안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전쟁의 후유증을 전해들은 후세들이 전쟁의 후유증을 가슴에 품은 채 남들처럼 일반적인 삶을 살 수는 없다. 또한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에 대한 논쟁은 아직 계속되고 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지난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불러 일으키면 잊고 싶은 상처가 더 깊이 새겨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전쟁에 대한 언급을 피해서 나라의 역사를 완전히 망각해버리면 그 나라는 지속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 누구든 어느 국가든 역사와 분리되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또한 같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각 국가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사실 베트남전쟁 문제를 집중해서 고찰해보면 베트남전쟁에 대한 한국과 베트남의 인식 차이가 아직까지 있다. 알다시피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을 구국항전이나 통일 전쟁, 인민전쟁으로 본 반면에 한국은 이 전쟁을 국제전, 내전, 비정규전의 중층적 성격으로 보고 냉전적 성격에 치우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양국 정부의 정책에 의존한 양국 교육 시스템들도 후세들에게 교육 내용을 다르게 가르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양국의 후세들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관으로 인해 분명히 충돌이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은 한국이 "미국 주도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한국 전쟁사와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베트남 전쟁은 그간 역사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은폐된 민간인 학살. 혼혈아. 고엽제 피해와 같은 불편한 기억들을 21세기 한국 역사의 무대에 소환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 할 것이다."[221] 한국군뿐만 아니라 베트남 군인을 포함한 후손들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재인식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46년이나 지나간 전쟁이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인식차이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다. 베트남전쟁은 그 시점에 전쟁과 직접 연루된 사람들의 인식만 볼 것이 아니라 훗날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을 보고 그들의 인식이 서로 다름도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한국문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이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

221) 음영철, 앞 논문, 369면.

(2013), 정인의 「이식 그 언저리」(2016), 방현석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2003), 최은영의 「씬짜오 씬짜오」(2016)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베트남전쟁은 한국군병사와 그들의 가족에게 여러 후유증을 주었다. 안정효의 『하얀전쟁』에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반영한 반면에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에 집중했다. 이대환은 1996년에 단편 『슬로우 불릿』을 발표해서 2001년에 장편으로 개작했고 2013년에 다시 중편으로 수정했다. 1996년 단편에는 주인공 김익수가 고엽제 피해자의 입장으로 한국군의 비극을 바라보기만 한 반면에 2001년 장편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베트남전을 둘러싼 다양한 배경을 표출하여 가해자로서 베트남사람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묻고 동시에 고엽제 사용의 주체인 미국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2013년 수정판인 중편은 단편과 장편의 한계를 보완해서 한결 예술적 완성도를 높였는데 본고는 3 판의 완성도를 고려해서 2013년 수정판인 중편에 초점을 두고 연구해보고자 한다.

『슬로우 불릿』은 호미곶에서 태어난 평범한 청년 익수가 베트남 전쟁터로 들어간 상황을 배경으로 시작한다. 그가 베트남전에서 화약병으로서의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 고엽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나서 모든 살림과 무거운 짐을 아내인 숙희가 짊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독자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드는 것은 영호와 영섭 두 형제마저 아버지의 병을 물려받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222] 이 소설은 아버지 익수의 죽음과 아들 영호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났는데 아버지 익수는 "부조리한 현대한국사의 희생양"[223]으로 삶과의 악연을 단절하고 아들 영호는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인생길을 하직했다. 어쩌면 영호에게는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제한된 수명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224]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대환 작가는 지금까지 알아본 작가들과 달리 베트남전쟁에 직접 참전해본 경험자는 아니다. 그는 "인간의 삶이 역사와 만나는 장경에

---

222) 방민호,「역사적 운명의 탐구, 가려진 진실의 재현, 설로우 불릿 해석」, 이대환 지은, 전송희 옮김, 『슬로우 불릿』, ASIA, 2013, 206면.
223) 방민호, 위의 글, 224면.
224) 방민호, 위의 글, 214면.

관심을 가진 작가”[225]로서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병사 가족의 이야기를 여러 작품을 통해서 그렸는데 『슬로우 불릿』이 그 대표작이다. 전쟁이 아니었으면 익수의 가정은 다른 평범한 가정처럼 화목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베트남 전쟁에서 화생방공격 전문병사로서 근무하다가 한밑천 챙겨서 돌아와 행복하게 사는 자랑스런 참전용사가 아니었다. 미국과 권력이 김익수 병장에게 그려주었던 이상적인 미래는 오지 않았다. 이대환 작가가 베트남전쟁 참전이유를 많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수많은 작품에서 이미 논한 만큼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서 논쟁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2001년에 발표된 장편에서 주인공 익수가 국가의 경제전사로서 전투에 나간다는 것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따라서 주인공 익수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희생한 자신의 자부심을 드러내는 대신 본인의 참전목적에 중점을 두고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두근두근 뛰는 가슴으로 베트남 땅에 첫발을 놓았다”(40면)고 묘사했다. 또한 이대환은 날마다 김익수 가정의 식구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삶에 초점을 둔 증언문학으로서 전쟁의 죄악상을 보여주면서 아직 알려지지 못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이상도 발견되지 않는군요. 그러니 수술을 시도할 수도 없어요. 솔직히, 의학적 호기심도 생깁니다만, 기적을 기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52면)

또한

> 더욱 놀란 일은 2세에도 고엽제 후유증의 유전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0면)

익수가 전쟁터에서 돌아온 뒤에 첫 아들 영호를 낳았는데 “영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그해부터 그는 일 년에 몇 차례씩 멀쩡히 앉아 있다가도 느닷없이 전신마비 증세를 일으켰다.”(54면) 이런 상황에서 원망에 가득 찬 영호는 자신의 무력감과 아빠에게 쌓인 분노를 쏟아 놓았다. 영호는 아빠에게 “아버지-, 아버지-. 내가 나무를 죽였습니까, 베트콩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요, 아버지-.”(54면)라고 소리를

225) 방민호, 위의 글, 200면.

질렀다. 실제로 영호뿐만 아니라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원망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주기가 어렵다. 한편, 고엽제 후유증을 아들 영호에게 물려주었다는 죄책감으로 가득한 익수는 본인도 고엽제 후유증때문에 셀 수 없이 여러 번 응급실에 가거나 "요강이 골싹하도록 피를 게워냈"(51면)기 때문에 아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원망하던 영호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뒤늦게 반성하며 죽은 아버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온전한 인간을 회복"(184면) 하겠다는 의미에서인지 빙긋이 웃으며 마지막 숨을 멈췄다.

영호가 자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철저히 파멸적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비관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극단적인 저항 형태로서 강렬한 생명력의 한 표현이라는 아이러니적 상황을 낳고 있다. 그것은 곧 저항의 시발점으로서의 신체를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226] 영섭의 경우는 다행히 고엽제 후유증이 없었지만 가족력 배경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 영섭이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여자 친구는 불안한 나머지 영섭과 계속 사귀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이 때문에 영섭도 불쌍한 가족들을 무시했는데 여기서 베트남전쟁이 파생시킨 문제의 범위가 아버지 익수와 첫 아들 영호 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 전체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슬로우 불릿』은 베트남전 고엽제에 관한 한국 문단의 첫 소설이다. 여러 번을 개작하면서 등장인물들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버지 김익수는 처음에 자신의 문제인 고엽제 후유증을 첫 아들 영호에게 물려준 죄책감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고찰하면서 분노와 원망을 표시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판인 장편으로 들어와서 영호의 생각에 중심을 두고 김익수와 영호 간에 대립적인 인식을 보여주면서 가해자 입장을 인정하고 이 고엽제때문에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은 바로 베트남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런 시각으로 베트남전의 비인도적인 성격과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바라봤는데 재미있는 점은 베트남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주체가 참전군인이 아닌 전쟁과 먼 관계에 있는

226) 윤애경,「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2세의 형상화 양상」, 현대문학, 우리어문연구 50집, 2014, 264면.

그들의 후세라는 점이다.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책임과 참회에 대한 후세들의 인식이 더 강해지고 뒤 이어 나올 작품들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4.2.2. 라이따이한 문제

전쟁은 싸움일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벌어졌는데 성매매나 강간이라는 문제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 문제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없어질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악영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군인과 성매매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한국군과 베트남 여인과의 성매매를 두 사람 간의 허접한 거래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거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베트남전쟁 시기에 한국군과 베트남 여자 간에 발생한 문제이며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에서도 언급되었다. 그리고 성매매나 강간처럼 사랑이 없는 관계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한국군과 베트남 여자와의 관계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남았다. 전쟁이 끝나고 베트남을 떠나서 모국으로 돌아간 한국군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져서 많은 경우 자기의 핏줄까지 남겨놓았다. 이런 아이들을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르는데 평범한 아이들과 다르다.[227] 이러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본인의 아버지를 모르고 원망하기도 한다. 게다가, 아빠를 다시 찾고 싶어서 나중에 재회를 하더라도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없었다. 이처럼 전쟁이 전쟁터에 직접 참전한 군인들에게 뿐만아니라 후세들에게까지도 부정적인 영양을 주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제는 문학에서도 반영되는데 본고는 정인의 단편 「이식 그 언저리」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작품은 2016년에 『21세기 문학』에 발표되었다. 주인공은 라이따이한 여자인데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아버지가 그녀의 존재를 모른 채 모국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부모님은 딱 일 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227) 보통 라이따이한이라 하면 베트남 전쟁 당시 사이공과 다낭, 귀뇬, 나트랑 등 한국군 주둔 지역에서 우리 군인이나 기술자와 베트남 현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2세를 말한다. 이는 현지에서 가정을 꾸려 출산한 경우도 있지만, 일부 주장에서는 매춘과 강간에 의한 경우도 있다는 보고도 있다.(이춘호,「베트남 '라이따이한'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제9권3호, 2018, 492면.)

어머니는 “여자가 평생 받을 사랑을 다 받았다”며 (102면) 그 시절을 회상했다.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그녀의 어머니 역시 다른 베트남 여자들처럼 평범한 인생을 살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사랑하는 남자를 다시 만날 기약도 없이 부대끼며 살았지만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다시 만나지 못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처음 한 마지막 사랑”(104면)이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행복한 결말을 같이 만들어 낼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에게 아버지의 은반지와 어머니가 쓴 편지를 전해주었는데 그녀는 그 유물을 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 한국에 와서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되었다. 그녀가 한국에 와서 아빠를 찾는 행동은 본인의 원천을 되찾는 것과 같다. 전쟁 때 태어나서 엄마의 조국과 아빠의 조국이 다른 전선에 서 있더라도 아빠의 모국이 본인의 원천이라고 인식한다. 정인 작가는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국가 간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 그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었다. 여기서 주인공의 한국 아버지는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그녀를 본인의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그가 그녀의 베트남 어머니를 사랑한 것처럼 딸에게 지금까지 못해준 사랑을 해주고 또 해줬다. 그녀도 아버지가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지 않도록 밤을 낮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았다. 이는 그녀에게 “힘이 되었지만 동생이나 동생의 어머니에겐 참기 힘든 일”이 되어 버렸다. (104면) 그녀가 아버지를 다시 만나서 아버지 곁에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 좋은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미처 몰랐다. 결국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가 나빠져서 배다른 동생은 그녀를 증오하게 되었다.

> “넌 소름 끼치도록 질기고 독한 인간이야. 난 네가 싫어.”(104면)

그리고,

> “난, 이제부터 널 증오할 거야. 어디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네가 오기 전엔, 나 이렇게 비참하지 않았어. 넌 우리 엄마랑 나를 지옥으로 빠뜨렸어.” (105면)

그녀가 일부러 동생과 동생의 어머니에게 비극을 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출생자체가 평범한 출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과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다 불행을 겪게 됐다. 그리고 친척들은 그녀 앞에서 웃기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다. 그녀의 베트남 엄마와 그녀, 한국동생, 그리고 한국 어머니 모두에게 비극의 근원은 다 그녀의 남다른 출생 때문이었다. 선택권이 없는 출생이었지만 그녀도 피해자라고 생각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처럼 라이따이한 문제는 한국군과 베트남여자 그리고 그들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자식 간의 문제지만 이 문제는 세 사람의 문제를 벗어나 그들의 새로운 가족들과의 문제로 확대된다.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자식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본인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피해자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은 한국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해주지 못했다. 이를 통해서 전쟁에 참전한 사람과 참전하지 않은 사람의 사고방식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다.

그녀는 한국 가족들과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집밖에 나가서 살고 싶었는데 마침 일본으로 유학할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그녀가 일본에 간 것이 또 하나의 비극을 불러일으킬 줄은 미처 몰랐다. 일본에서 한국인 교포 남자와 사랑에 빠졌는데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단초가 되었다. 어느 날 둘이 남자 집에서 “벌거벗은 채 서로에게 탐닉해 있을 때” 그 남자의 아버지가 “아무런 기척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91면). 남자의 아버지는 그녀의 벌거벗은 몸을 재빠르게 훑어보며 그녀의 출생비밀을 바로 알아차린 후 모욕적인 말을 했다.

> 그의 아버지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미처 가리지 못한 내 몸을 재빠르게 훑어보았다. 유리파편처럼 날카롭고 싸늘한 눈길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쏘아보면서 차갑게 내뱉었다.
>
> “사귀려면 한국 애를 사귀어! 쟤는 아냐!”
>
> 그 순간, 나는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의 아버지가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는데 온몸이 마구 떨렸다. 내 출생의 비밀을 한눈에 알아본 그의 아버지가 무서웠다. (91면)

남자의 아버지가 순수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며느리를 원했기 때문에

순수한 한국여자가 아니고 혼혈아인 그녀는 안 된다.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은 그녀가 선택권이 없는 출생으로 인해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받았다. 단지 순수 한국 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랑하는 남자와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인사도 나누지 못한 채 두 사람은 헤어졌다. 그녀가 남자와 헤어진 뒤 남자의 아버지를 잊으려고 오랫동안 애를 썼다. 왜냐하면 남자의 아버지가 준 상처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 불행이었기 때문이다. 남자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 받은 상처를 잊지 못한다. 15년이 지나서 갑자기 남자가 한국에 돌아와 그녀의 집을 찾아와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당했던 모욕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 남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실제 이유는 남자의 아버지가 자신의 유골을 고향 앞바다에 뿌려 달라고 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남자가 귀국한 실제 이유를 알게 되자마자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지며 마음 속 깊이 가라앉아 있는 상처가 다시 떠올랐다. 한 순간도 잊지 못한 아픈 기억이 마치 “커다란 눈물주머니가 있어 언제든 터뜨려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98면) 것 같았다.

그녀가 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에 와서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살면서 공부를 했지만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자신의 출생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혼혈이란 기정사실을 바꿀 수 없었던 그녀는 철저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선택할 수 없는 출생으로 인해 평생동안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다. 이 비극은 그녀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모든 라이따이한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상흔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잔존해서 신체적인 아픔보다 더 크고 회복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한국군인인 아버지와 베트남 여자인 어머니는 전쟁으로 인해 행복한 결말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 결말은 그 당시의 대부분 사람들의 결말이기도 했다.

1973년 베트남전쟁이 휴전상태로 접어들고 이후 1975년 북베트남의 공격으로 남베트남이 멸망하면서 라이따이한은 그대로 베트남에 남겨지게 되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1975년 베트남이 패망하면서 한국정부가 라이따이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이들이 한국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것이 확인된 경우 교민철수 행렬에 넣어주었다. 하지만 사이공 함락이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한국 대사관에서 파악한 교민과 라이따이한의 수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탈출을 요청한 상황에서 부정한 사람들이 전혀 무관한 현지인에게 자리를 매매하는 바람에 막상 탈출해야 할 2세들이 탈출을 못하고 베트남에 남겨졌다. 게다가 매춘이나 강간에 의해서 태어난 라이따이한들은 탈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많은 사실혼 관계의 자녀들이 철수 시 버려지거나 아예 철수행렬에 동참하지 못했다. 그 후 라이따이한 일부를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시도했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국교 단절로 인해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다행히 아버지를 찾아서 부녀간의 정을 나눌 수 있었지만 실제로 많은 한국군이 귀국 후 자식의 존재를 영원히 모른 채 지냈는데 그들의 자식들 또한 아버지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더라도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소설에서 표출된 것처럼 그녀의 동생과 동생의 어머니는 그녀의 존재때문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지옥에 빠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정인의 「이식 그 언저리」에 나타난 이야기가 그중 하나로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이 주인공 외에도 5천명 이상으로[228] 추산되는 라이따이한이 베트남과 한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한국인도 베트남인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에 갇힌 채 갖은 냉대와 편견 속에서 고달픈 삶의 악순환을 겪으며 살아가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229]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주인공의 동생이 주인공을 계속 원망하고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기 때문에 서로 화해를 한다는 것은 아직 요원한 것처럼 보인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라이따이한의 문제 해결은 일방적인 노력이 아닌 상호 이해와 포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4.2.3. 학살로 인해 입은 상처 발견 및 참회

228) 당시 남겨진 라이따이한에 대한 공식자료는 전무하며, 일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5천명에서 많게는 3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춘호,「베트남 '라이따이한'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21, 제9권3호, 2018, 492-493면.)
229) 윤애경,「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2세의 형상화 양상」, 현대문학, 우리어문연구 50집, 2014, 255면.

이 작품은 2003년에 발표되어 전후 베트남 사람들의 삶을 묘사하고 한-베 관계에서 잊고 싶은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킨 작품이다. 이 소설은 전후 남-북 베트남이 하나로 재건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사이공 (현재 호치민 시)이며 주인공은 주 베트남 한국회사에 다니고 있는 건석이다. 건석은 베트남어를 할 수 있고 리엔이란 베트남 여자와 연애를 하고 있다. 그런데 리엔의 가족은 모계사회 소수민족인 에데족으로 리엔의 마을 사람들은 베트남전쟁 때 한국군의 학살로 모두 다 죽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건석의 아빠가 그 학살에 참가했던 따이한군이었다는 것이다. 부언하면 그때 "맹호 사단에 건석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무고한 에데족 사람 137명을 학살한 부대원 중 하나였다."[230] 그래서 리엔과 건석의 사이에는 아직 넘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건석과 리엔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의 양국 사이에서 전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이야기 들이다. 1992년에 한국과 베트남이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양국 국민들에게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과 후유증은 계속 남아있다. 이런 후유증은 전쟁에 참전한 양국의 군인들에게도 미치고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후세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중에 건석과 리엔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어렸을 때 한국군이 리엔의 마을 사람들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목격하고 나중에 북베트남의 군인이 되어 한국군과 대립적인 전선에 서 있다가 지금은 한국회사에 다니고 있는 러이란 인물도 있다. 이 사람은 전쟁에 참전했고 지금 한국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한국 사람과 갈등이 생겼다. 이런 모순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끼어 있는 건석은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러이의 고향까지 찾아갔다. 이 과정을 통하여 건석은 학살사건과 러이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 이 사건은 건석의 베트남전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를 일으켜서 참회와 화해를 시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리엔은 건석에게 일기장처럼 생긴 책을 주면서 빠짐없이 다 읽으라고 요청했다. 이 일기를 읽고 나서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베트남 전쟁의 잔혹한 현실을 잘 묘사했다. 리엔은 건석이 베트남전쟁에 관한 책을 읽고 건석이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스스로 발견하기를 바랐다. 건석이 러이의 마을에 직접 가서 학살사건에

230) 응웬 티 탄 쑤언,「베트남에 관한 한국 소설 두 편 속의 참회와 화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방현석의 「랍스타를 먹는 시간」을 읽고」, 국제언어문학, 2017, 192-193면.

대한 진실을 러이에게 직접 듣고 베트남전쟁에 대한 생각과 인식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 러이와 건석의 대화를 같이 살펴볼 것이다.

"당신은 아는가? 열세살, 그것이 어떤 나이인지를."
엉뚱한 질문을 던지는 러이는 술과 회한에 잠겨 있었다.
"우리 에데족은 열세살을 꽃보다 아름답고 새보다 발랄한 나이라고 하지. 마을에서는 그 나이가 된 아이들을 위해서 해마다 잔치를 열어주었지…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빛나야 할 열세살, 나의 그 아침은 축복이 아닌 저주로 다가왔어."
러이의 생애에 저주의 화인을 찍은 그 아침은 짙은 안개를 뚫고 다가왔다. 그 아침은 매일같이 사람들을 깨우던 새들의 지저귐과 함께 오지 않았다. 새들의 노래를 시샘하는 닭의 홰치는 소리와 함께 오지도 않았다. 저주는 포성을 앞세우고 '박정희군대'와 함께 러이에게 찾아왔다. 한국군이 주둔하던 떤산 쪽에서 시작된 포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을 가까이 다가왔다. 마을 일을 맡아보는 끼엣 아저씨가 러이의 집까지 쫓아와 땅굴로 숨으라고 한 것은 어둠이 물러가고 짙은 안개만 남은 이른 아침이었다. 물 한대접을 얻어 마시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끼엣 아저씨가 돌아간 다음 총소리가 마을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러이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마당 옆에 파놓은 땅굴로 몸을 숨겼다. 카사바를 삶으려고 피운 불을 끄지도 못하고 땅굴 속에 숨은 그들의 귓가에 요란하고 어지러운 총소리가 들려왔다. 마을을 가로질러온 총소리는 마침내 그의 마당에 들어섰다. 숨을 죽이고 움츠린 몸을 더욱 움츠렸지만 군인들은 금방 땅굴을 찾아냈다. 그들은 총알과 고함을 번갈아가며 땅굴의 입구에 퍼부었다. 러이의 가족이 땅굴에서 기어나온 것은 끼엣 아저씨 때문이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게 끼엣 아저씨 맞죠?"
러이는 노인에게 물었다.
"끼엣 아저씨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어. 아저씨는 마을의 입구에 있는 스응씨네 집 땅굴에 따이한들이 수류탄을 던져 넣는 것을 보았으니까. 땅굴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죽었지 않아?"
"알아요. 끼엣 아저씨는 동네의 궂은일을 다 맡아서 처리하는 좋은 분이셨죠. 원망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러이의 가족은 다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떤 땅 킴씨네 논 가운데로 끌려갔다. 끌려온 사람들 가운데 젊은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 장정들은 모두 산으로 들어가고 마을에 남은 것은 여자와 아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노인들뿐이었다.
'그 자리에 붙들려온 아이들 가운데서는 나와 꾹이 가장 컸지요."
러이가 말하는 꾹이 팜 반 꾹을 가리키는지 묻고 싶었지만 도저히 건석이 끼여들 분위기가 아니었다.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굵은 사탕과 먹을 것을 나누어주었다. 겁에 질려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며 조금은 안도했다. 그러나 긴 시간이 흘렀지만 마을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뜨거운 태양이 중천에 솟아올랐을 때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눈을 감고 논 가운데 모여서라 했다. 군인들이 타고 온 트럭의 포장이 걷어 올려지는 순간 사람들은 비로소 상황을 직감했다. 트럭 위에 설치된 것은 기관총이었다.

"우리는 베트콩이 아니다."

남베트남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내보이며 호소하던 끼엣씨가 가장 먼저 총알밥이 되었다. 그리고 지옥의 시간이 지나갔다. 러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총소리는 멎어 있었다. 화약과 피비린내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는 총소리보다 더 무서웠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름끼치는 신음소리가 그의 귀를 파고들었다. 고개를 들자 주변 사람들의 창자가 논바닥에 쏟아져나와 김을 뿜고 있었다. 그러나 러이의 머리는 바로 땅바닥에 박혔다. 그의 머리를 찍어누른 것은 어머니의 손이었다. 어머니는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지만 다른 한 팔로는 여동생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143-144면)

방현석은 학살사건을 자세히 묘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작품 전에 베트남전쟁과 한국군의 참전 동기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는데 이미 언급한 작품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히 한국군의 생각과 인식의 변모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베트남 전쟁터에서 죄없는 양민을 학살했던 사건을 방현석만큼 과감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작가는 아직 없었다. 안정효의 『하얀전쟁』에서는 한국군의 트라우마 또는 후유증을 통하여 양민학살의 문제를 어느 정도 인정했지만 「랍스터를 먹는 시간」은 한국군의 만행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는 한국 작가가 베트남전쟁의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왜 「랍스터를 먹는 시간」에 와서야 이러한 변화를 볼 수 있는가? 1992년 한-베 외교관계가 맺어진 후에도 여러 작품이 발표되었는데 왜 2003년에 이르러서야 이런 사실을 문학작품에서 과감하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한국문학의 변화 추세가 한 원인이다. 한국문학은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문학 전반부에서는 '국경'과 '민족'을 넘어서 '세계화'와 '세계문학'을 향하여 여러 작품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그 '세계화' 또는 '세계문학' 속에서 서양이란 소재들이 주로 발견된 반면에 한국과 서양보다 더 가까이 관계한 아시아적 요소들을 많이 찾지 못했다. 그리고 2000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한국문학에서 아시아적 요소를 반영하는 분위기가 일어난 것이다. 이를 김경민은 「한국문학이 아시아와 마주하는 법」이란 논문에서 증명했다[231]. 김경민에 따르면 한국문학은 '민족' 이라는 범주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세계라는 요소를 많이 가미시켜서 문학을 창작했다. 그렇지만 '세계' 라는 단어가 너무 서양 에 중심을 두었다며 남아있는 '아시아' 라는 공간이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232] 그렇지만 방현석의「랍스터를 먹는 시간」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아시아적으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233]고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과거에 다른 국가를 점령하는 방식인 침략전쟁과 같은 제한된 성격과 달리 아시아 사람의 일반적인 사생활을 그렸다. "더 나아가 이 소설은 아시아인들의 현재의 삶을 형성한 그들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우리의 과거 모습에 대한 반성으로까지 나아간다." [234] 사회적 추세에 의존한 한국문학은 그 당시의 독자의 경향에 맞춰서 2000년까지는 베트남 또한 다른 아시아 나라에 관한 요소들을 문학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와 베트남에 대해 흥미롭게 관심을 가지고 많은 작품을 창작하게 되었다. 방현석은 이 추세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래서 베트남사람 일반의 삶을 간단하게 표출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벗어난지 얼마 안 되는 베트남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한국군이 참전 시 범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건석이 러이의 마을에 직접 가서 진실을 찾아내는 과정을 통해 체득한 인식의 변화로 건석은 베트남 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 "처음부터 우리가 따이한을 증오했던 것은 아니네. 따이한은 미국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전한 용병일 뿐 적이 아니라고 우리는 배웠고, 또 그렇게 믿었네. 그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 그럴 수밖에 더 있겠나." (149면.)

---

231) 김경민, 「한국 문학이 아시아와 마주하는 법」, 국어국문학, 2020.

232) "아시아는 최근 한국문학이 새롭게 주목하고 발견한 문학 영토로 각광받고 있다. 아시아는 더 이상 낯선 영토가 아니라 한국문학이 적극 포섭하는 문학 영토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는 전망이 나온 지도 벌써 십 년 전이다. (김경민, 「한국 문학이 아시아와 마주하는 법」, 국어국문학, 2020, 305면.)

233) 김경민, 「한국 문학이 아시아와 마주하는 법」, 국어국문학, (192), 2020, 301-329, 초록.

234) 김경민, 앞 논문, 초록.

위 인용문에서 베트남사람이 한국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적이 아닌 인식에서부터 적이 된 인식에 이르기까지 변화의 근원을 이해하게 된 건석은 본인이 배웠던 것과 들은 것과 다른 베트남전을 스스로 재검토하고 재인식할 필요를 느꼈다. 그 후 건석이 러이의 마을을 떠나 도시로 다시 돌아가면서 리엔과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참회와 화해란 마음을 표시한다. 그렇지만 건석과 달리 건석의 상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러이의 사정을 잘 모르고 여전히 베트남전쟁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 건석과 상사는 한국인의 베트남전쟁에 관한 두 갈래의 인식을 대표한다.

> 이런 불편한 과거를 소환한 것일까. 타자와의 관계는 단지 상대에 대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가령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혹은 부정하고 싶은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분명히 해야 비로소 그 대상과의 제대로 된 관계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과 아시아인들을 향해 보인 반응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과는 무관한 대상이라 여기며 무관심하거나 무지했으며, 그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거나 미국이라는 힘센 나라 뒤에 숨어서 변명과 자기합리화를 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
> 이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식의 회피나 무관심,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 등을 가리켜 스탠리 코언은 '부인(denial)'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며, 이 또한 상대에 대한 가해 행위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235]

"1992년 12월에 체결된 한-베 수교와 1999년에 이루어진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폭로는 베트남전쟁의 진실을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두 사건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베트남전쟁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군뿐만 아니라 베트남 군인을 포함한 후손들의 기억을 재구성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기 때문이다."[236] 그래서 2000년 이후 베트남전쟁에 대해 재인식해야 된다는 논쟁이 일어났는데 방현석은 이런 문제점들을 문학에 담아 표출하는 대표적 작가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베트남

235) 김경민, 앞 논문, 318면.
236) 음영철의「베트남 전쟁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전승과 트라우마 양상」,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20, 369면.

전쟁에 대한 기억이 일부 억압되었으며 베트남에서는 한국군을 미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억이 무시되고 있다.”[237] 1980년대 말부터 민간인 학살, 고엽제, 혼혈아 등이 거론되면서부터 베트남전쟁에 대한 대항기억이 형성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억하는 주체에 따라 역사적 사건의 재구성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가 타인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할 때, 공식기억은 대항기억에 의해 도전을 받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현석 작가와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가는 베트남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방현석이 외국으로 간 첫 국가가 바로 베트남이었는데 그가 베트남 방문 전에 베트남에 관한 『사이공의 흰옷』이란 소설을 읽고서 베트남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이다.

> 『사이공의 흰옷』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베트남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와 유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랑 다른 체제에 살고 있으니까 더 호기심이 생기고 궁금했어요. 언젠가 세상이 좋아져 베트남에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 못했죠. 그때만 해도 외국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238]

작가는 베트남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면서 베트남을 여러 번 다녀왔는데 베트남을 알면 알수록 더 친숙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 그 당시엔 방현석보다 베트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방현석 작가는 노동자 소설가로 유명해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그런지 베트남 노동자들의 삶에 심정적으로 크게 공감했다. 방현석은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들을 노동자로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썼다. 노동자들이야말로 값진 땀을 흘려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하고 우리 사회를 아래로부터 지탱하면서 묵묵히 삶을 일구고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가정을 지켜나갔기 때문이라고 한다.[239]

지금까지 왜 「랍스터를 먹는 시간」이 베트남전쟁에 관한 특별한 작품이 될 만한지 객관적인 이유와 주관적인 이유들을 살펴봤다.「랍스터를 먹는 시간」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국의

---

237) 음영철, 앞 논문, 370면.
238) 이재은,「아시아의 정신은 스토리텔링이다」, 월간조선, 2014.
239) 이재은, 위의 글.

국민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정치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결과지만 문제는 두 국가의 상호교류와 확인과정을 통하여 양국의 국민들이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그 역사를 어떻게 재인식해야 되는지를 더 깊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전쟁의 아픔과 상처와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다. 따라서 전쟁과 직접 연루된 러이나 2차 세대인 건석이나 리엔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3차 세대나 앞으로 또 많은 후세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유령처럼 붙어 다닐 수도 있다.

4.2.4. 역사인식 차이로 인해 잃은 소중한 관계

이 작품은 베트남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시작된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온 두 가족이 독일에서 우연히 이웃이 되어서 친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변고가 나지 않았다면 두 가족은 더 길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인 주인공 가족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낯선 독일에 와서 베트남사람인 호 아저씨와 응웬 아줌마 부부를 알게 된다. 주인공의 아빠는 호 아저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주인공은 호 아저씨의 외아들인 튀와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전개했다. 응웬 아줌마 부부와 주인공 가족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였으며 응웬 아줌마는 주인공의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어디가 불편한지 알고 있었고, 배관공을 부르거나 집주인과 이야기해야 할 때도 나서서 일을 해결해줬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두 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하루 종일 집에 고립되어 있던” 주인공 엄마의 “유일한 말동무가 되어주었다”.(70면) 그래서 두 가족은 상대방이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였다. 주인공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와 생각해보면 투이네 가족도, 우리 가족도 서로 말고는 그렇게 가까운 이들이 없었던 셈이다.”(70면)라고 회고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 시간들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역사 수업 에서 호 아저씨의 아들인 튀가 선생님의 말을 반박하며 베트남전쟁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성인이 아닌 한 아이의 생각이라고 가볍게 보면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아이의 의견은 후세대의 전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역사 선생님이 세계 2차 대전에 대해 강의를 할 때 “다행히 2차 대전 이후로 이처럼 대규모의 살상이 일어난 전쟁이 없었”(77면)다고 말했다. 튀는 이에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손을 들어 아니라고 말했는데 이 장면에서 베트남전쟁에 관한 평가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튀 가족의 비극이 알려지고 베트남전쟁의 문제점도 천천히 드러나게 된다.

> “베트남에서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삼촌 모두 다 죽었대요. 군인들이 와서 그냥 죽였대요. 아이들도 다 죽였다고. 마을이 없어졌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77면)

물론 전쟁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노인과 여자, 아이들까지도 다 죽였다면 학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 자행한 죄악을 변명하고 핑계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주인공의 아버지가 구차한 이유로 이를 변명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말해도 전쟁을 구실로 나약하고 아무 죄없는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튀가 말한 것은 베트남 남부지방에서 일어난 양민 학살사건이었는데 그때 튀의 가족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치열한 전쟁 상황에서 어른들은 모두 베트콩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 사람들을 살상한 미국군과 동맹국군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이고 마을을 초토화시킨 것은 매우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행동이었다. 따라서 한국군이 자행한 사건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재고해야 할 필요 가 있다. 한국군의 만행이 사실이라면 튀가 말한 사건을 학살사건으로 불러도 맞는 말이다. 그리고 튀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언급할 때보다 더 객관적인 지지를 받아내기 위하여 독일학생의 생각까지 소설 에서 전개했는데 이를 통해서 독일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떻게 교육 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도 있다.

> “베트남은 전쟁으로 미국을 이긴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만 육만 명이 죽었고 군인 아닌 베트남 사람도 이백만 명 죽었대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미군이 비행기로 폭탄을 떨어뜨리고 나무를 죽이는 약도 뿌렸고요.” (77면)

이 인용문을 통하여 베트남전쟁에 대한 관점이 하나 더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작품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관점과 입장에서 연구했는데 여기서 독일 사람의 인식도 드러난다. 이 장면에서 독일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미국과 동맹국을 비판하고 북베트남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해주는 태도가 입증된다. 그러다가 튀가 말한 것들이 이후에 모든 갈등과 충돌의 첫 출발점이 되어서 저녁에 두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주인공이 튀의 이야기에 자기 의견을 연관시키면서 클라이맥스 분위기가 연출된다. 주인공은 어른들의 칭찬을 받고 싶어서인지 한국에 대해 자랑했다.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78면)으며 "우린 아무에게도 잘못한 게 없고 우린 당하기만 했다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79면)라고 말했다. 이 장면으로 한국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주인공의 부모님과 호 아저씨의 가족들은 주인공의 말을 무시하고 모른 척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말 때문에 귀중한 사람을 곧 잃어버릴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눈빛을 피했다. 그런데 일어나야 할 일은 아무리 피해도 일어나는 것처럼 주인공이 어른들을 열심히 설득하고 있는 사이에 튀가 끼어들어 말하는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 "한국 군인들이 죽였다고 했어." 튀가 말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식탁의 분위기를 열려버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들이 엄마 가족 모두를 다 죽였다고 했어. 할머니도, 아기였던 이모까지도 그냥 다 죽였다고 했어. 엄마 고향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대."(79면)

그래도 튀의 엄마는 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튀와 상관이 없는 일이고 다 지나간 과거라며 그만하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예전으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 다 예측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각 사람이 마음속에 영원히 조용히 묻어두려고 했던 아픈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응웬 아줌마는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끔찍한 일들이 하나씩 다시 살아나서 그 기억들이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리고 주인공 아빠의 아픔도 화가 날 때마다 견딜 수 없이 다시 치솟아

오른다. 상처를 품고 살아온 어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받는다. 남에게 몇 십년 동안 견디며 살아온 아픔들을 던져주면서 마음이 더 편해지기는커녕 지금 아주 소중한 사람들을 또 다시 잃게 되는 아픔을 겪는다. 이 작품에서 보듯이 전쟁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과거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상흔이 현재의 정서까지 망가뜨렸다. 그래서 이제서야 전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한다. 전쟁은 참전한 군인들의 생명을 빼앗고, 참전 후 사회에 재적응하지 못한 사람에게 평범한 삶을 빼앗고, 전사한 군인의 형제에게 형제를 빼앗고,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후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겨주었다. 주인공의 아빠가 형제를 잃었고 응웬 아줌마도 모든 가족을 잃어서 타국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서로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었는데 이제 과거의 남은 상흔이 서로를 아프게 하고 현재의 행복한 순간을 끊어버렸다. 누가 잘못했는지를 논하기 전에 무엇보다 둘 다 전쟁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싶다. 전쟁이 끝난지 오랜 시간이 지나갔지만 전쟁에 직접 참전하지 않은 후세대가 지난 전쟁의 상흔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과거 전쟁 당시에 있었던 느낌과 다르지 않은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주인공과 튀가 3차세대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아직까지 전쟁의 아픈 상흔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 언제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끝날 건가? 전쟁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전쟁이 어떤 한 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한 국가의 책임도 아니기 때문에 양국의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부터는 베-한 양국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와 양국의 국민들이 베트남전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앞으로 전쟁의 나쁜 결과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베트남전에 대한 입장을 고찰해보면 두 정부가 아주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베트남전쟁은 전쟁에 참여한 나라마다 전쟁 성격이 다르게 기억된다. 베트남은 승리한 전쟁으로, 미국은 패배한 전쟁으로 인식한다. 한국은 '신이 한국에 내린 선물'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잊혀진 전쟁'으로 해석한다. (고명철, 「베트남전쟁 소설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 현대소설연구, 제19집, pp.291-312, 2003.) (369면)

>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반세기에 가까워진 오늘날 한국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전쟁의 진실을 덮어둔 채 자국의 이익을 전제로 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국민이 베트남전쟁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따라 현재의 양국관계는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고 미래로 나갈 수도 있다.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베트남전쟁 기억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다.[240]

양국의 교육내용과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튀와 주인공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인식은 서로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여기서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과연 성인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된다. 성인들의 인식을 주인공의 부모와 튀의 부모의 생각에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첫째는 튀의 부모는 튀처럼 베트남 전쟁을 미국과 동맹국들의 외침세력에 대항한 구국전쟁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한국군대가 그 당시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남베트남을 지원하여 북베트남 비정규군인 베트콩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양민들까지 학살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튀 가족은 '나'의 가족과 친구가 되어줄 때부터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마음속에 접어두고 현재의 소중한 인연을 잘 지키고 싶었다.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가 한국군의 무자비한 행동들이 전쟁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을 때 튀의 어머니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녀는 분명한 학살의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사과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사실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태도에서 베트남의 대외정책과 주장의 특징 을 볼 수 있는데 베트남은 과거에 발생한 모든 일들을 용서할 수 있지만 절대로 역사를 잊지 말고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면 '나'의 아버지는 끝까지 전쟁에 의존하여 핑계를 댈 뿐이었다. 그의 입장으로 서는 젊은 나이에 베트남전쟁에서 죽은 형이 불쌍하게 보이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한국군의 참전 동기와 만행은 부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현재 한국사람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제 베트남전쟁에서 일어났던 학살사건을 논할 때 미국이 민간인을 학살한 것을 자인한 것[241]과 달리 한국은 민간인 학살을 전면 부인하고 있기

240) 음영철,「베트남 전쟁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전승과 트라우마 양상」, 한국 콘텐츠 학회 논문지, 2020, 369면.
241) 미국의 역사 교과서인「미국: 현재로의 통로들」에는 베트남 주민 대량학살사건인 밀라이

때문이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 한국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하나는 학살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군은 베트콩만을 사살했을 뿐이라는 것이었다.[242] 물론 전쟁이 죽음을 동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쟁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앞으로 더 이상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베트남전쟁에 대해 논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다. 그중에 '나'의 아버지는 한 쪽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다른 쪽은 '나'의 어머니가 대표한다. '나'의 어머니는 지식이 있는 여자이며 결혼 후 일반 주부가 되었다. 그녀에게 튀의 어머니와 튀의 가족 모두가 소중한 존재였다. 그런데 과거에 벌어진 일들이 아직까지 두 가족을 물고 늘어 지고 있다. 튀의 어머니도 항상 튀에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전쟁과 전혀 연루되지 않은 3차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나'의 어머니는 튀의 가족을 이해해주는 태도를 표출하면서 튀 어머니에게 사과까지 하고 용서를 구했다. 특히 말싸움이 생긴 후 두 가족의 관계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는 나중에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독일에서 살았던 시간들을 그리워했고 한국에서 새로운 관계를 비록 많이 만들었지만 옛날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다. 전쟁이 없었다면 두 가족이 아직까지 좋은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쟁의 아픈 상흔은 쉽게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과거의 아픔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서로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다시 한번 더 상대방을 용서해주고 본인 자신에게도 아량을 베풀어주고 싶었다. 결말은 '나'와 응웬 아줌마의 반가운 만남으로 끝이 났는데 이는 두 가족의 화해, 더 나아가 두 국가의 화해라는 의미에 방점을 둔다. 그렇지만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서 결국 주인공의

학살에 대해 반인륜적 행위로 묘사하면서도 미군이 겪었을 두려움과 혼돈을 함께 보여주어 미군을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볼 것을 유도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군의 '불의'가 영웅적인 미군에 의해 저지되었음을 밝히면서 미군에 의해 정의가 회복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전진성, 이재원,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242) 음영철에 따르면 한국군이 학살 사건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군은 베트콩을 사살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공식기억 속에 한국군은 양민학살과 관련이 없다. (음영철, 「베트남 전쟁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전승과 트라우마 양상」,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20, 371면.)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다. 이는 독자의 견해에 따라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각 사람이 자신의 답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음영철에 따르면 "베트남전쟁에 관한 기억은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서로 다른 체험과 관점을 갖고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거나 배제하기보다는 이 두 관점을 포괄할 수 있는 인식들이 필요하다."[243] 따라서 두 작품을 통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리는지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를 구분할 게 아니라 바로 후세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아직 정신적으로 끝나지 않은 베트남전쟁을 양국 정부와 양국 국민이 확실히 인식하고 올바른 의견을 표출하여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이다.

243) 음영철, 앞 논문, 372면.

5. 결론

베트남전쟁은 한국사에서 큰 역사적 사건으로 한반도 전쟁 후 대한민국의 발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전쟁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연구주제가 되고 있는데 문학도 예외는 아니다. 본디 베트남전쟁 관련 소설은 다른 월남작가의 문학이나 전후문학에 관련된 작품과 비교하면 흔하지 않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旣)발표된 작품들을 통하여 그 당시 사람과 작가들이 베트남전쟁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문학은 당대의 삶을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고는 종군기 2편과 장편소설 4편, 중편소설 1편, 단편소설 3편을 살펴보았다. 각 작품은 그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을 바탕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을 반영했는데 작가의 주관적인 입장도 연구해본 결과 한국문학작품 흐름 속에서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이 진실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분명히 변화해 나가고 있다. 물론 주관적인 작가의 개인 인식과 객관적인 사회 분위기에 따라 각 작품에서 차이가 생기기 마련이지만 공통점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전쟁 특히 베트남 전쟁터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소재로 쓴 작품 중 많은 작품이 작가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쓴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과 연루된 후세들에 관한 이야기를 쓴 작가들 (이대환, 방현석, 정인, 최은영) 외에 본고에서 고찰한 종군기와 장편소설 네 편은 모두 다 작가가 직접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경험자로서 창작한 작품들이었다.[244]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최정희와 선우휘는 종군기자로

---

244) 언급된 작품 외에 본고는 다음과 같은 작품도 검증해봤다.
이원규의 『훈장과 굴레』, 현대문학사 (1986). 1986 년에는 이원규 작가가 '현대문학' 장편소설 공모에 베트남 참전 경험을 쓴 『훈장과 굴레』가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2 년에 『천서의 날개』를 발표하였다.
이상문, 『황색인』, 한국문학사, (1987). 그는 대학 재학 중 입대해 베트남 전쟁에 지원했던 이상문 작가는 참전경험을 여러 편의 소설에 녹여냈다.
지요하, 『회색 정글』, 글사랑, (1992). 작가는 베트남 전에 참전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여러가지 건강 장애가 있다.
박정환, 『느시』, 문예당, (2000). 박정환은 1967 년 10 월 베트남에 태권도 교관으로 파견되었다.

베트남 전쟁터로 나갔다. 선우휘의 경우는 당초 기자로서 베트남에 나갔는데 이때 『물결은 메콩까지』를 집필하기 위해 퀴논(Quy Nhơn)에 위치한 군사기지에서 종군하면서 취재를 했다. 이와 같은 종군으로 선우휘는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사건으로 유학을 구실로 떠난 일본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떨쳐버리고 기자생활과 문학가 생활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었다. 박영한은 1970년에 연세대학교 국문학과에 입학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하여 파월을 자원하였다. 그는 백마부대에서 종군하며 1972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약 25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복무했는데 1973년에 연세대학교에 복학해서 졸업 작품으로 『머나먼 쏭바강』을 창작했다. 황석영은 1966년에 해병대에 자원입대 하여 청룡부대 제2진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1969년 5월에 제대해서 1970년에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베트남전쟁의 경험을 소재로 쓴 단편소설 「탑」으로 당선되었다. 그리고 그가 베트남전쟁에서 직접 경험한 사실을 다룬 장편소설 『 무기의 그늘』이 1983년 1월부터 3월까지 1부, 1987년 9월부터 1988년 3월까지 2부로 『조선일보』에 연재되어 1988년에 책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정효 작가도 1966년부터 1968년까지 25개월 동안 베트남 전쟁터에서 복무하였다. 그는 1965년에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취업한지 얼마 안돼서 입대했다. 군대에서도 출중한 영어실력으로 참모총장 비서로 복무하다가 베트남전쟁 통역병으로 자원해서 전쟁터로 떠났다. 그가 이러한 파병을 경험한 경험자 입장의 사고로 작품을 썼는데 이는 독자들에게 그 당시 파병군인들의 사고와 감정을 심도있게 잘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각 작품에서는 주인공을 통해 작가의 모습도 그려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주인공들이 항상 국가와 개인 양극의 입장에서 왔다갔다 하는 상태를 보여주지만 결국 개인들이 국가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 전쟁에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는 바로 국가다.

둘째, 후세의 문제에 대해 쓴 작가들은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그 대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표출하면서 이들을 달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김현진, 『엽흔』. 대인교육, (2001). 그는 진주고등학교를 거쳐 진주교육대학 2 학년때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다.

황석영의 「낙타눈깔」, 월간문학사, (1972).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세 개인들도 국가라는 큰 주체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역사를 재고찰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발견한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문제를 반성하고 국가에게만 책임을 떠맡기는 대신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도 스스로 물으며 본인과 상대방의 갈등을 풀고 서로의 상처를 달래기에 노력한다.

셋째, 작가들이 베트남전에 대한 작품을 창작할 때 당연히 베트남전쟁에 관련된 주제를 쓰기 마련이지만 작가들마다 그 전쟁에 대한 경험과 인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 작가들의 창작 양상은 많이 달랐다. 최정희는 예술단장으로서 종군했기 때문에 한국군의 전투 모습은 많이 표출하지 않았고 그 대신 파병에 대한 감상이나 인상이 깊은 이미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했다. 반면 선우휘는 긴 시간동안 맹호부대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전투 장면이나 파병군인들의 생활 습관 등을 자세히 고찰해서 글로 표시했다. 또한 똑같은 선우휘이고 똑같은 전쟁이지만 소설인『물결은 메콩까지』에서는 전쟁의 다른 측면을 선택해서 창작했다. 주인공 남기욱이 다른 인물들과 “도이 토아이” (대화) 하는 방식으로 베트남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냈다. 선우휘는 전쟁터에서 일어난 죽음이나 고통보다 전쟁이 일어난 시국과 전쟁 참전 동기의 타당성을 다루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박영한도 전쟁의 아픔과 비극에 많이 집중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주인공 황일천과 베트남여자 빅뚜이와의 슬픈 사랑을 표출함으로써 잔혹한 전쟁과 낭만적인 사랑이 같이 동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전쟁의 아픔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황석영은 경제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후방인 블랙마켓의 활동을 자세히 그려냈다. 이를 통해 황석영은 베트남전쟁의 본질이 자본주의 통치계급의 집단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선우휘, 박영한 그리고 황석영을 같이 살펴보면 세 사람 모두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창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우휘는 1960년대 초의 사회 배경에, 박영한은 휴머니티적인 인간관계에, 그리고 황석영은 리얼리티적인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의 후유증을 다룬 작품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안정효는 현재와 과거를 교차해서 전쟁의 잔혹한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과거 때문에 한국군은 결코 행복하게 살 수 없으며 그 트라우마와 함께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일어났던 분위기와 현재의 삶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재현했다. 박영한과 안정효 두 작가 모두 휴머니티에 집중해서 스토리를 전개했지만 차이점도 있다. 즉, 박영한은 남녀간의 사랑에 치중하여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남녀간의 사랑이 전쟁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에 방점을 둔 반면 안정효는 광의적인 범위에서 출발하여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군의 아픔과 상처를 표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과 정인의 「이식 그언저리」, 방현석의 「랍스터를 먹는 시간」, 최은영의 「씬자오 씬자오」에서는 전쟁 후 사람들이 후유증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는 지와 후세대가 이 전쟁에 대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냈다. 이처럼 안정효는 전쟁에 직접 참전한 한국군의 트라우마를, 이대환은 고엽제 때문에 군인과 후세들이 겪은 신체적인 고통을, 정인은 라이따이한 혼혈아가 겪은 상흔을, 방현석은 한국군의 학살현장에서 살아남은 베트남 사람의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처를, 최은영은 후세에 계속적으로 붙인 전쟁의 유령을 묘사했다.

넷째, 모든 작품의 주인공들이 전쟁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결은 메콩까지』의 남기욱은 전쟁이 끝났더라도 화평한 서울에서 날마다 무의미한 삶을 견뎌내며 살아가야 한다. 『머나먼 쏭바강』의 황일천은 행복한 결말이 되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 마음속에 상처가 영원히 존재한다. 『무기의 그늘』의 북한이 고향인 안영규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잘려져 있는 상황에서 제대를 하더라도 돌아갈 집이 없다. 그는 어쩔 수 없이 국가분단의 아픔을 품고 살아야 한다. 『하얀전쟁』의 한병장과 변일병은 제대 후 일반적인 삶에 재적응하지 못하다가 결국 변일병이 학살사건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며 고통에서 탈출했다. 『슬로우 불릿』의 익수와 영호도 죽음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탈출했다. 「이식 그언저리」의 라이따이한 주인공은 본인의 원천을 찾았지만 결국 그 '불투명한 출신'으로 인해 인생의 악순환에 빠졌다. 「랍스타를 먹는 시간」의 건석은 죽은 형에게 죄책감 을 가졌다. 게다가 이 작품에서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다 가지고 있는 인물인 러이도 등장했다. 그리고「씬자오 씬자오」는 전쟁이 아직도 무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려면 신체적인 아픔부터

참전자와 많은 후세대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픈 기억과 상처까지 치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2장과 3장에서 나온 작품들에는 베트남전쟁과 한반도전쟁을 비교하는 추세가 있다. 베트남과 한반도는 다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베트남전쟁에 관련된 한국소설들 중에 한국과 베트남의 상황을 비교하는 장면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선우휘, 박영한은 다 베트남과 한국을 같이 보았는데 한반도의 분단상황을 고려해서 베트남전쟁의 결과도 부정적으로 예측했었다. 따라서 선우휘는 베트남전쟁이 끝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선 평화로운 세상이 되돌아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물너울이 있고 일반적인 삶에 재적응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여기서처럼 실질적인 화평이 오지 않았을 때 선우휘의 부정적인 태도가 이해된다. 황석영은 베트남전쟁을 통하여 한국전쟁 또는 한국의 과거를 볼 수 있어서 베트남과 한국이 동병상련의 관계로 베트남전쟁이 남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전쟁 때문에 한반도에서 하나로 존재했던 한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진 채 임시방편으로 화평이 다시 왔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역설했다.

여섯째, 한국군의 참전동기를 볼 때 모든 작품에서 주인공 모두가 다 자원해서 종군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을 위해 자원했는지는 각 작품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남기욱은 평화로운 서울에서 삶의 의미를 못 찾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영웅적이고 이상적인 청춘을 다시 찾기 위해 친구인 조일천의 권유에 따라 베트남에 종군하기로 결심했다. 황일천은 빛나는 청춘을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려고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몽상을 품고 베트남정글로 떠났다. 안영규는 자신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참전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각 인물의 참전 사유가 다를 수 있지만 막상 그들이 베트남 전쟁터에 들어가 잔혹하고 무시무시한 전쟁의 현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남기욱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당황하고 후회했다는 감정을 표출했다. 실제로 모든 작품의 주인공들이 다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전쟁에 갔다는 걸 인정했지만 결국 국가의 이익을 위해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에서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소멸하면서 국가를 위한 참전이라는 사고방식에서 국가를 치열하게 비판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오히려 2000년대부터 창작된 작품들에서 선택권이 없이 출생한 후세들은 전쟁의 악영향 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이 전쟁에 참전한 역사를 다시 알아보고 베트남전쟁의 본질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더 나아가서 본인이 이 전쟁과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인정하며 본인 의 책임 또한 죄책감까지도 자문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일곱째,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라는 논점이다. 정리해보면 작가들은 주로 2가지 관점으로 나눈다. 첫째는 베트남사람의 전쟁, 둘째는 집단적인 통치계급의 전쟁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머나먼 쏭바강』에서는 베트남전쟁이 베트남사람의 전쟁이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무기의 그늘』과 『하얀 전쟁』에서는 집단적인 통치계급의 전쟁이란 관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선우휘는 『물결은 메콩까지』에서 베트남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 아직 답을 찾지 못했는데 다른 작가들이 2000년 이후에 발표한 작품들은 이 논점 대신에 이 전쟁 때문에 개인에게 발생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알아봤다.

여덟째, 한국군이 무엇을 위해서 전투하고 있었는가? 라는 문제이다. 본고는 집단입장이든 개인입장이든 모두 다 경제적인 원인으로 이 전쟁에서 참전했다는 것을 입증했다. 다만 각 작품에서 이 동기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는 조금씩 다르다. 『물결은 메콩까지』 에서 선우휘가 항상 베트남의 평화를 위해 또한 사회주의의 팽창을 막기 위해 전투하고 있다는 논거를 제시했지만 결국 돈을 벌기 위해 베트남에 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부터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에 걸쳐 안정효의『하얀 전쟁』 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참전 사유로 경제적인 원인을 부정하지 않았다. 게다가, 박영한과 안정효는 대립적인 이데올로기와 미국의 영향력이란 요인을 언급했지만 그건 단지 베트남전쟁터에 가기 전에 생각했던 것일 뿐이지, 전쟁을 직접 체험해 보고 전쟁의 본질을 깨달은 후부터는 돈을 벌기 위하여 참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베트남전쟁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를 연구해 왔다. 흘러간 역사의 흐름에 따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은 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960년대부터 한국독자들에게 찾아온 베트남전쟁에 관한 작품

들은 독재주의 억압 아래 국가주의와 영웅주의 정신을 표출하는데 집중됐다. 또한 국가 입장이든 개인 입장이든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것을 미화해서 베트남의 평화와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서 숭고하게 헌신했다는 쪽으로 여론을 이끌어 갔다. 이 시기의 개인들은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조국을 위하여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이미지로 그려졌다. 따라서 개인들이 암담한 시국으로 지치고 가난한 경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쟁 참전 사유 중 국가를 위한 참전이 결국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서 다른 개인적 사정들은 다 무시되고 부정되었다. 1960년대에는 국가와 개인들이 일체였으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출되었다.

1970년대부터 베트남전쟁에 대한 소설들이 이전과 달리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1970년대 작품들이 아직 이전 시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사고방식도 점점 나타났다. 작품에 나온 주인공들이 전쟁의 현장에서 전쟁을 직접 체험하며 참전 전에 기대했던 낭만과 모순적인 상황에 빠져서 참전 전후의 인식이 바뀌어 베트남전쟁의 본질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전쟁을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개인들이 막상 전쟁터에 가서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고 당초 참전한 목적을 자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그들은 아직도 국가를 위해 영웅이 되고 싶은 정신으로 국가란 주체 속에 존재하는 개인들이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베트남전쟁에 관한 소설의 큰 전환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황석영은 경제적 착취와 전쟁의 현실적인 면모를 자세히 묘사해서 국가와 개인 둘 다 부정적인 목적으로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을 신랄하게 발가벗겼다. 이처럼 이 작품은 침략전쟁의 본질이 결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표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부정적인 참전 행위를 강렬하게 비판했고 개인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도 인정했다. 하지만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할 주체가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속에 있는 개인들은 “다른 방도”가 없다는 핑계로 책임을 소멸시켜서 베트남사람들에게 가해자일 수도 있지만 국가(한국정부)에게는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베트남전쟁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소재로 창작된 작품들에 나타난 국가와 개인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군인들과 후세들은 전쟁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가해자이기도 하다. 여기서 국가는 전쟁 때문에

정신적인 트라우마와 신체적인 상처를 입었던 개인들에게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전쟁의 주체인 국가와 살아남은 모든 후세들이 이 전쟁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 본인이 이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부터 발표된 작품들은 전쟁에서 직접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선택하는 것보다 전쟁 후 일반생활에서 발생한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창작되었다. 여기서 대부분의 주인공들이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이 전쟁과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본인 개인의 책임을 자신에게 자주 물어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서 문학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으로 봐도 될 것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최정희,「사랑하는 兵士들에게 」동아일보, 1967.02.28.~03.02.

선우휘,「맹호(猛虎) 6호작전(號作戰) 종군기(從軍記)」, 조선일보, 1966.10.13 ~16.

_____,『물결은 메콩까지』, 1966.

박영한,『머너먼 쏭바강』, 1978.

_____,『인간의 새벽』, 1980.

신상웅,『심야의 정담』, 1973.

황석영,『무기의 그늘』, (상,하 권), 1985.

안정효,『하얀 전쟁』, 1989.

이대환,『슬로우 불릿』, 2013.

방현석,「랍스타를 먹는 시간」, 2003.

정인,「이식(移植), 그 언저리」, 2016.

최은영,「씬자오 씬짜오」, 2016.

국내 논저

- **국내단행본**

최원식,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 최원식 평론집』, 창작과비평사, 1997.

도마야마 이치로 지음, 임성모 옮김, 『전쟁의 기억』, 이산, 2002.

다카하시 데쓰야 지음, 이목 옮김, 『국가와 희생 - 개인의 희생 없는 국가와 사회는 존재하는가? 』, 책과함께, 2008.

이규봉, 『미안해요! 베트남 -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현장을 가다』,푸른역사, 2011.

박태균, 『베트남전쟁 - 잊혀진 전쟁, 반쪽의 기억』, 한겨레출판, 2015.

후루타 모토오 지음, 박홍영 옮김, 『역사 속의 베트남전쟁』, 일조각, 2007.

이영희, 『베트남 戰爭 : 30년 베트남전쟁의 전개와 종결』, 두레, 1985.

고명철,『고명철 평론집』, 신천문학사, 2005.
최원식, 『임홍배 엮음, 황석영 문학의 세계』, 창비, 2003.
이용준,『베트남, 옃혀진 전쟁의 상흔을 찾아서』,조선일보사,2003.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한수영,『사상과 성찰』,소명출판, 2011.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솔, 2000.
전진성, 이재원, 『기억과 전쟁』, 휴머니스트, 2009.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후루타 모토오,『역사 속의 베트남전쟁』,박홍영 역, 일조각, 2007.
악셀호네트, 강병호 역, 『물화』, 나남신서, 2006.
임기현,『 황석영 소설의 탈식민성』, 역락, 2010.
이익성, 『선우휘: 근대사의 역동성과 문학적 변용』,세계작가 탐구 25, 건국대학교출판부, 2004.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2007.

- **국내 학술논문**

주익종,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베트남 특수를 일으켰나? 」, 경제사학회, 2018.
서은주, 「월남파병 30주년:월남과한국, 한국 소설 속의 월남전」, 역사비평, 1995.
안남일,「황석영 소설과 베트남전쟁」, 한국학연구,1999.
임홍배, 「베트남전쟁과 제국의 정치, 『무기의그늘』론」, 최원석, 임홍배 엮음, 『황석영 문학의 세계』, 창비, 2003.
최인식, 「한국 소설에 나타남 베트남전쟁」, 『생산적 대화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1997.
이신재, 「베트남전쟁기 한국 종군기자의 파견과 활동 고찰,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한국군사학논집, 2020.
김종욱,「베트남전쟁과 선우휘의 변모」,우리말글,2014.
도 미엔 (DO THANH THAO MIEN), 「베트남 학계의 남.북한 연구 동향 및 쟁점: 베트남 전쟁 시기 (1954~1975년)를 중심으로」, 이화사학연구, 2019.
최동주,「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동기에 관한 재고찰」, 한국정치

학회보, 1996.
음영철,「선우휘 단편소설에 나타난 작가의식」,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6.
____,「베트남 전쟁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전승과 트라우마 양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0.
정주아,「두 개의 국경과 이동 (displacement)의 딜레마, 선우휘를 통해 본 월남 작가의 반공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2012.
한수영,「윤리적 인간, 혹은 반공이데올로기의 기원, 실천문학」, 봄호, 2001.
서세림,「선우휘 소설에 나타난 연대의 성격」,현대소설연구, 2017.
유철상,「활면의 전쟁과 관찰자의 시선 박영한의 베트남 전쟁 소설」, 현대소설연구,2014.
김주현,「월남전 서사의 구성 원리와 문학적 영향 파월 수기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2014.
홍규덕,「베트남전 참전 결정과정과 그 영향」.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60년대의 대외관계와 남북문제』. 서울: 백산서당,1999.
최동주,「베트남파병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 미친 영향」,『동남아시아연구』, 11권, 2001.
응웬 티 탄 쑤언,「베트남에 관한 한국 소설 두 편 속의 참회와 화해-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방현석의 「랍스타를 먹는 시간」을 읽고」, 국제언어문학, 2017.
김경민, 「한국 문학이 아시아와 마주하는 법」, 국어국문학, 2020.
_____, 「기억의 재구성과 반성의 문학, 베트남전쟁 소재 소설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2018.
이경재,「베트남전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입장과 젠더 비유의 관련성」, 우리문학연구, 2018.
____,「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기억의 변모 양상, 안정효의 『하얀 전쟁』개작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16.
유승환, 「베트남전쟁소설에 나타난 민족어들의 위계와 경합」, 한국현대문학연구, 2015.
송승철, 「베트남전쟁 소설론: 용병의 교훈」, 창작과 비평, 1993.
장세진, 「학병, 전쟁 연쇄 그리고 파병의 논리- 선우휘의 『물결은

메콩까지』 (1966)를 중심으로」,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8.
김전기, 「반공주의와 자유주의 - 선우휘의 「불꽃」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05.
김건우,「선우휘의 「십자가 없는 골고다」론, 한국사회 공론영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2007.
장두영,「베트남전쟁 소설론 - 파병담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008.
윤충로,「한국의 베트남전쟁 기억의 변화와 재구성, 1999년 『한겨레 21』캠페인과 그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사회사학회, 2015.
최정기,「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공식적인 기억과 대항기억의 차이를 중심으로」,민주주의와 인권, 2009.
방재적,「베트남전쟁을 통한 의식의 변화양상 비교연구, 『무기의 그늘』과 『그대 아직 살아 있다면』을 중심으로」,현대소설연구,2011.
방재석, 조선영, 「베트남전쟁과 한-베트남 문학 교류 고찰」, 현대소설연구, 2014.
정찬영,「한국과 베트남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쟁 담론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8집, 2011.
안정애,「한국 근현대사와 기록-한국군의 베트남 전쟁 파병관련 국내 자료의 종료와 성격」, 한국기록학회, 2004.
차원현, 「두 개의 휴머니즘-1980년대 문학의 정념들」,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1.
김종욱, 「한국과 베트남의 '베트남전쟁' 인식과 교육」, 아시아연구, 2017.
홍기돈,「서평: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방현석, 「랍스터를 먹는 시간」 (창비, 2003)」, 실천문학, 2004.
고명철, 「베트남전쟁 소설의 형상화에 대한 문제, 베트남전쟁 소설의 전개 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03.
_____, 「베트남전쟁 소설,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 『칼날 위에 서다』, 실천문학사, 2005.
강용훈, 「황석영의 전쟁 소재 중장편 소설에 나타난 공간 표상, 지정학적 상상력의 변모 양상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27, 2014.

안남일, 「황석영 소설과 베트남전쟁」, 한국학연구, 1999.
오자은, 「냉담과 오욕: 『무기의 그늘』에 나타난 감정의 동역학」, 현대문학연구, 2019.
이지은, 「민족국가의 베트남전쟁 해석사와 국적불명 여성들의 전장, 황석영의『무기의 그늘』재독」, 동방학지, 제190집, 2020.
권은, 「물화된 전쟁과 제국의 시선, 황석영의『무기의 그늘』론」, 현대소설연구, 2014.
조윤정, 「베트남전쟁을 둘러싼 한국.베트남.미국 작가의 글쓰기 의식, 안정효, 바오 닌, 팀 오브라이언의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서설연구, 2014.
김우영, 「베트남 전쟁을 기억하기, '추모'와 '망각'을 넘어서, 안정효의 『하얀전쟁』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4, 2014.
박홍영, 「한국군 베트남 파병 (1961-1966)의 재검토: 릿세의 행위의 논리 적용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2000.
김봉중,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 미국 외교」,미국사연구, 2011.
정호웅, 「베트남 민족 해방 투쟁의 안과 밖」, 외국문학, 1990.
박철우, 「베트남 전쟁소설 연구」, 한국문예창작, 2007.
하정일, 「분단의 형이상학을 넘어서 황석영론」, 실천문학, 2001.
박진임,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재현: 팀 오브라이언의 『숲의 호수에서』와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2004.
윤정헌, 「월남전소재 소설의 두 시각, 『하얀 전쟁』과 『내 이름은 티안』의 대비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03.
김경수, 「자기위안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진단-베트남전쟁 소설의 상상력」, 서강인문논총, 2004.
지현희, 「한-베 베트남전쟁 소설 비교 연구」, 문창어문논집,2006.
한성훈, 「하미마을의 학살과 베트남의 역사 인식, 위령비와 '과거를 단고 미래를 향한다' 」, 사회와 역사 제118집, 한국사회사학회, 2018.
임종명, 「해방직후 남한신문과 베트남전쟁 재현.표상」, 현대문학의 연구, 2014.
이수정, 「역사 교과서의 '전쟁' 관련 서술에 대한 새로운 모색, 한미

역사 교과상,ㅣ 6.25 전쟁과 베트남전쟁 서술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제10집, 2010.
이동원,「배트남전쟁기 PX와 군표의 정치경제학」,역사와현실,2020.
윤충로, 「베트남전쟁 시기 한.미.월 관계에서 한국의 '정체성 만들기', 식민지적 무의식과 식민주의를 향한 열망 사이에서」, 담론 201, 2007.
_____, 「20세기 한국의 대 베트남 관계와 인식: 1945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97집, 한국사회사학회, 2013.
김경수, 「자기위안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진단- 베트남전쟁 소설의 상상력」, 서강인문논총, 2004.
박진임, 「역사적 진실과 문학적 재현: 팀 오브라이언의 『숲의 호수에서』와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을 중심으로」, 미국학논집, 2004.
이평전, 「베트남전쟁 소설에 나타난 '신성'과 '폭력' 인식론적 기원 연구」, 영주어문, 2019.
황병주, 「특집: 민중, 희생자인가 공범자인가 박정희 시대의 국가와 '민중' 」, 당대비평, 2000.
윤애경,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2세의 형상화 양상」, 현대문학, 우리어문연구 50집, 2014.
송주성, 「1년의 전쟁, 40년의 고통 - 이대환, 『슬로우 불릿』」, 실천문학, 2001.
이춘호, 「베트남 '라이따이한'에 관한 소고」, 인문사회, 2018.
방민호, 「역사적 운명의 탐구, 가려진 진실의 재현」, 이대환 지은, 전승희 옮김, 『슬로우 불릿』, ASIA, 2013.
윤애경, 「한국소설에 나타난 베트남전 2세의 형상화 양상」, 현대문학, 우리어문연구 50집, 2014.
이경재, 「이대환의 『슬로우 불릿』연구」 춘원연구학보,2020.
신형기, 베트남 파병과 월남 이야기, 동방학지 제157집, 2012.
김관옥, 베트남 파병정책 결정요인의 재논의, 군사연구, 2014.
이준기, 선우휘 문학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강유인화,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사회와 역사, 2013.

강유인화,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기억과 참전군인의 기억투쟁, 사회와 역사, 2013.
박태균,「1960년대 중반 안보 위기와 제2경제론」, 역사비평, 2005.
이재은,「아시아의 정신은 스토리텔링이다」, 월간조건, 2014.05
김도원,「미디어 전쟁」, 조선일보, 2003.04.10.
박동은,「연예인단『靑龍(청룡)』위문」, 동아일보, 1967.02.11.
최정희,「월남 소식」, 『대한뉴스610호』, 1967.02.18.
신정자,「이데올로기의 환상과 재인식 -방현석 소설「존재의 형식」과「랍스터를 먹는 시간」」, 인문학연구 36권0호, 2008.
김자영,「베트남전쟁 소설에 나타난 기억의 서사 분석 - 방현석의「존재의 형식」,「랍스터를 먹는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2021.
하채현,「방현석 소설의 베트남 표상 연구」,한국 지역 문학 연구, 2017.

국외논저

Nguyễn Thị Ngọc Oanh, 「Chính sách đối ngoại của Đại Hàn」, Sài Gòn: Học Viện Quốc gia Hành chánh, 1974.
Lê Đức Hạnh,「Quân đội Hàn Quốc trong cuộc chiến tranh xâm lược của Mỹ ở Việt Nam (1964- 1973)」, luận văn thạc sỹ sử học,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Đại học Khoa học xã hội và Nhân văn, 2004.
Trường Chinh, 『Về một số vấn đề văn nghệ Việt Nam hiện nay, in trong: Hồ Chí Minh, Lê Duẩn, Trường Chinh, Phạm Văn Đồng, Võ Nguyên Giáp, Về văn hoá văn nghệ, Hà Nội』 Nxb.Văn học, 1972.
Đăng Sơn, 「Mỹ đã "viện trợ" cho Mặt trận dân tộc giải phóng Miền Nam như thế nào? 」Báo Quân đội Nhân dân, số ra ngày 21/12/2019.
Trần Đình Sử, 「Tiếp nhận nguyên lí văn nghệ phục vụ chính trị ở Việt Nam」, Wordpress.com, 2015.
Nguyễn Hồng Dũng, 「Chiến tranh Việt Nam trong văn học Mỹ – từ sự thật đến tác phẩm」, tạp chí sông Hương, 2021.

Trần Thị Mai Nhân, 「Nhìn lại tiểu thuyết về chiến tranh trong văn học Việt Nam giai đoạn 1945-1975」, 한국베트남학회 정기학술대회, 2017.
칼 션버거, 「한국군 용병론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Los Angeles Times, 10 September, 1989, Book Review p.2.
「247. Memorandum of Conversation」, Washington, November 14, 1961, FRUS, 1961-1963, Vol XXII: Northeast Asia.
Donald Ringnalda, 「Fighting and writing: American's Vietnam War Literature, Journal of American Studies」, Apr. 1988, Vol. 22, No. 1, Civil Rights and Student Protest (Apr, 1988), pp.25-42.
Tom Graydon Colonnese, The Vietnam War in the American Literature, Arizona State University,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 1981.
Presidential Task Force.; Briefing Papė for Visit of President Park, May 17-19, 1965, Box 256, LBJ;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Defense.

학위논문

도타잉타오미엔 (DO THANH THAO MIEN), 「베트남전쟁기 한반도와 베트남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_____, 「1975년 남베트남 패망이 한국사회와 한-미-일 관계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정현우, 「베트남전쟁 초기(1964~1968), 한국사회의 베트남전쟁 및 국군 파병에 대한 인식- 파월 병사와 기술자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응웬 레 투 (NGUYEN LE THU), 「황석영 문학에 나타난 베트남전쟁-『무기의 그늘』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석사학위논문, 2005.
BUI THI BACH DUONG, 「박영한의 『머나먼 쏭바강』과 Anh Duc의 『Hon Dat』 비교- 인물의 성격 분석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지현희, 「한-베 베트남전쟁 소설 비교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김자영, 「베트남전쟁 소설에 나타난 성(性)과 섹슈얼리티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김명희, 「황석영의 베트남 전쟁 소설 연구」,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석사학위 논문, 2007.
응웬티 하 디엔 (NGUYEN THI HA TIEN), 「베트남전쟁 서사에 나타난 부등가교환 양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18.

Abstract